

華寧殿 典祠廳址 發掘調査 報告書

金性泰・丁海得

許世蓮・金点淑

2000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水 原 市

목 차

I. 머 리 말	9
II. 조사경과 및 방법	
1. 조사경과	10
2. 조사방법	14
III. 화령전의 역사적 고찰	14
IV. 조사내용	
1. 유구	
1) 층위	21
2) 유구	27
(1) '가' 지점 건물지	27
(2) 외곽 담장 기초 석렬	28
(3) 우물	32
(4) 기타 시설물	34
(5) '나' 지점 건물지	36
2. 유물	
1) 자기류	36
2) 도기류	41
3) 전돌류	46
4) 기와류	49
5) 石製品	54
6) 鐵製品	57
7) 鑄貨	61
V. 考察	
1. 遺構	62
2. 遺物	63
VI. 결론 - 화령전 유적 복원에 대한 조사단 의견	65

附 錄 -『華寧殿應行節目』(奎章閣 所藏, 3240)

도면목차

도면 1. 조사지역 고지도(水原府地圖, 1872)	11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12
도면 3. 조사지역 위치도(1:5,000)	13
도면 4. 화령전 현황 배치도(『京畿道指定文化財實測調査報告書』, 1998)	15
도면 5. 조사지역 고지도(『一萬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 1917)	17
도면 6. 조사지역 1914년 近世지적도	18
도면 7. 영희전 건물 배치도	19
도면 8. '가' 지점 건물지 토층도	21
도면 9-1. '가' 지점 우물 토층도	22
도면 9-2. '가' 지점 우물 서측 트렌치 토층도	23
도면 10. '가' 지점 유구배치도	24
도면 11. '가' 지점 건물지 평·단면도	25
도면 12. '가' 지점 적심 절개 단면도	28
도면 13.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석렬 평·입면도	29
도면 14. '가' 지점 우물 평면도	32
도면 15. '가' 지점 우물 하단 탐색트렌치 토층도	31
도면 16. '가' 지점 우물 단면도	33
도면 17. '가' 지점 우물 동측 상단 입면도	34
도면 18. '가' 지점 우물 암거 석렬 트렌치 토층도	35
도면 19. '나' 지점 유구 배치도	37
도면 20. 출토유물 - 자기류	38
도면 21. 출토유물 - 자기류	40
도면 22. 출토유물 - 도기류	42
도면 23. 출토유물 - 도기류	44
도면 24. 출토유물 - 도기류	45
도면 25. 출토유물 - 전돌류	47
도면 26. 출토유물 - 전돌류	48
도면 27. 출토유물 - 전돌류	49
도면 28. 출토유물 - 기와류	50

도면 29. 출토유물 - 기와류	52
도면 30. 출토유물 - 기와류	53
도면 31. 출토유물 - 석제품	55
도면 32. 출토유물 - 석제품	56
도면 33. 출토유물 - 철제품	58
도면 34. 출토유물 - 철제품	59
도면 35. 출토유물 - 철제품	60
도면 36. 화령전 유적 추정 복원도	66

사진목차

사진 1. 화령전 전경	68
사진 2. '가' 지점 조사전 광경	68
사진 3. '가' 지점 토층상태	69
사진 4. '가' 지점 토층상태 세부	69
사진 5. '가' 지점 우물 서측 트렌치 토층상태	69
사진 6. '가' 지점 우물 남측 토층상태	70
사진 7. '가' 지점 건물지 전경	70
사진 8. '가' 지점 건물지 북측 경계석 전경	71
사진 9. '가' 지점 건물지 남측 경계석 전경	71
사진 10. '가' 지점 건물지 남측 경계석 부분	72
사진 11. '가' 지점 건물지 동측 경계석 전경	72
사진 12. '가' 지점 건물지 적심③	73
사진 13. '가' 지점 건물지 적심⑦과 고맥이	73
사진 14. '가' 지점 건물지 동측 전경	74
사진 15. '가' 지점 건물지 서측 전경	74
사진 16. '가' 지점 건물지 적심 기초 절개상태	75
사진 17. '가' 지점 건물지 적심 기초 바닥상태	75
사진 18. '가' 지점 적심 기초 제 2열 트렌치	76
사진 19. '가' 지점 건물지내 석렬	76

사진 20. '가' 지점 건물지내 연탄아궁이	77
사진 21. '가' 지점 건물지내 薄石	77
사진 22.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 석렬 노출상태	78
사진 23.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 석렬 세부	78
사진 24.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 석렬 축조상태	79
사진 25. '가' 지점 우물 전경	79
사진 26. '가' 지점 우물 내부광경	80
사진 27. '가' 지점 우물 동남측 결구상태	80
사진 28. '가' 지점 우물 동측 입면상태	81
사진 29. '가' 지점 우물 남측 입면상태	81
사진 30. '가' 지점 우물 동측 트렌치 전경	82
사진 31. '가' 지점 우물 남측 트렌치 전경	82
사진 32. '가' 지점 우물 동남측 암거 노출상태	83
사진 33. '가' 지점 우물 동남측 암거주변 노출상태	83
사진 34. '가' 지점 우물 암거 트렌치 토층상태	84
사진 35. '가' 지점 제 1단 기단석	84
사진 36. '가' 지점 누조석	85
사진 37. '가' 지점 제 2단 북측 기단석	85
사진 38. '가' 지점 제 2단 남측 기단석	86
사진 39. '가' 지점 제 3단 기단석	86
사진 40. '가' 지점 건물지 북서측 경계석	87
사진 41. '가' 지점 건물지 남측 경계석	87
사진 42. '나' 지점 건물지 전경	88
사진 43. '나' 지점 건물지 남측 석렬 전경	88
사진 44. '나' 지점 남측석렬 세부	89
사진 45. '나' 지점 건물지 북측 전경	89
사진 46. 출토유물 - 자기류	90
사진 47. 출토유물 - 자기류	90
사진 48. 출토유물 - 자기류	90
사진 49. 출토유물 - 자기류	90
사진 50. 출토유물 - 자기류	91

사진 51. 출토유물 - 자기류	91
사진 52. 출토유물 - 도기류	91
사진 53. 출토유물 - 도기류	91
사진 54. 출토유물 - 도기류	92
사진 55. 출토유물 - 도기류	92
사진 56. 출토유물 - 도기류	92
사진 57. 출토유물 - 전돌류	92
사진 58. 출토유물 - 전돌류	92
사진 59. 출토유물 - 전돌류	93
사진 60. 출토유물 - 전돌류	93
사진 61. 출토유물 - 전돌류	93
사진 62. 출토유물 - 전돌류	93
사진 63. 출토유물 - 전돌류	93
사진 64. 출토유물 - 기와류	93
사진 65. 출토유물 - 기와류	94
사진 66. 출토유물 - 기와류	94
사진 67. 출토유물 - 기와류	94
사진 67-②. 세부	94
사진 68. 출토유물 - 기와류	95
사진 69. 출토유물 - 기와류	95
사진 70. 출토유물 - 기와류	95
사진 71. 출토유물 - 기와류	95
사진 72. 출토유물 - 석제품	96
사진 73. 출토유물 - 석제품	96
사진 74. 출토유물 - 석제품	96
사진 75. 출토유물 - 철제품	96
사진 76. 출토유물 - 철제품	97
사진 77. 출토유물 - 철제품	97
사진 78. 출토유물 - 철제품	97
사진 79. 출토유물 - 철제품	97
사진 80. 출토유물 - 철제품	98
사진 81. 출토유물 - 鑄貨	98

I.머 리 말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 123번지에 위치한 華寧殿은 正祖(재위 : 1776~1800)의 影殿으로 1801년(순조 원년) 완공되어 2001년 건립 200주년을 맞이하였다. 화령전은 조선시대 지방에 세워진 影殿중에서 전주의 慶基殿과 함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5호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원형의 일부가 훼손되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화령전 관련자료로는 御眞을 正殿에 봉안할 때의 기록인 『奉安閣謄錄』, 현릉원 재실에 있던 정조 어진을 옮겨 올 때의 기록인 『移安謄錄』, 화령전 건립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담고 있는 『營建謄錄』등이 있었으나 모두 逸失되어 정확한 고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1999년 화령전의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원을 계획하고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발굴조사는 갖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본 연구원에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민가의 철거가 끝난 1999년 9월 3일 시작하여 1999년 11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건물지 발굴조사 과정에서는 운한각 남측 건물지 서측에 위치한 우물에서 용출수가 건물지 조사에 지장을 줌에 따라 별도의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후 수원시 화성관리사무소에서는 우선 우물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삼대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은 2000년 4월 18일 삼대건설주식회사와 화령전 우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영건 당시의 우물축조형태와 주변의 배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999년의 화령전 유적 발굴조사와 2000년 화령전 우물 추가 발굴조사 보고서가 별도로 간행되어야 하지만 우물에 대한 조사가 건물지 발굴조사에서 순연된 것이었기 때문에 수원시와 보고서 간행문제를 협의하여 본 보고서에서 함께 기술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경호(당시 경기도박물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

지 도 위 원 : 한병삼(문화재청 문화재위원, 6분과 위원장)

김병모(당시 한양대학교박물관장, 현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조 사 위 원 : 김동욱(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윤근일(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책임조사원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김아관(" 연 구 원)

정해득(" 조 사 원)

허세연(" 조 사 원)

조사보조원 : 이창원(" 조 사 원)

강동석(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조성숙(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김점숙(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정경아(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장경호 원장의 지휘아래 김성태가 총괄하였는데, 이 중 현장조사는 정해득, 허세연이 담당하였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 사진은 상기 2인이 촬영하였다. 유구실측은 허세연, 강동석, 유물사진은 정해득, 유물의 세척에서부터 실측 및 도면편집은 김점숙, 정경아가 담당하였다. 본문은 정해득, 유물원고는 정해득, 정경아가 작성하였으며, 김성태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장경호가 수정·가필하였다.

Ⅱ. 조사경과 및 방법

1. 조사경과

수원시는 華寧殿의 원형을 복원하여 조상의 얼을 기리고,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1999년 2월 23일 화령전 유적 발굴조사를 계획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동년 5월 3일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았다. 1999년 8월 30일 수원시 화성관리사무소와 실작업일 20일의 조건으로 화령전 유적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월 3일 조사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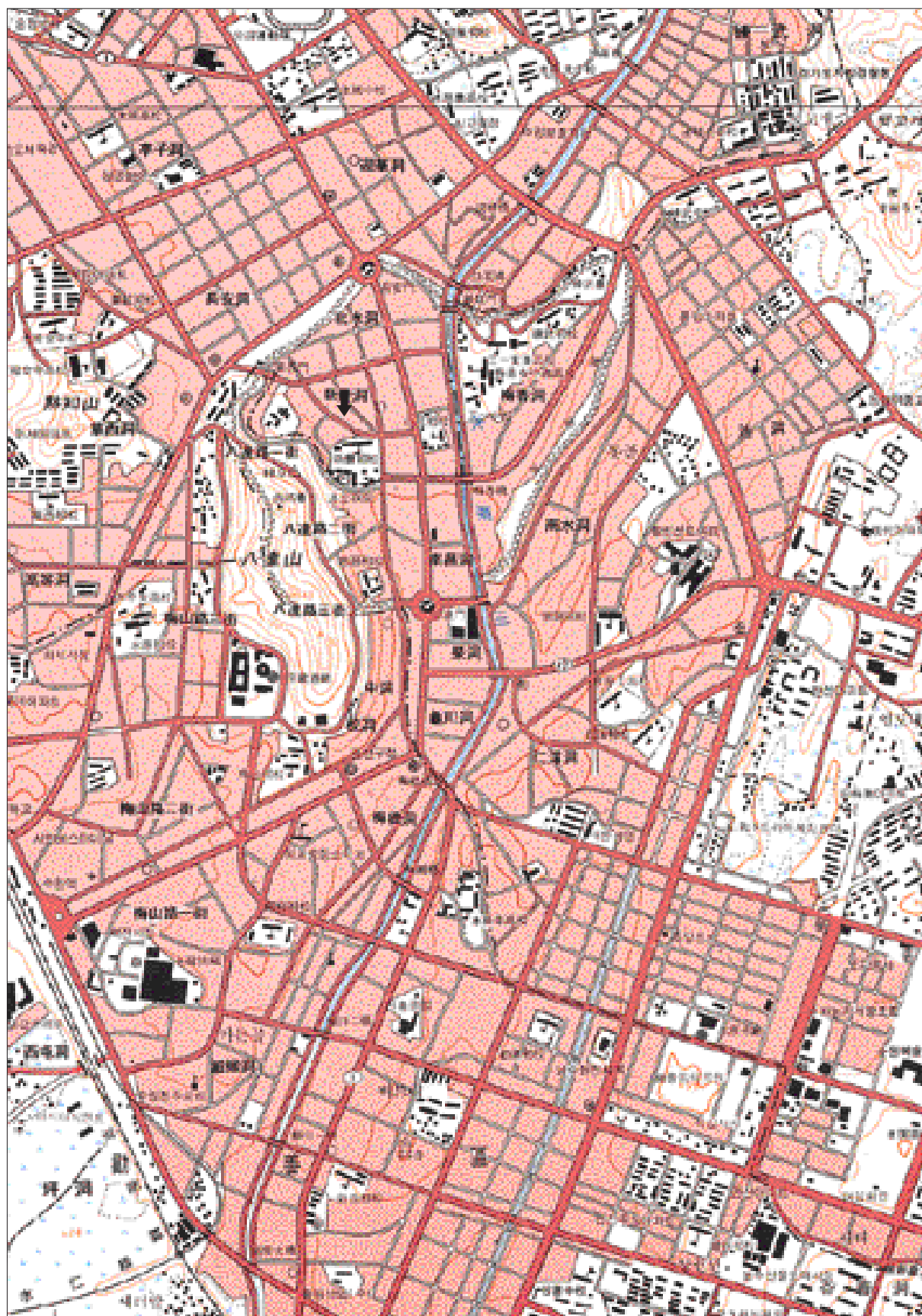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기 전 화령전이 國家史蹟으로 지정된 역사유적임을 감안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과정에서 화령전의 건물배치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보다 철저한 문헌조사는 보고서 작업 중에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를 통해 화령전은 內三門안에 正殿인 雲漢閣과 復道閣, 移安廳을 배치하였고, 左측에 齋室, 右측에 典祀廳, 香大廳, 祭器庫를 배치한 기능적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운한각 남측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전사청, 향대청, 제기고가 毀撤되어 民家 2가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굴대상지역에 심어진 교목의 이식작업 지연과 예상보다 많은 복토층의 처리 지연, 가을장마 등으로 인하여 허가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실작업일 10일간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갖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11월 4일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지도위원회에서는 ‘가’ 지점에 건물들이 있었고, ‘나’ 지점에는 일제시기에 건축된 시설로 복원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화령전 남측에 위치한 우물에서 예상외로 많은 양의湧出水가 흘러 나와 건물지 조사에도 지장을 줌에 따라 별도의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단은 우물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루고 11월 6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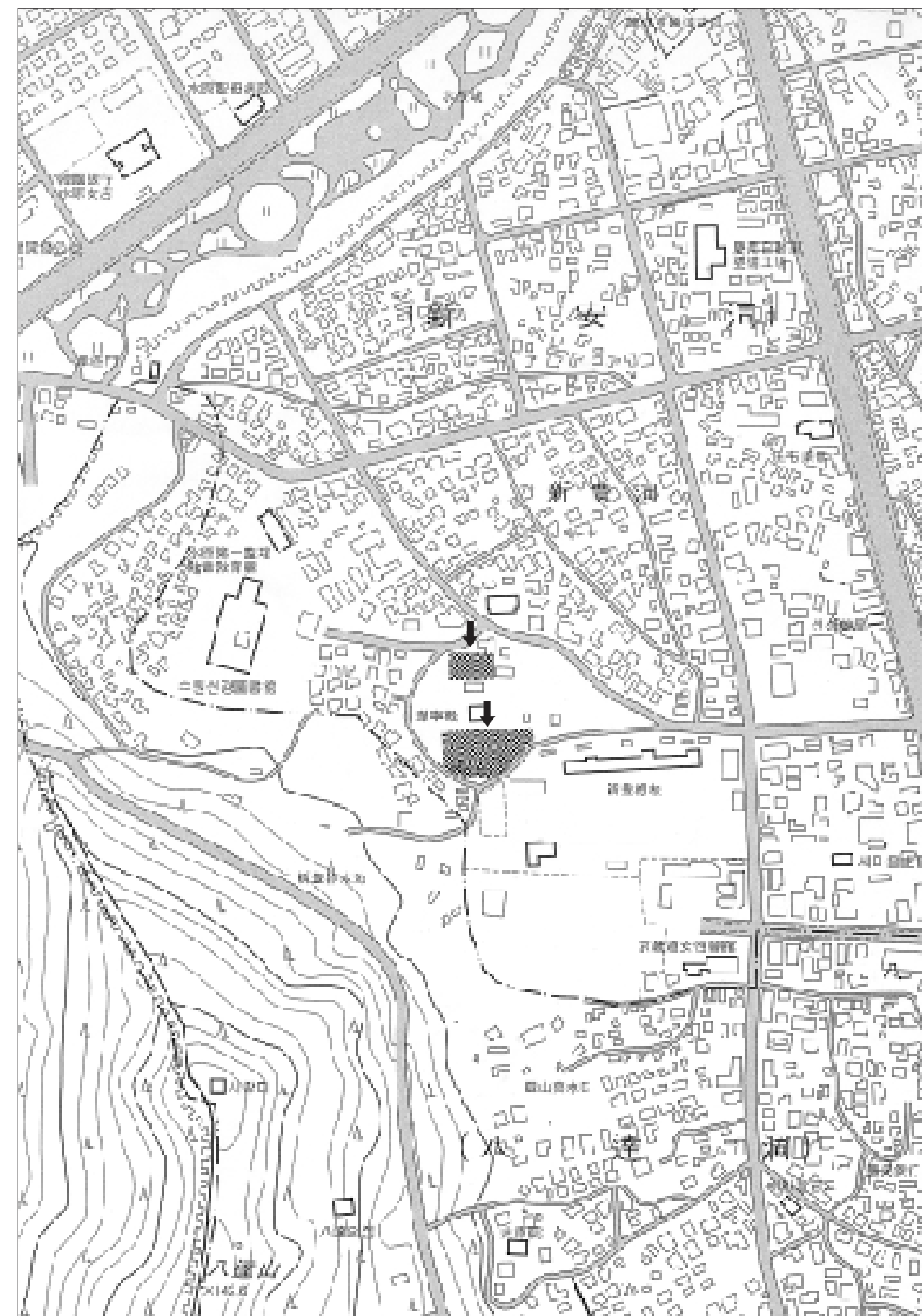
그 후 2000년 봄에 수원시 화성관리사무소에서는 우물에서 많은 양의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므로 상부에 덮개 돌을 덮고 석축을 세워 주변을 정비한 후, 약수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1999년에 미뤄졌던 화령전 우물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은 우물이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단면절개조사가 불가능한 조건이다. 따라서 발굴조사에서는 평면조사와 함께 우물 전면과 측면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석재의 결구상태를 확인하고 내부단면으로 축조상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물주변은 1999년 발굴조사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10×10m의 그리드를 설치하여 층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면 1. 조사지역 고지도(水原府地圖, 1872)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도면 3. 조사지역 위치도(1:5,000)

2. 조사방법

발굴조사는 유실된 부속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가능한 운한각 남측의 ‘가’ 지점과 移安廳 북측, 風化堂 서측의 ‘나’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 지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도 전사청 건물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신평초등학교의 확장과정에서 일부가 학교로 편입되면서 화령전 남측의 외곽담장이 헐리고 民家가 2가 구나 들어서는 등 화령전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곳이다. 더구나 1997년경에는 14그루의 단풍나무와 5그루의 소나무, 화목, 잔디 등을 심는 등 주변환경정비사업을 벌였으며 나무의 이식과정에서 외부의 토사가 유입되어 약 75cm 정도가 복토되었다.

‘나’ 지점은 운한각 및 이안청이 위치한 지점보다 약간 높은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발굴조사 직전까지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표에서 건물지로 판단할만한 유구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가’ 지점의 경우 외곽담장의 기초부와 전사청을 비롯한 부속건물지의 확인 및 건물 축조방식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나’ 지점의 경우는 건물지의 존재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가’ 지점과 ‘나’ 지점은 正殿 공간으로 인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지점간을 연결하는 임의의 선을 설정한 후 그리드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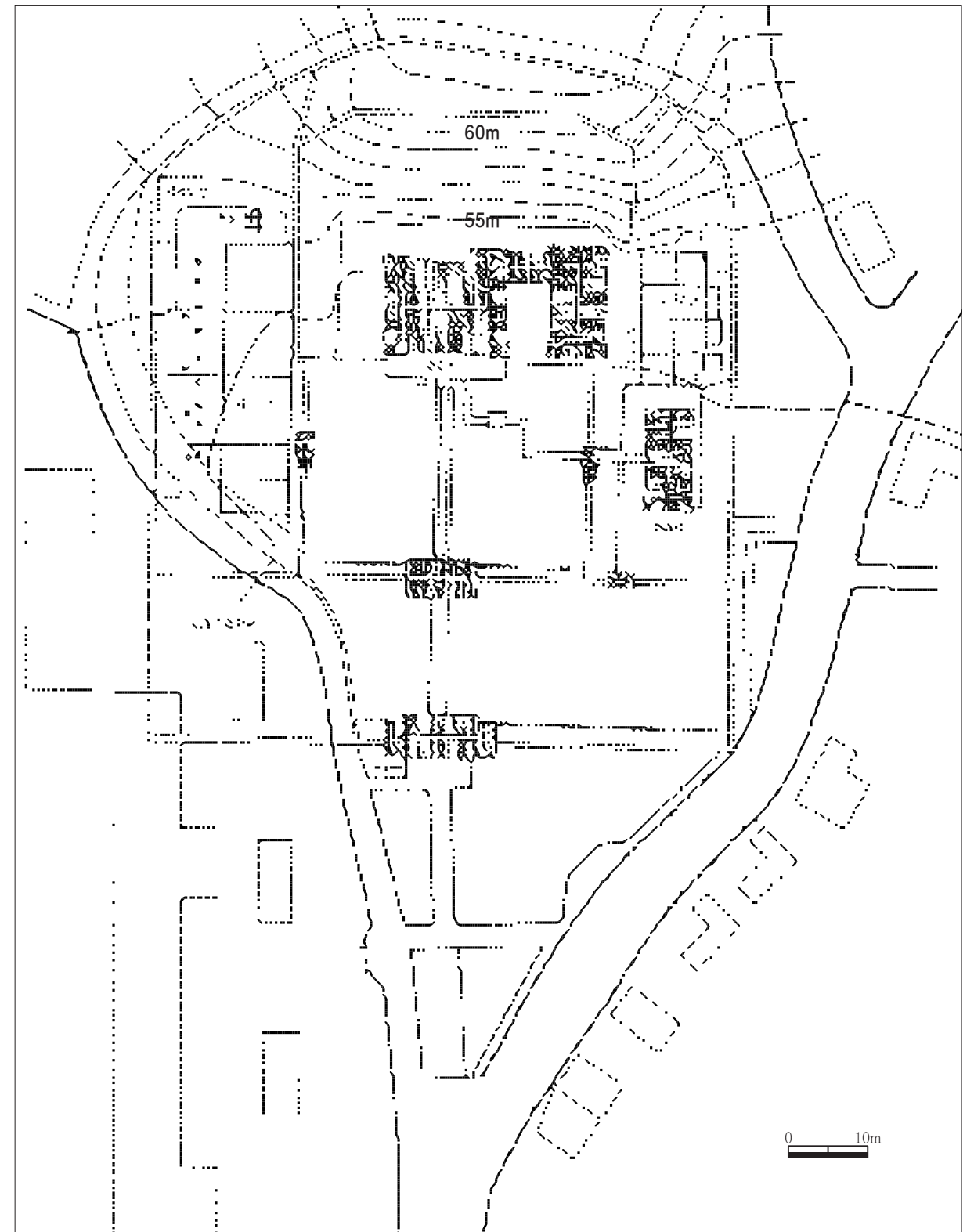
‘가’ 지점은 10×10m의 그리드를 설치하여 1×9m의 트렌치를 5m간격으로 시굴하던 중 복토층이 상당히 깊게 나타나 전면 제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단석으로 보이는 治石이 노출됨에 따라 중장비를 이용하여 기단석 상면의 레벨로 전면 제토한 후 정밀조사에 임하였다. ‘나’ 지점은 공간의 협소로 인해 5×5m의 그리드를 설치하였으며 우선 1×4.5m의 트렌치를 시굴한 후 전면 발굴에 들어갔다.

우물지의 경우,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낸 후 내부 단면을 측량하였고 우물의 동측과 남측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우물의 축조형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우물 서측의 假山부분에도 트렌치를 설치하여 성토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우물의 배수구조도 조사하였다.

Ⅲ. 화령전의 역사적 고찰

1801년 건립된 화령전은 『奉安閣謄錄』, 『移安謄錄』, 『營建謄錄』등 관계자료가 대부분 일실되어 정확한 고증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朝鮮王朝實錄』, 『華寧殿應行節目』, 『水原府留營狀啓謄錄』, 『水原郡邑誌』등 몇 가지에 지나지 않다.

우선 『純祖實錄』에는 순조 원년 정월 6일 수원부에 세울 영전의 전호를 華寧殿으로 정하였다는 기록과 동월 29일 좌의정 李時秀, 예조판서 韓用龜, 관상감 제조 李書九, 화성유수 李晩秀 등이 相地官을 데리고 화령전의 基址를 看審하였는데 講武堂에서 남쪽으로 77步, 洛南軒에서 북쪽으로 79步가 되는 酉坐卯向이 吉地라고 하여 圖形을 그려 보고하였다¹⁾는 기록이 있다. 4월 29일 완공되어 각 관리에게 상을 내렸는데 당시 영건도감의 제조는 수원부 유수 李晩秀, 도감동은 친군위별장 이진수, 수원부 판관 임병원, 별간역 용인현령



도면 4. 화령전 현황 배치도(『京畿道指定文化財實測調査報告書』, 1998)

정우대, 전오위장 이해승 등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으로 보면 화령전 건립은 1800년 6월 28일 정조 서거 이후 화성부에 영전을 건립하기로 결정한지 4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기지의 看審으로부터 完工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그리고 화령전의 건축과 관련해서 수원 유수 李晩秀는 “華寧殿은 의관을 정제하고 月游하는 곳인데, 무릇 용마루·기둥·섬돌·지도리 등에 관계된 제도를 한결같이 견고하고 소박함을 위주로 함으로써 옛날의 성덕을 본받았으니, 殿內의 排設도 唐家를 설치하지 않고 앞에 閣子를 설치하되, 한결같이 宙舍樓의 예에 의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²⁾라고 하여 소박하고 건실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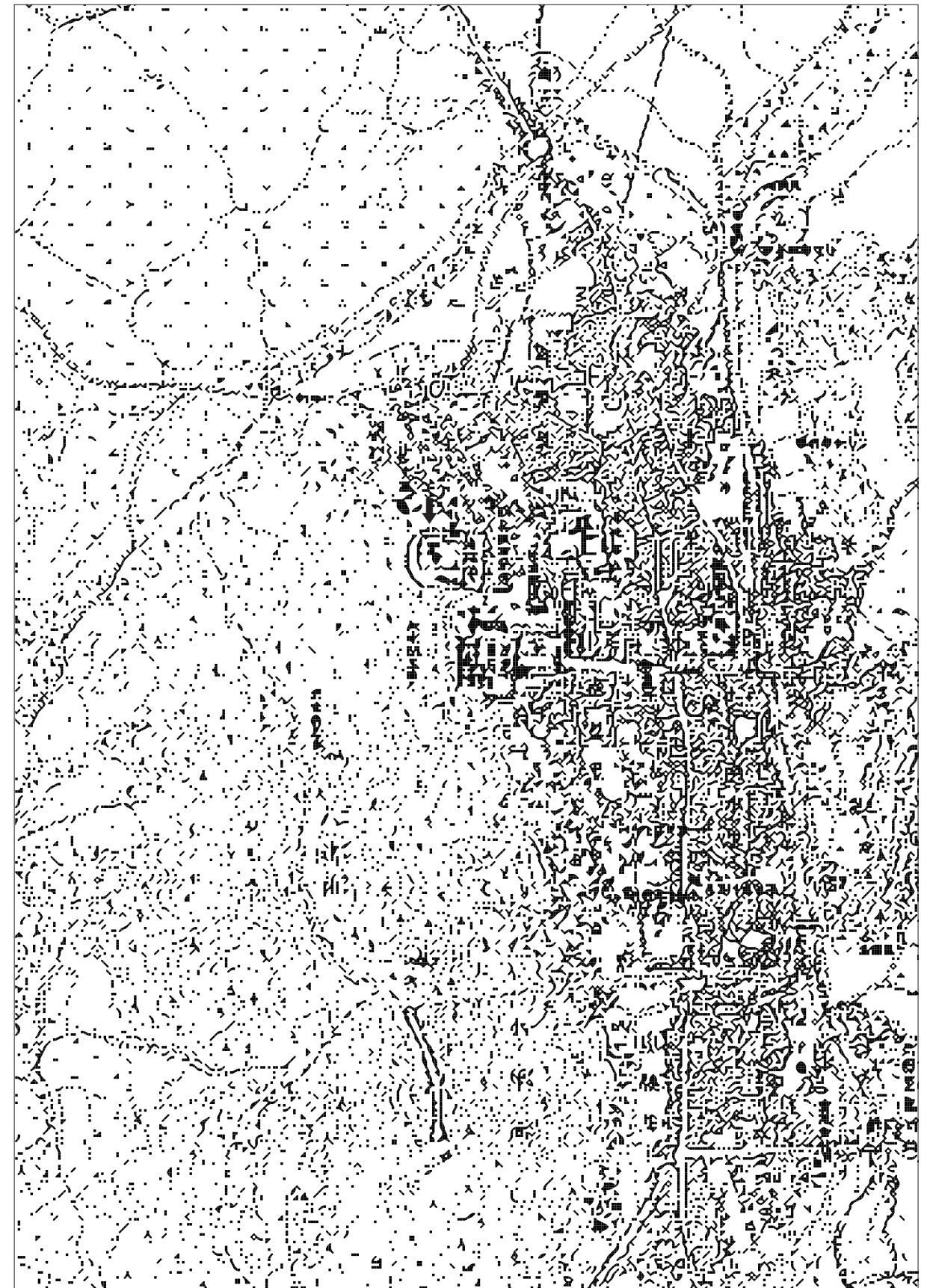
화령전에 모셔진 정조의 어진은 大本과 小本の 2件이었는데 大本은 정조의 命에 따라 현릉원재실에 봉안하였던 것으로 정조 서거후 7월 27일 新陵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화성행궁 유여택에 잠시 移安하였다가 화령전 건립이후 정전인 운한각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小本은 昌德宮 宙舍樓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이다. 이 御眞들은 일제시기에 한양으로 옮겨 봉안하였는데 그 후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華寧殿應行節目』은 화령전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과 점검사항을 규정한 57개 조항의 「節目」과 「祭品」, 「排設諸具」, 「祭器」, 「鋪陳諸具」, 「外具典守秩」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목의 내용은 大本과 小本 어진의 보관 및 奉審에 관한 규정을 주로 하여 奉審官 및 그 儀式, 移安, 殿內外의 修改, 禁火, 祭享, 祭品, 巡更, 守直 등에 대한 원칙은 물론 日氣, 各 官吏 有故時 등 각종 상황에 따른 규정과 각종 소요물자의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鋪陳諸具」조항으로 이 조항에는 각 전각에 비치한 각종 물품을 건물별로 기록하고 있어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일말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즉, 「鋪陳諸具」에는 화령전 건물로 현재 남아 있는 正殿(雲漢閣), 複道閣, 移安廳, 齋室(風化堂) 이외에 典祀廳, 香大廳, 祭器庫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향대청은 前退를 두고 左右에 房이 있으며, 전사청은 大廳, 前退, 房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기고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나 일반적인 창고 건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876년 8월 14일 기록에 典祀廳 五間과 牆垣 一百五十間을 修改하였다³⁾는 기록이 있어 전사청 건물은 적어도 5칸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水原郡邑誌』의 경우에는 「殿宇」조에 華寧殿을 기록하고 있으나 어진의 봉안과 화령전 관원에 대한 설명 및 正殿(雲漢閣)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건물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1917년에 제작된 『一万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 「水原郡」지도는 1만분의 1로 표시된 작은 도면이지만 화령전이 훼손되기 이전의 공간분할과 건물배치를 보여주고 있어 화령전 원형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도에 나타난 공간분할을 보면 외곽담장이 전체적으로 둘러쳐 있고 외삼문과 내삼문을 거쳐 어로를 따라 정전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정전의 좌우로 담장을 둘러 공간을 분리하였다. 내삼문안의 중심공간에 정전인 雲漢閣과 複道閣, 移安廳 등의 건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북측의 풍화당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운한각 남측으로는 ㄱ자형 건물이 표현되어 있으며, 외삼문과 내삼문 사이의 넓은 공간 남측에도 1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ㄱ자형의 건물은 기능별로 공간을 배치하는 전통 건축의 구성방식으로 보아 향대청과 전사청을 함께 배치한 복합건물로 추정되고, 내삼문과 외삼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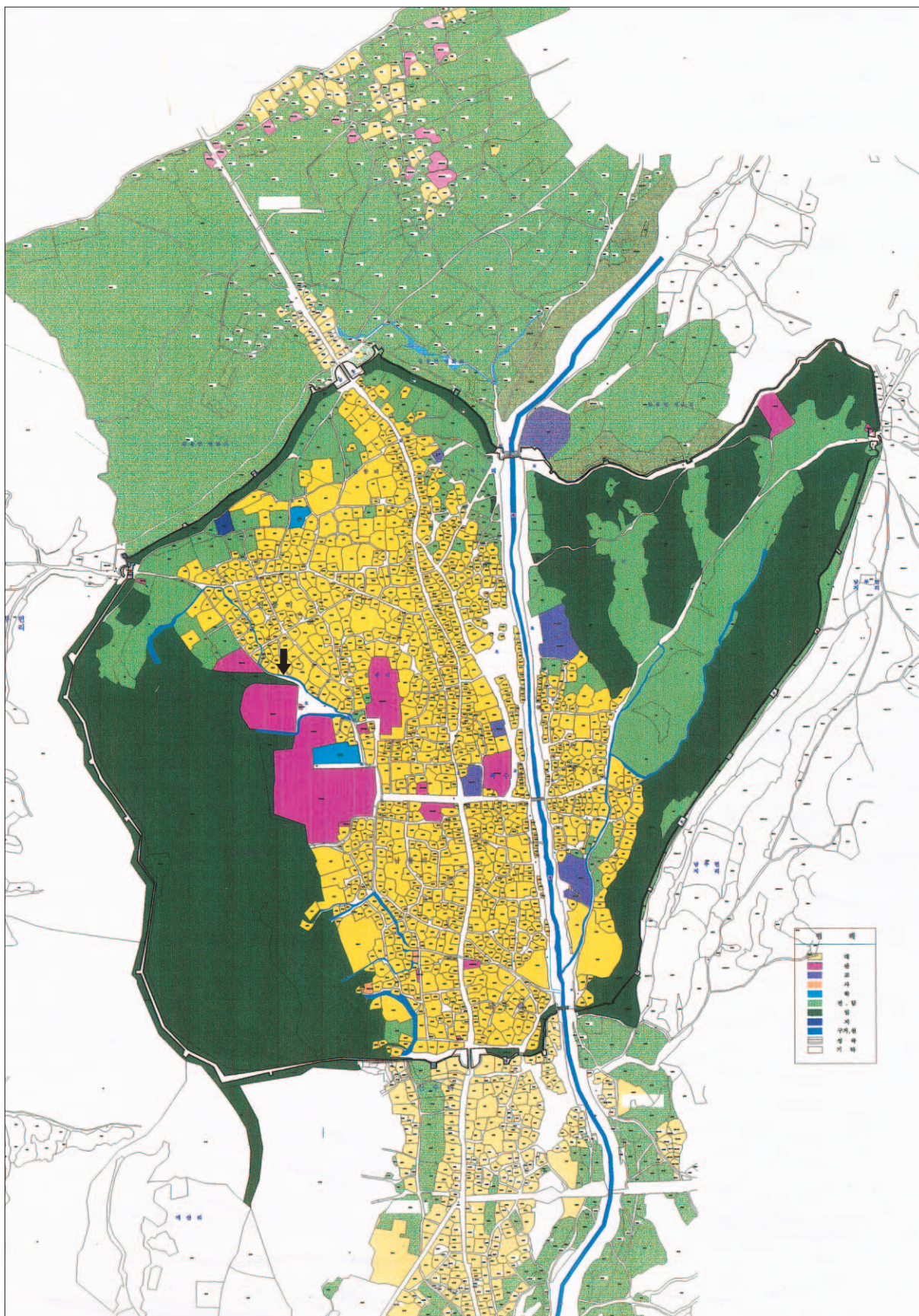


도면 5. 조사지역 고지도(『一万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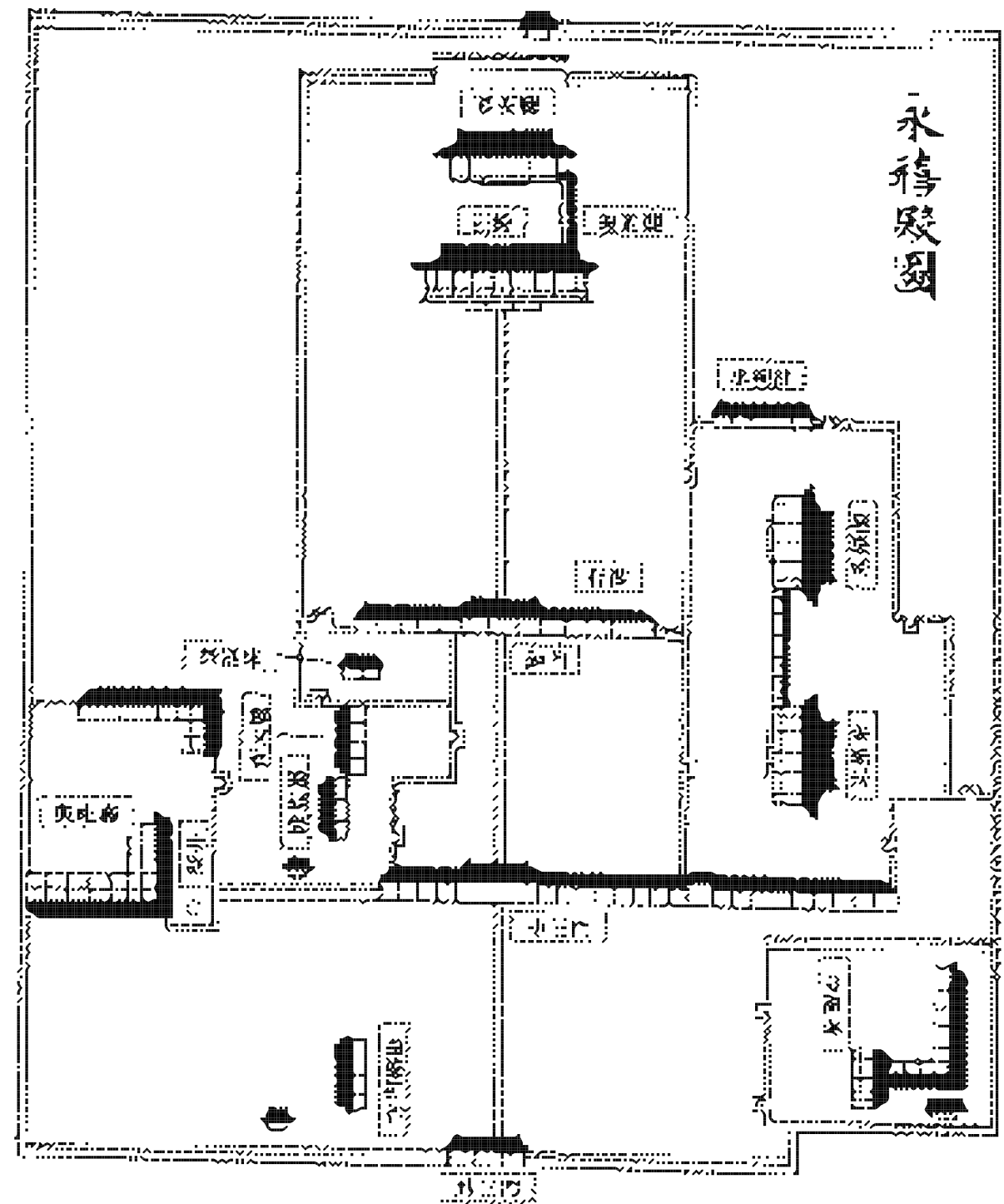
1) 『純祖實錄』卷2, 元年 1月 丙午.

2) 『純祖實錄』卷2, 元年 2月 丙辰.

3) 『水原府留營狀啓謄錄』第3冊, 丙子八月十四日.



도면 6. 조사지역 1914년 지적도(수원시 도시계획과 제공)



※ 출처 : 『永禧殿 營建都監儀軌』

도면 7. 영회전 건물 배치도

이의 건물이 제기고로 판단된다.

또한 내삼문 양 옆으로는 채실과 전사청으로 출입하는 협문이 각각 있고, 채실과 전사청에서 정전으로 출

입하는 협문도 각각 설치되어 있어 건물의 기능적 배치를 살펴 볼 수 있다.

건물의 배치와 관련해서 참고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永禧殿이다. 영희전은 1690년 창건되어 1703년 眞殿이 되었으며 조선의 太祖와 世祖, 元宗을 봉안하였다. 이후에 肅宗, 英祖, 哲宗의 어진을 차례로 봉안하였으며 1900년에 한차례 중건되었는데 배치도를 남기고 있다.⁴⁾ 이 배치도에는 神門(내삼문)안에 正殿과 移安廳, 復道閣이 있고 우측에 御齋室과 睿齋室, 좌측에 典祀廳과 香大廳 등 중요 건물을 배치하였고 그 외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화령전 역시 이와같은 배치에 따라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령전은 일제시기 어진을 한양으로 옮긴 이후부터 영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건물중 風化堂이 集會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20년 덕성함양과 體智개발 및 부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水原進明俱樂部 발기인 총회가 풍화당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며 그 외 다수의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신평초등학교 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풍화당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도 하였으며 전사청이 학교 舍宅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 후 풍화당에는 才人廳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경기도무형문화재 정경파씨에 의해 국악전수소가 설립되기도 하는 등 화령전은 有·無形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화령전의 일부가 언제 毀撤되었는지는 확실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1917년에 제작된 『一萬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에는 원형대로 표기된 화령전과 마주하여 簡易農業學校, 普通學校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학교 부지가 합쳐져 신평초등학교가 되었다. 1943년 수원읍을 중심으로 제작한 「수원읍지도」와 1957년의 수원시 지도에도 화령전은 훼손되지 않고 원형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⁵⁾

그런데 『新豐百年史』1967년 기록에 신평초등학교 서편에 화장실을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⁶⁾ 이에 따라 화령전은 신평초등학교의 부지확장과 함께 1960년대에 화령전 일부가 학교부지로 편입되었고 학교담장을 따라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무허가로 건축된 民家 2가구가 들어선 것도 196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어 화령전의 훼손은 일제시기 이후에 신평초등학교의 부지확장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령전의 정전인 雲漢閣 현판과 외삼문에 걸었던 순조어필의 華寧殿 현판도 언제인지 없어지는 등 화령전의 훼손과정은 해방이후 우리 사회의 문화재인식수준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水原府留營狀啓謄錄』第3冊, 丙子八月十四日.

5)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에 원색화보로 실림.

6) 신평초등학교·신평초등학교 총동문회, 1996, 『新豐百年史 1886~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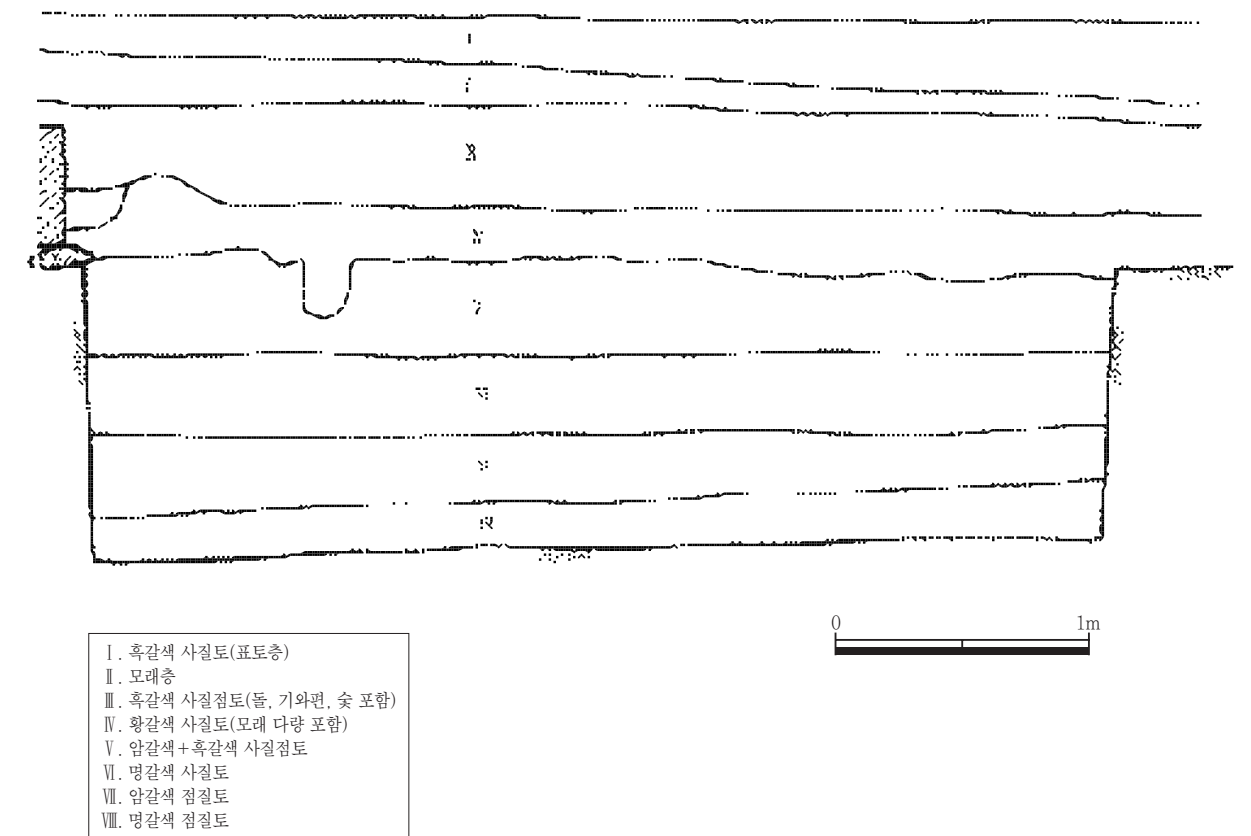
Ⅳ. 조사내용

1. 遺構

1) 層位(도면 8, 9-1, 9-2, 사진 3~6)

발굴조사는 조사대상 면적이 넓지 않고 2지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 지점에서만 화령전관계 유구가 노출되었다. 층위조사는 200년전에 건립된 역사유적이라는 점, 복원을 전제로 한 학술조사라는 점과 두꺼운 복토층 등을 감안하여 ‘가’ 지점 일부분만 깊은 트렌치를 설치하여 층위를 확인하였다.

토층은 장비를 이용하여 유구가 없는 곳에 1×4m의 트렌치를 2.05m 깊이로 조사하였다. 토층은 세부적으로 8개의 층위를 보이고 있는데 퇴적 상태로 보아 하단부터 자연 퇴적층, 성토층, 복토층 등 3개 층위로 구분된다. 자연퇴적층은 명갈색 점질토와 암갈색 점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께는 대략 40cm 정도이다. 성토층은 명갈색사질토, 암갈색(부분적으로 흑갈색) 사질점토, 모래가 많이 섞인 황갈색 사질토 등 3개의 토양이 차례로 나타나며 두께는 대략 90cm이다. 성토층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은 화령전의 배수 문제와



도면 8. ‘가’ 지점 건물지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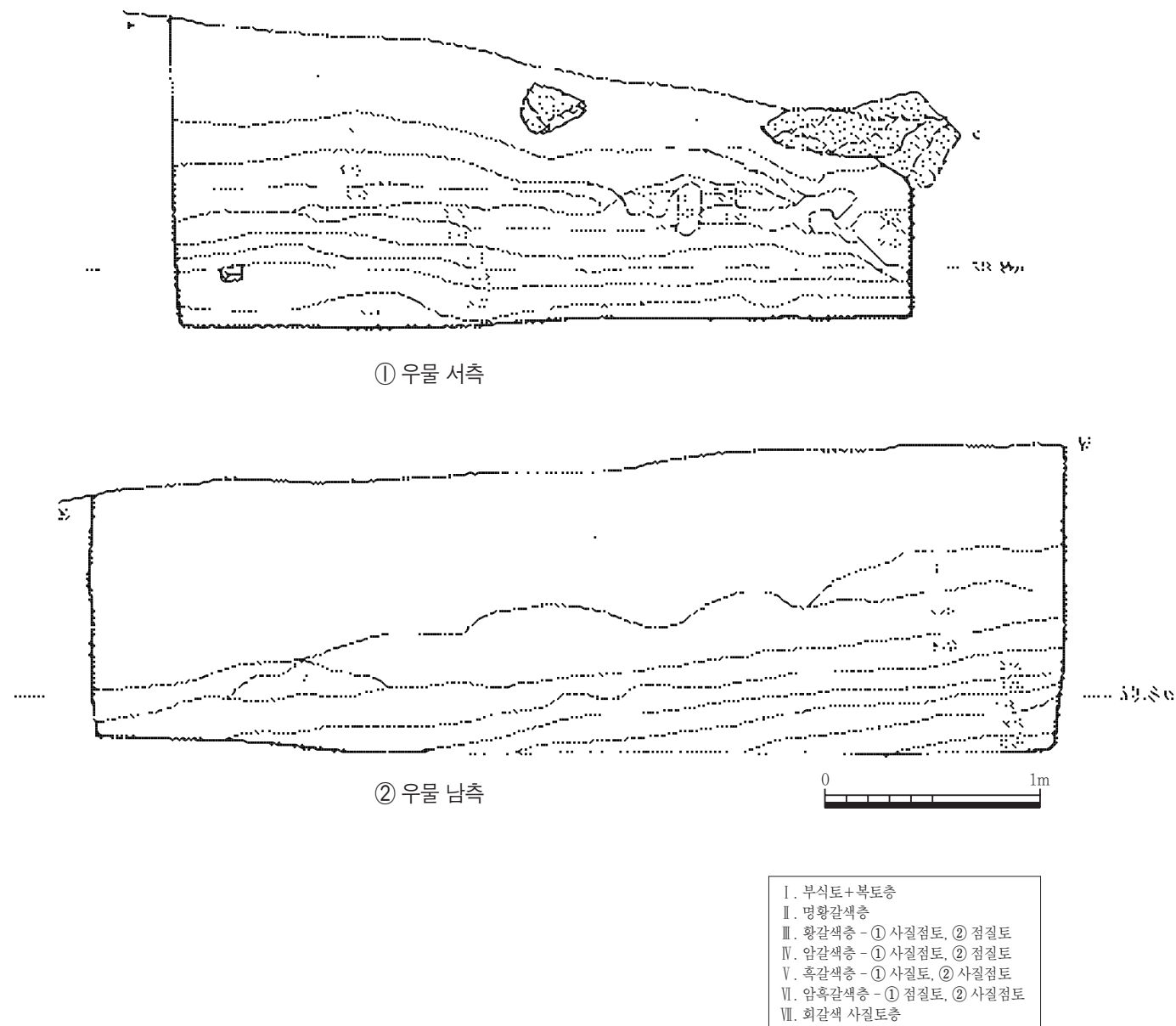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복토층은 돌, 기와편, 숯, 소토 등이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 모래층, 표토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두께는 0.75m이다.

화령전은 전체적으로 동향의 건축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물의 前面 역시 동향으로 판단된다. 우물이 위치한 곳은 서측(우물의 後面) 담장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있고, 북측의 운한각 사이의 내곽 담장과 약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서측 담장과 우물사이의 레벨 차이는 각도에 따라 약 1.2m~2.0m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우물 하단부터 완만한 경사를 보이면서 경계적으로 段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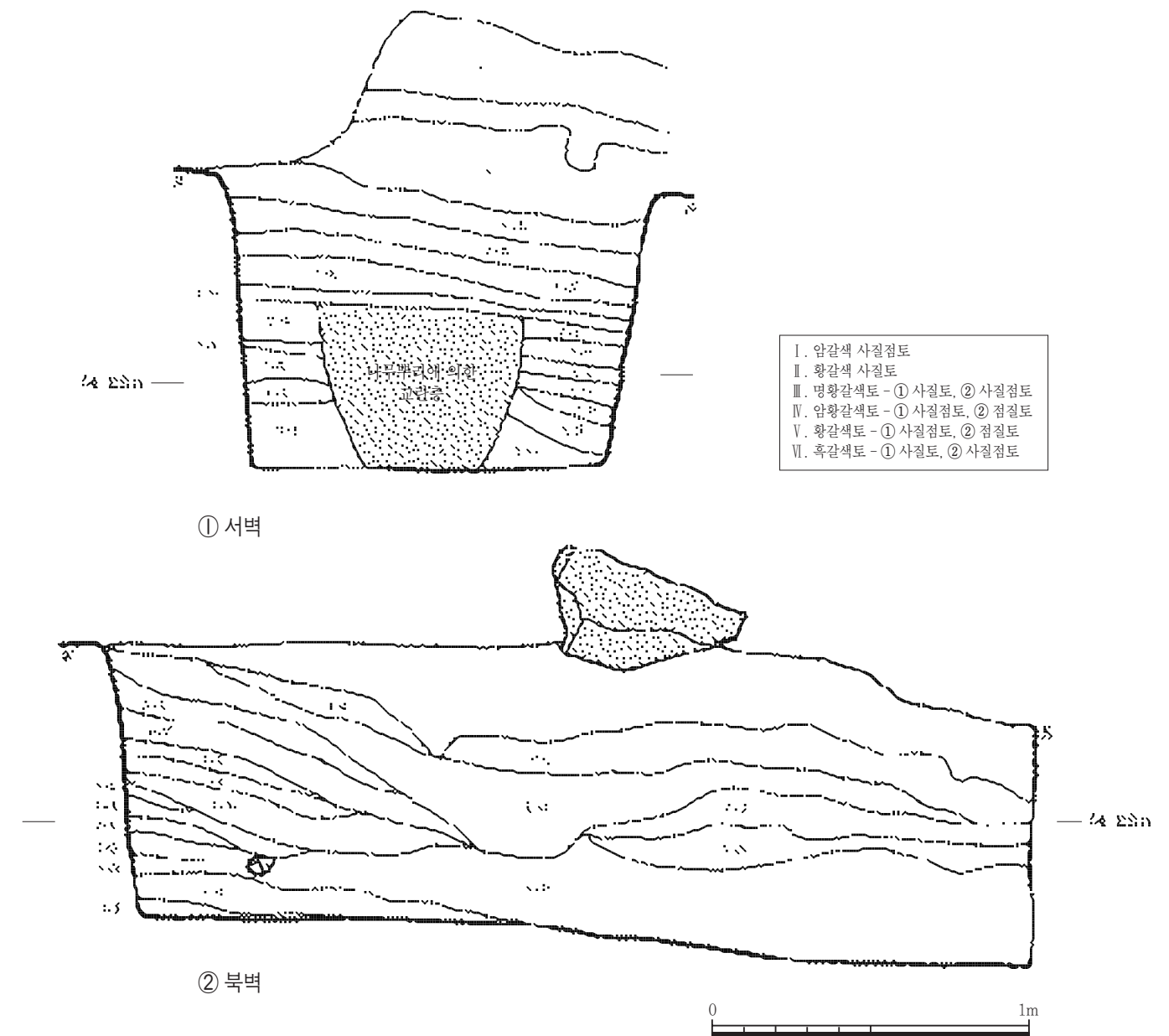
먼저 우물 서측에 3.4×1.2m의 트렌치를 구 지표면까지 설치하여 우물지 서측의 토층과 석축시설의 有無를 조사하였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점토층 위로 부식토가 0.4m 이상 두껍게 덮여 있었으며 대략 암갈색 사질점토, 황갈색토, 흑갈색토의 3종류의 성토층으로 구분된다. 황갈색토는 색상에 따라 황갈색, 명황갈색, 암황갈

색, 황갈색 순으로 나타나고 각 층위마다 사질토와 점질토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흑갈색토 역시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성토하였다. 성토층은 회를 섞어 매우 단단하게 鋪設하였는데, 팔달산 자락을 이용하여 西高東低로 건축된 화령전의 지형적 특징과 假山造營, 우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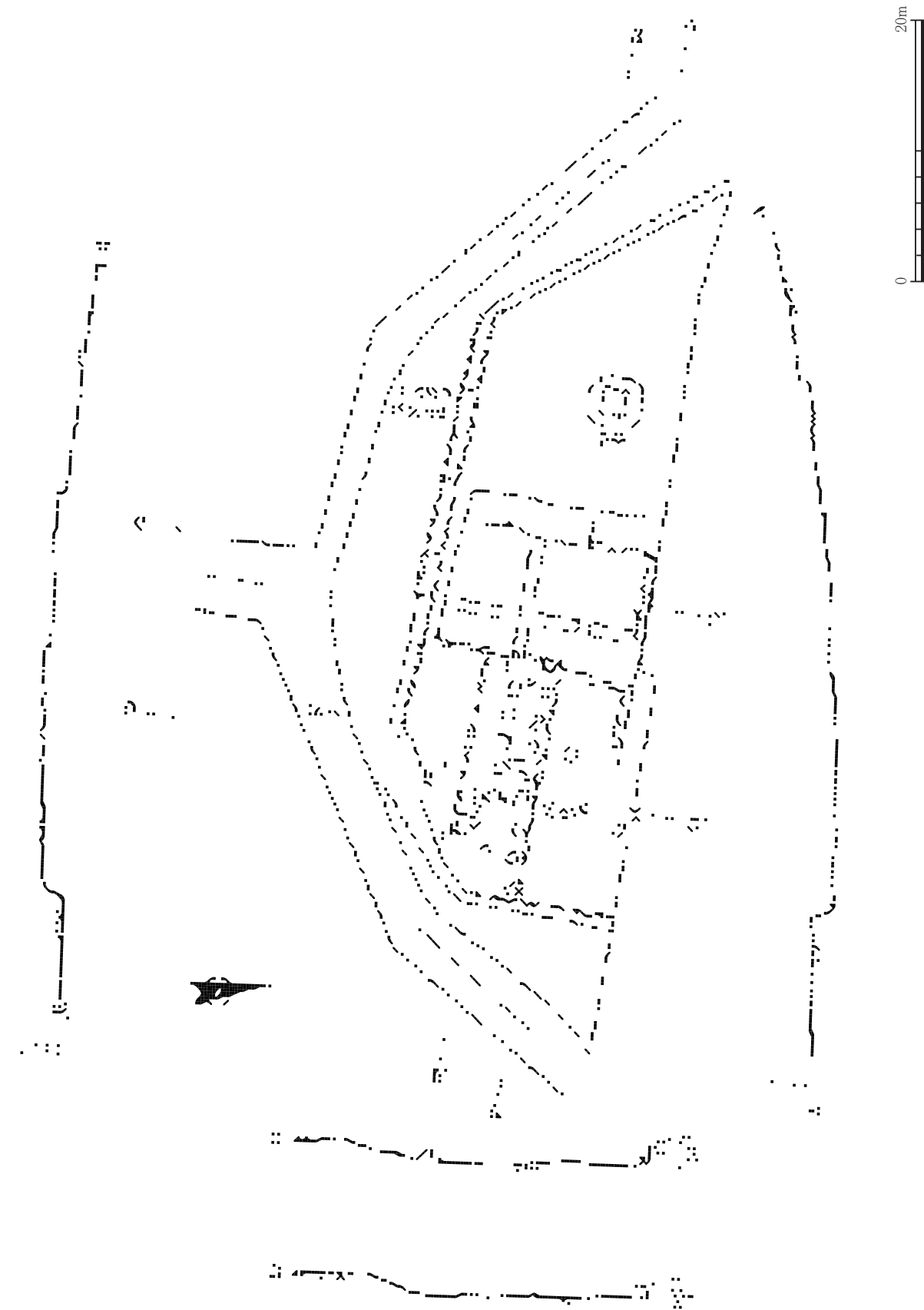
우물 남측에 나타난 토층 역시 두꺼운 부식토층 아래 명황갈색, 황갈색, 암갈색, 흑갈색, 암흑갈색, 회갈색 사질토층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 토층마다 사질토와 점질토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토층 구조는 화령전 토목공사단계에서 전체적인 성토작업을 선행한 후 각종 시설물이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도면 9-1. '가' 지점 우물 토층도



도면 9-2. '가' 지점 우물 서측 트렌치 토층도



도면 10. '가' 지점 유구배치도

2) 遺構

(1) '가' 지점 건물지(도면 10, 11 사진 7~15)

운한각의 남측 협문 앞에 위치한 건물지는 장대석을 잔다듬하여 경계석을 만들어 건물의 기단을 만들었다. 건물지의 동남측은 도로와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 일부분을 노출하지 못하였다. 각 방향의 경계석은 북측 19.10m, 동측 7.35m(추정)이며, 남측은 4.80m(추정) 지점에서 ㄱ자로 꺾여 0.70m 들어가게 설치되었으며 15.00m 연장되어 있다. 서측의 경계석은 유실된 상태인데 북측의 내부 담장 쪽에 붙어 있는 경계석들이 원래의 서측 경계석으로 보인다. 각 장대석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경계석의 노출되는 상면의 폭이 15cm 정도로 일정하고 돌을 다듬은 수법도 상부의 바깥 면을 잔다듬한 후 물갈이하였다. 상면의 안쪽으로는 3~7cm 정도 두께의 薄石이나 전돌을 깔 수 있도록 돌을 떼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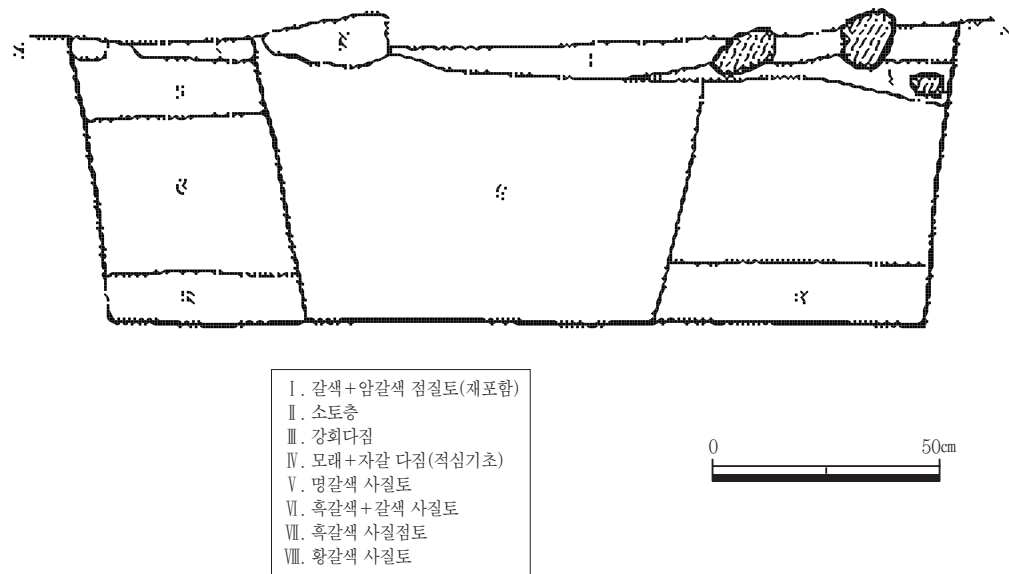
건물지 내에서는 적심 18개가 노출되었는데 초석은 유실된 상태이다. 18개의 적심 가운데 12개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6개가 大破 또는 부분 파손된 상태이다. 각 적심은 12×15cm정도 크기의 편평한 돌을 8~10개정도 깔고 초석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초석이 놓였던 자리가 움푹 들어가 있다. 초석은 하부가 60×60cm 정도의 정방형으로 초석의 둘레를 황토와 회를 섞은 강회로 다져 마감하였다.

노출된 적심은 대체로 2열로서 측면 1칸의 건물이 되는데 북측 경계석으로부터 제 1열은 9개의 적심이 중심부간 2.40m 내외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노출되었다. 제 2열은 7개의 적심이 노출되었는데 동쪽에서 세 번째 적심 자리는 적심의 흔적이 전혀 없으며 아홉 번째 적심자리는 유실된 상태로 판단된다. 제 1열의 네 번째 적심은 다섯 번째 적심으로 향하여 고맥이 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벽전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 1열과 제 2열의 중심부간 거리는 2.5m 정도이다. 그런데 동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적심의 남측 1.2m지점에 2개의 적심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같은 적심의 배열상태로 보면 이 건물은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중간부분이 남측으로 半間 돌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심은 자갈과 모래를 섞어 다진 입사기초형태의 연속기초위에 놓여 있다. 적심의 기초는 건물지 전체에 대한 성토작업 후 성토층을 다시 깊이 55cm, 밑넓이 76cm 내외, 윗넓이 100cm 내외로 굴토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에 7~10cm정도의 강자갈을 깔고 위로 작은 자갈과 굵은 모래, 가는 모래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그런데 제 1열은 동측으로부터 9번째의 적심까지만 기초가 연결되어 있으나 제 2열의 경우는 아홉 번째 적심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7m 연장된 후 북쪽으로 꺾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 2열 적심의 기초가 길게 연장된 것은 성토층으로 흡수되는 소량의 雨水를 고려하여 한쪽 기초를 길게 연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12, 사진 16~18)

한편, 건물지의 동남측은 생활쓰레기가 상당한 깊이까지 매립되어 있었고 도로 아래로 연결되어 있어 적심 제 2열의 동측에 대한 발굴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다른 곳에 비해 넓은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별다른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곳에 출입공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출입공간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에는 전사청에 방 1개와 향대청에 방 2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건물지에서는 건물과 관계된 온돌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초석이 유실되고 적심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돌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전사청과 향대청의 용도가 제향시에만 사용되는 건물로서 1년중 사용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온돌시설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2. '가' 지점 적심 절개 단면도

이와 관련하여 동측에서 다섯번째 적심과 연결하여 북측 경계석과 맞닿아 있는 2열의 고래시설이 있으나 이 석렬은 서쪽 2.50m 지점의 연탄아궁이와 같은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현대에 시설된 것임을 알 수 있다.(사진 19) 또한 고래시설과 적벽돌로 만든 연탄아궁이가 적심과 동일한 레벨에서 노출되어 건물지가 상당히 교란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0) 건물지의 서쪽 끝 부분에 63×41×3cm 크기의 장방형 薄石 2枚가 겹쳐 놓여 있는데 건물과 경계석 사이의 여유공간에는 박석을 깔아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진 21)

(2) 외곽 담장 기초 석렬(도면 13, 사진 22~24)

『一万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 및 『1914년 수원시 지적현황도』에는 화령전 내·외곽담장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화령전 남측의 외곽 담장은 최근까지도 民家가 자리잡고 있어 유구의 존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담장의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 현장의 지형적 여건으로 35.3m만 노출하였으나 지표로부터의 깊이를 고려할 때 도로 밑으로 연장되어 더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담장은 현재 남아 있는 담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신평초등학교 안에서 한 번 ㄱ자로 꺾어져 내삼문과 연결되고 다시 연장되어 외삼문 담장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담장의 축조 방식은 먼저 바닥을 성토한 후 한 면이 10×15cm 정도의 작은 할석을 깔았으며 그 위로 40~50cm 크기의 중간 돌을 얹어 기초부를 형성하였다. 이 기초 위에 治石한 장대석 2枚를 1쌍으로 안팎에 놓아 담장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담장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을 따라 단을 이루면서 축조하였는데 현존하는 서쪽 끝과 조사된 동쪽 끝의 레벨차이는 2.42m에 달한다.

장대석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길이 60cm~140cm 내외이고, 높이 45cm 내외, 두께 45cm내외로 맞물리는 쪽은 治石하지 않았다. 장대석을 기준으로 한 담장의 폭은 대략 1.05m 내외이고, 기초부의 폭은 1.5~1.6m 정도이다.

장대석 사이의 빈공간은 강회다짐을 하여 채워 넣었다. 장대석 위로는 중심부에 단단한 강회다짐을 하고 양쪽으로 四塊石을 쌓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담장 부근에서 출토된 四塊石은 전면이 14×12cm의 장

방형이고 두께는 15cm정도이다. 그리고 부근에서 벽전돌이 출토되는 등 유물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담장은 석담장으로 상단에 벽전돌을 쌓고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우물(도면 14~17, 사진 25~31)

우물은 상면이 정방형의 형태이며 각 방향에 13개(4면 52개)의 장대석을 치밀하게 쌓아 올렸다. 최근에 화성관리사무소에서 240×40×40cm 크기의 화강암 장대석4개를 井자형으로 만들어 상면에 얹어 놓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나무 판자로 덮개를 만들어 놓았다. 우물의 규모는 井자형 구조물 상단으로부터 바닥까지 4.85m의 깊이이며, 내부 한 변의 폭은 95cm~105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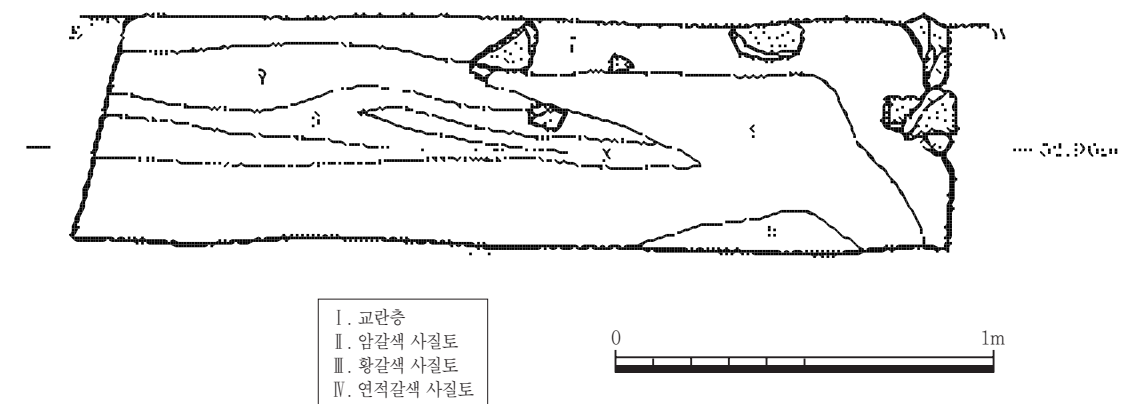
우물 바닥의 첫 번째 장대석만 다른 돌에 비해 세로가 15cm정도 작을 뿐 다른 돌들은 120×30~40×25cm(가로×세로×두께) 내외의 장대석으로 3면을 다듬어 각각의 돌이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하였고 흠으로 덮이는 부분은 거칠게 떼어낸 상태이다.

현재 상태는 북측의 9번째 장대석이 위 아래가 각각 4cm, 8cm 뒤로 어긋나 있을 뿐 다른 면은 정교하게 結構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3번째 장대석의 남측과 동측의 돌을 노출한 결과 다른 돌과 달리 6면을 모두 다듬은 것으로 보아 이 지점이 구지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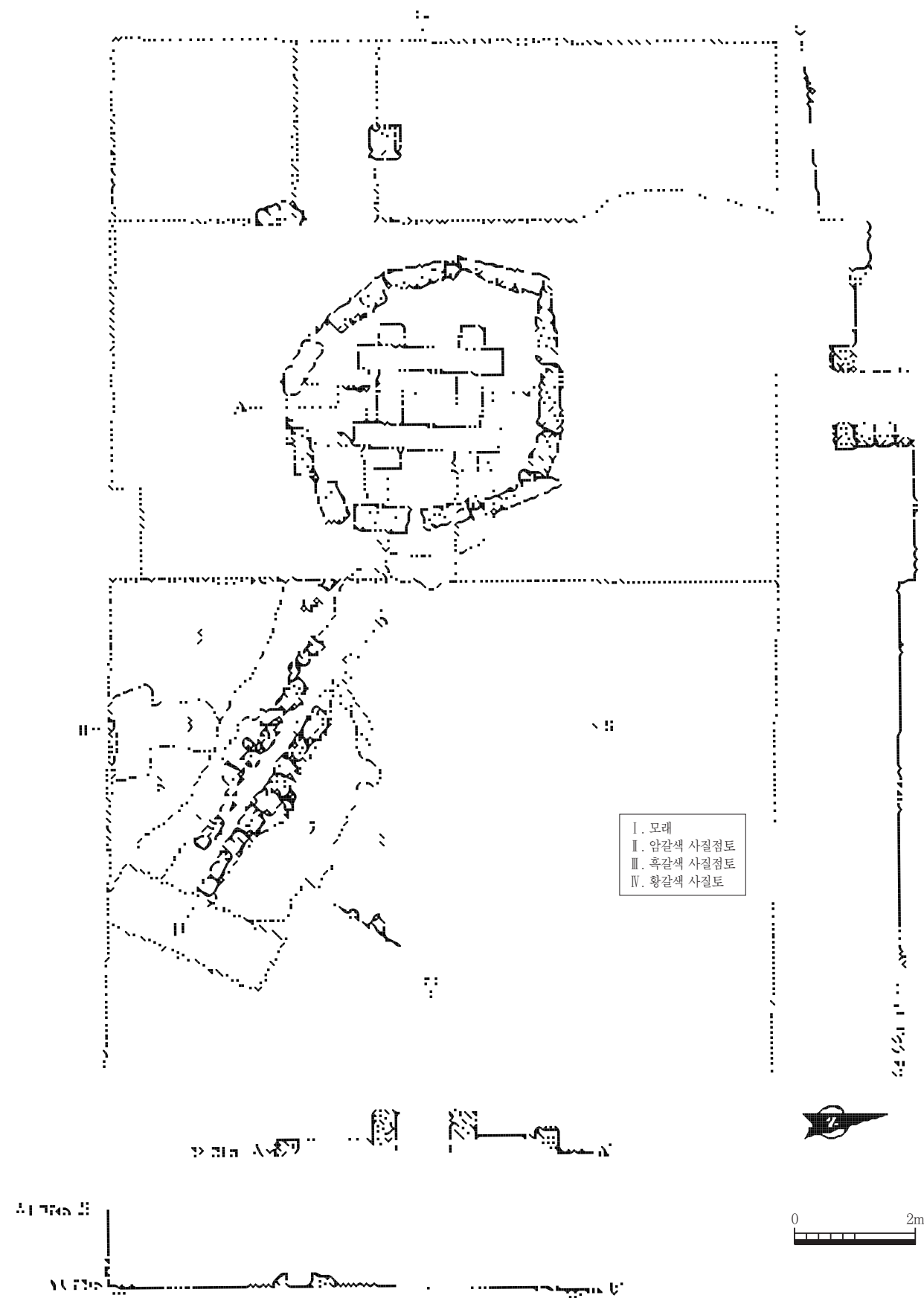
한편, 우물 남측과 동측에 설치한 트렌치 조사에서 우물을 축조하기 위해 굴착하였던 토광선이 남측 트렌치는 약 40cm, 동측 트렌치는 약 1.9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우물의 축조가 동측에서 자재를 운반하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물 서측(후면) 토벽에 장대석을 붙이고, 그 좌우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파낸 다음 장대석을 놓고 모래와 자갈을 채워 고정하였다. 그 후 동측 전면을 마무리하고 모래와 자갈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물은 암거를 통해 배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남측의 뚫어진 석렬이 원래의 배수로 역할을 한 석렬로 판단된다.

① 암거 석렬(사진 3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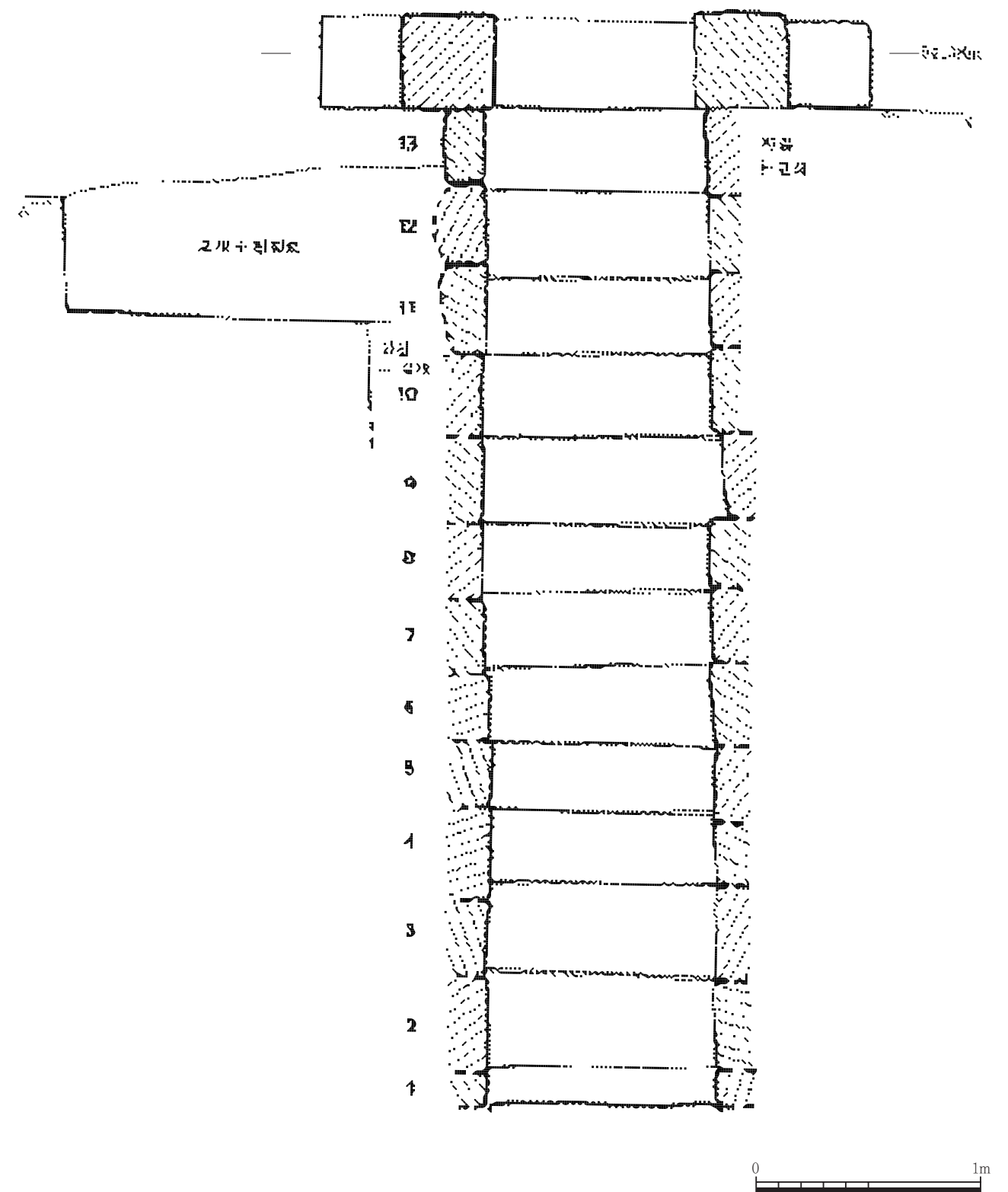
우물에서 동남향으로 놓여진 2열의 석렬로서 석렬의 폭은 30cm이다. 북동측 석렬은 9개의 돌이 3.65m 정도 남아 있으며 우물쪽으로 3개, 담장쪽으로 1개의 돌이 있었던 자리가 노출되었다. 남측 석렬은 6개의 돌이 3.35m 정도 남아 있으며 북측석렬에 비해 약간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물쪽으로 1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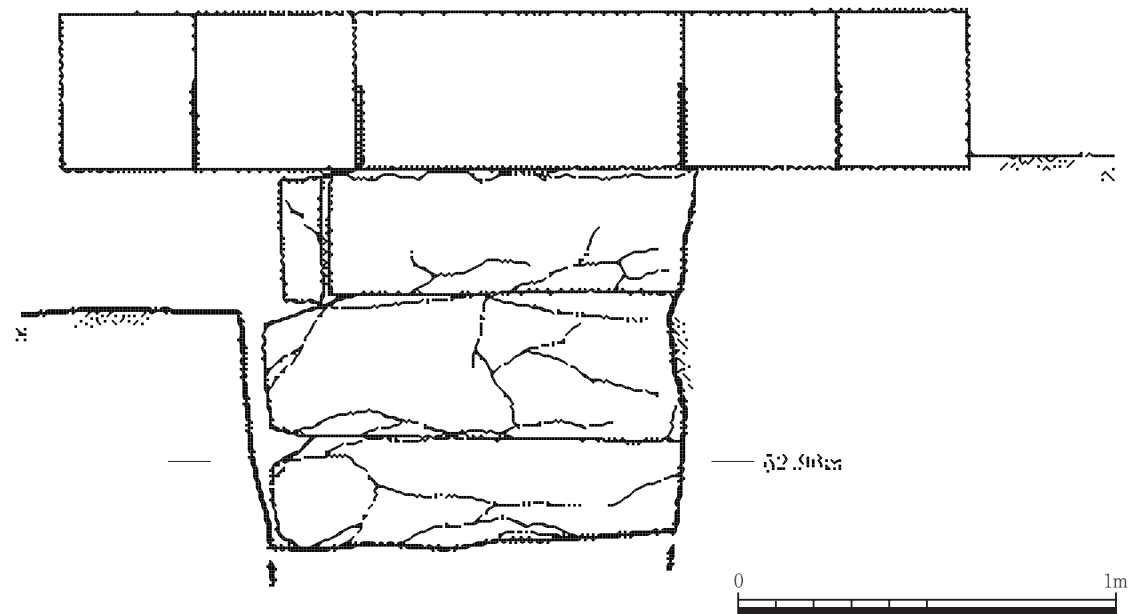
도면 15. '가' 지점 우물 하단 탐색트렌치 토층도



도면 14. '가' 지점 우물 평면도



도면 16. '가' 지점 우물 단면도



도면 17. '가' 지점 우물 동측 상단 입면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돌이 남아 있다. 사용된 돌의 크기는 대략 $60 \times 40 \times 30\text{cm}$ 내외의 대형과 $35 \times 26 \times 30\text{m}$ 내외의 중형 자연석 가운데 편평한 면을 마주하여 시설하였고 건물지 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물방향으로는 이 석렬과 같은 레벨에서 적벽돌이 노출되었고 동남쪽 끝부분에 설치한 트렌치의 동남측 벽면에서 비닐과 각종 쓰레기가 섞여 나오는 등 부분적으로 교란이 심하였다. 이 암거시설은 1999년 건물지 조사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외곽담장옆 석렬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담장을 따라 배수구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암거 트렌치 토층(도면 18, 사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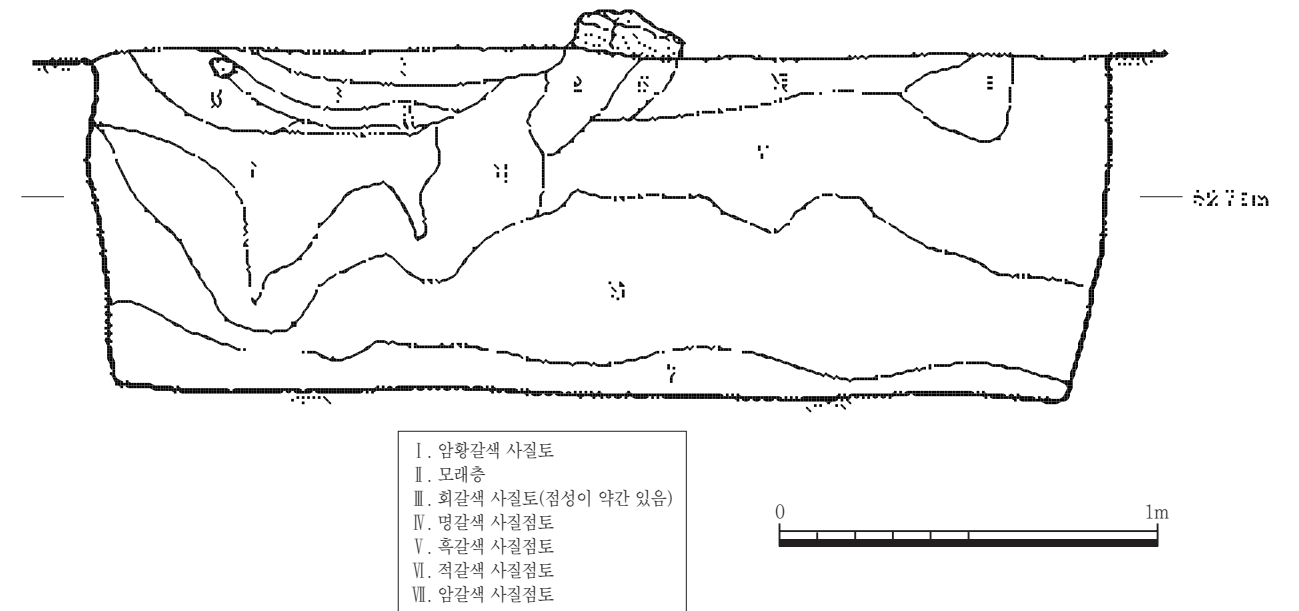
잔존 암거의 동남쪽 끝부분에 교란부를 정리하여 설치한 트렌치($2.6 \times 1.0 \times 0.9\text{m}$) 북서벽 토층을 조사한 결과 노출된 암거는 1차 암거를 파괴하고 북쪽으로 0.5m 정도 옮겨진 2차 암거로 확인된다.

북서벽 토층은 암황갈색 사질토, 모래층, 회갈색 사질토, 명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갈색 사질점토층은 건물지와 같은 성격의 성토층이다. 도면 좌측 상단의 u자형으로 나타난 모래층과 회갈색 사질토층이 1차 암거가 시설되었던 지점이고 지표 위로 돌이 그려진 곳이 2차 암거로 판단된다.

(4) 기타 시설물

① 기단석 1 - 제 1단 기단석(사진 35, 36)

건물지 서북측, 우물지 하단의 경계석으로 내곽담장과 붙어서 남쪽으로 6.00m 가 남아 있다. 한쪽 면을 다듬어서 정면에 배치하였고 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북쪽에서부터 네 번째 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5개의 장대석이 남아 있으나 6.60m 거리에 漏槽石이 일직선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외곽담장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누조석은 기단석과 거의 같은 라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 1단의 빗물을 흘려



도면 18. '가' 지점 우물 암거 석렬 트렌치 토층도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누조석의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50cm, 높이 26cm 이며, 물받이 홈은 약 5cm 깊이로 뚫다.

② 기단석 2 - 제 2단 북측 기단석(사진 37)

건물지 북측 경계석의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2.5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내곽담장과 붙어 3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굴된 길이는 3.40m이다. 건물지와 떨어져 있어 연결형태는 분명하지 않다.

③ 기단석 3 - 제 2단 남측 기단석(사진 38)

건물지 남측 경계석의 서쪽 끝에서 T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경계석과 15cm떨어져 있다. 5개의 장대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아 있는 기단의 길이는 6.1m이다. 남쪽 끝에서 T자형으로 2개의 장대석이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는 1.84m이다. 건물지와의 연결형태로 보아 후대에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④ 기단석 4 - 제 3단 기단석(사진 39)

건물지 동측 경계석의 북쪽 끝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곽담장까지 이어져 있다. 전체 길이는 7.86m로서 건물지 경계석보다 25cm 정도 낮게 설치한 것으로 보아 화령전 건립 당시에 시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경계석 A - 건물지 북서측(사진 40)

건물지 북서측의 내곽담장 아래에 담장 기초부와 같은 레벨에서 노출되었다. ㄱ자형 석재 1개를 포함하여 동서방향으로 놓여진 경계석의 길이는 7.80m로 7개의 경계석이 있다. 각 경계석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은데, 최대 1.7m에서 최소 85cm의 것도 있다. 석재를 다룬 수법이 건물지의 경계석과 같은 것으로 보아 건물지 서측 경계석을 옮겨 화단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계석 앞의 땃돌 1점도 건물의 출입구에 놓여 있었던 것을 옮겨 놓은 상태이다.

⑥ 경계석 B - 건물지 남측(사진 41)

ㄱ자형 석재로서 뒤집혀 있는 상태이다. 양측면이 잘 다듬어져 있는데 한 면의 길이는 60cm, 다른 한 면은 104cm이고, 높이는 35cm이다. 건물지 남측 경계석 서쪽 끝의 마감석재로 보인다.

(5) '나' 지점 건물지(도면 19, 사진 42~45)

발굴조사 전에 건물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던 '나' 지점은 발굴조사 결과 일제시기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 세워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안청 방향의 남측에는 17m에 이르는 긴 자갈 석렬노출되었으며 이 석렬의 3.3m 북측으로도 같은 규모의 자갈 석렬이 시설되어 있다. 외곽담장 쪽으로는 현대에 사용되는 것보다 크고 경도가 낮은 적벽돌을 길이 9m, 폭 102cm로 쌓은 장방형 구조물과 콘크리트를 타설한 시설물이 노출되었는데 일제시기에 제조된 벽돌로 보인다. 이 시설물은 화령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일제시기에 화령전 훼손과정에서 건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明治연간에 제조된 鑄貨가 1점 출토되었다.

2. 遺物

1) 자기류

① 백자 접시편(도면 20-①, 사진 46-①)

백자접시편으로 반투명 백색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옆면은 부드럽게 S자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구연 0.7cm 지점에서 돌출되어 약간 외반한다. 내면은 편평하고 바닥에 '太'字가 彫琢되었다. 굽은 완전히 떨어져 형태를 알 수 없다. 내저면에 굽은 모래받침으로 보아 포개구이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빙열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양질이다. 현고 2.8cm, 두께 0.3~1.15cm, 추정구경 12.2cm

② 백자 대접편(도면 20-②, 사진 46-②)

백자대접편으로 푸른 빛이 도는 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옆면이 직선으로 떨어지며 한번 꺾여 굽으로 이어지고 구연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내면은 편평하고 바닥에 굽은 사립 받침의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은 1.9cm 정로로 높고 안쪽을 깊게 깎았다. 접지면에 굽은 모래받침이 남아 있고 빙열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양질이다. 현고 7.8cm, 두께 0.4~1.3cm, 구경 6.0cm

③ 백자 대접편(도면 20-③, 사진 46-③)

백자대접편으로 투명한 담백색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몸체와 저부 일부만이 남아 있다. 옆면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진다. 굽은 죽절굽이며 접지면과 내저면에 굽은 모래받침의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양질이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빙열이 있다. 현고 4.7cm, 두께 0.5~1.1cm, 저경 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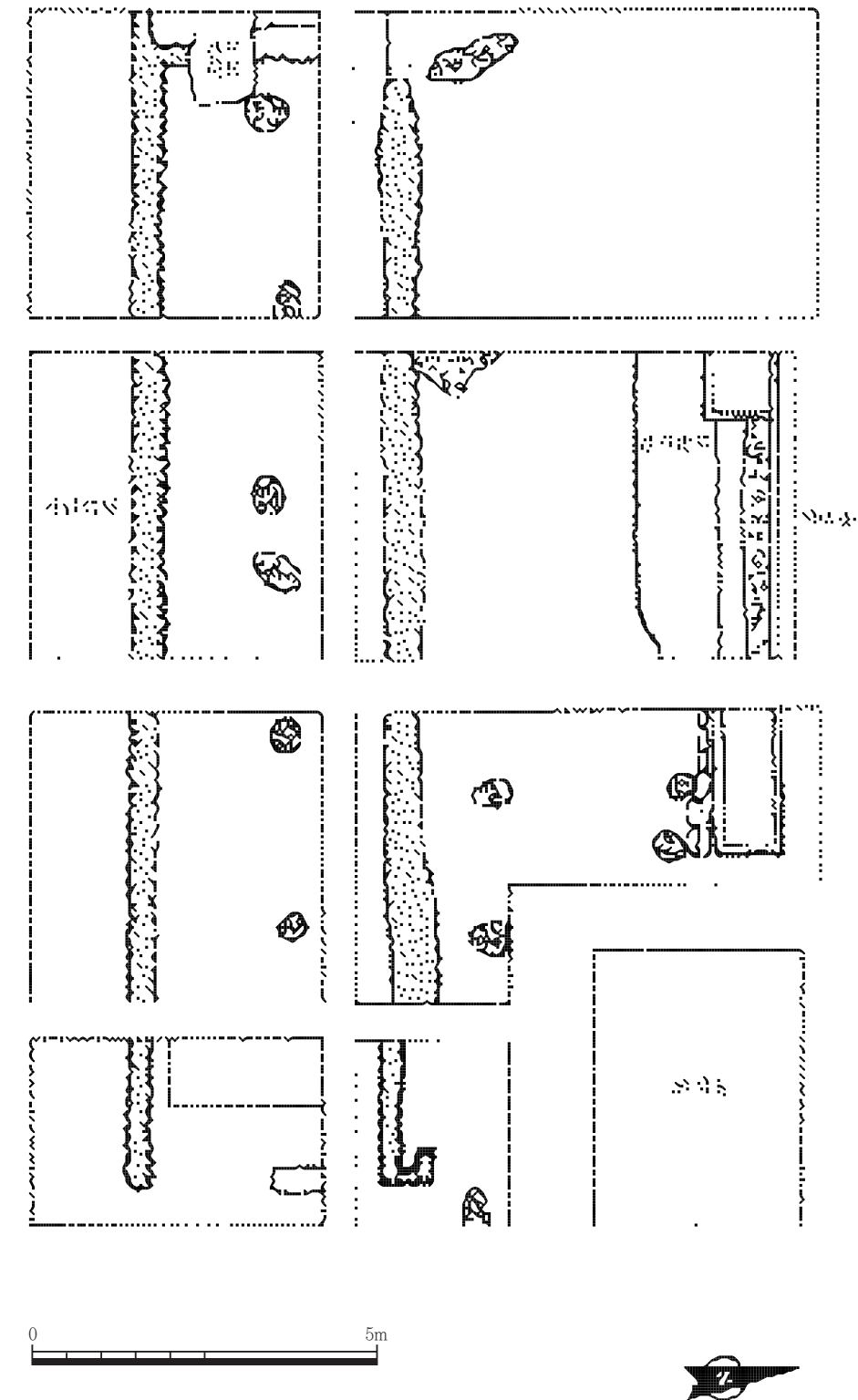
④ 백자 대접편(도면 20-④, 사진 46-④)

백자대접편으로 투명한 담황갈색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몸체와 저부 일부만이 남아 있다. 옆면은 완만하게 굽에 이어진다. 굽은 죽절굽이며 접지면과 굽안쪽에 유약과 굽은 모래받침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양질이며 빙열이 있다. 현고 3.4cm, 두께 0.4~1.2cm, 저경 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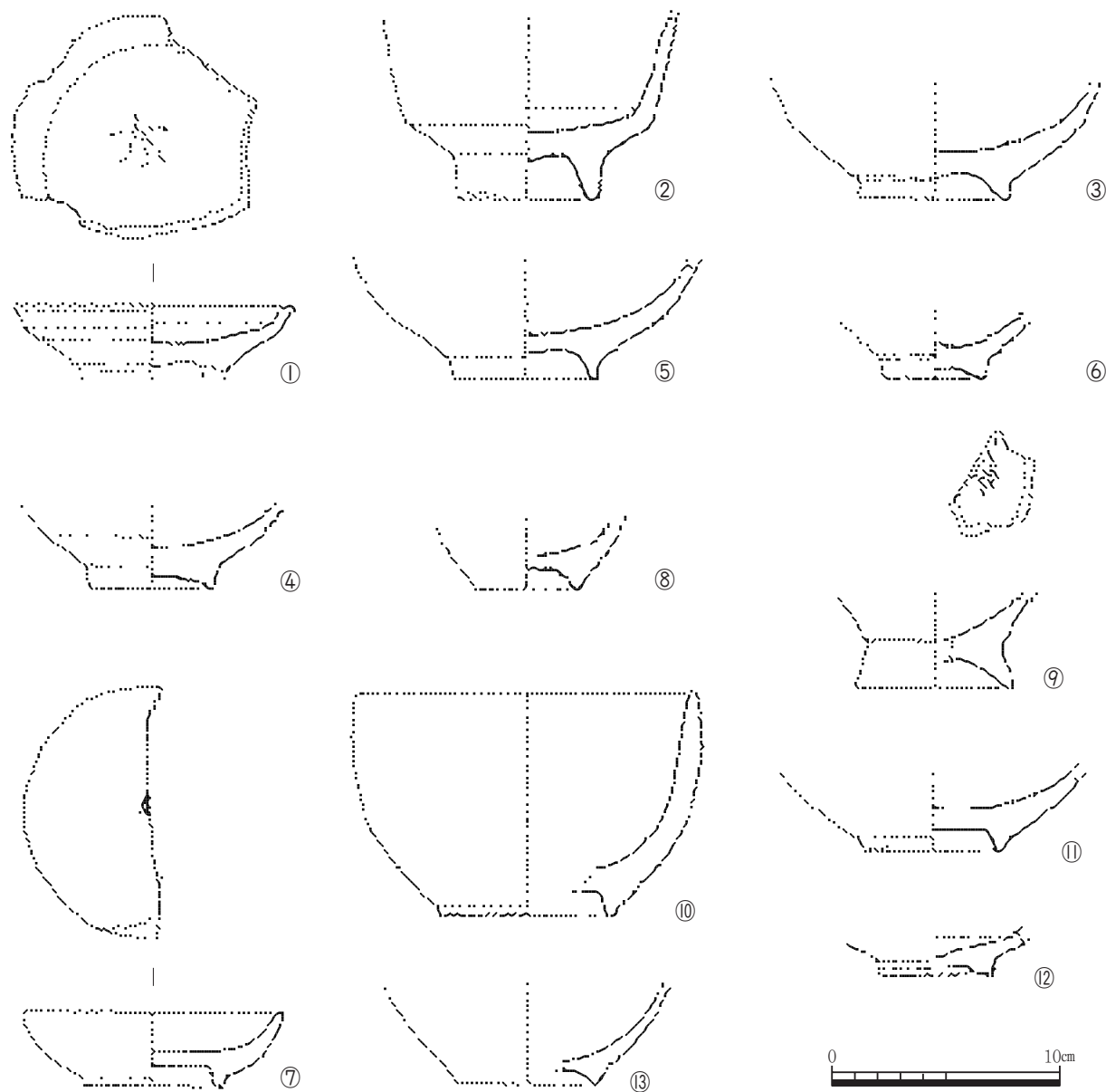
⑤ 백자 대접편(도면 20-⑤, 사진 47-①)

백자대접편으로 담회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에 닿으며 구연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내저면은 둥글며 모래받침의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은 죽절굽이며 접지면의 폭은 일정치 않다. 굽바닥이 깊고 내경한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 양질이나 잡티가 약간 혼입되었다. 빙열이 있다.

현고 4.9cm, 두께 0.5~1.5cm, 저경 6.2cm, 굽높이 0.9cm



도면 19. '나' 지점 유구 배치도



도면 20. 출토유물 - 자기류

⑥ 백자 접시편(도면 20-⑥, 사진 47-②)

백자접시편으로 투명한 담록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에 닿는다. 내저면은 중앙이 오목하게 올라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근 바닥이다. 굽은 내경하며 바닥을 얇게 깎아냈다. 모래받침이 남아 있으며 빙얼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2.6cm, 두께 0.5~1.1cm, 저경 4.4cm, 굽높이 0.8cm

⑦ 백자 접시편(도면 20-⑦, 사진 47-③)

백자접시편으로 반투명 유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벽은 부드럽게 내려와 굽에 닿는다. 굽은 짧은 반면 안쪽을 깊게 깎았다. 구연은 직립하고 내저면은 편평하다. 내저면 중앙에는 전서체 '壽'字를 청화로

썼는데 반쯤 남아 있으며 내외면에 이물질이 많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3.2cm, 두께 0.3~0.6cm, 저경 6.0cm, 구경 11.2cm, 굽높이 0.3cm

⑧ 백자 중지편(도면 20-⑧, 사진 47-④)

백자중지편으로 투명한 회백색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벽이 부드럽게 내려와 굽에 닿고 구연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굽안쪽은 깊고 둥글게 깎았으며 굽은 불규칙하게 깎았다. 내저면에는 포개구이를 알 수 있는 태토비집 받침흔이 5개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 점토이다. 현고 2.8cm, 두께 0.5~0.6cm, 저경 4.5cm

⑨ 백자 접시편(도면 20-⑨, 사진 48-①)

백자접시편으로 투명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저면에 '五'字가 彫琢되었다. 몸체와 굽의 구분이 뚜렷하며 굽은 높고 내경한다. 안바닥은 깊고 접지면은 좁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3.84cm, 두께 0.54~1.02cm, 추정저경 6.8cm, 굽높이 2.0cm

⑩ 백자 대접편(도면 20-⑩, 사진 48-②)

백자 대접편으로 투명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벽은 곧게 직립하며 올라가고 구연입술부분에서 살짝 내반한다. 굽은 동체에 비해 짧고 안바닥은 깊게 깎았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9.6cm, 두께 0.4~1.2cm, 저경 5.5cm

⑪ 백자 접시편(도면 20-⑪, 사진 48-③)

백자접시편으로 회백색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벽은 완만하게 사선을 그으며 내려온다. 굽은 얇고 접지면은 좁다. 굽안 바닥은 깊고 편평하게 깎았다. 내저면은 편평하며 중앙에 굽은 모래 받침의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굽 안쪽에도 모래받침흔이 있고 유약이 묻쳐 있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3.4cm, 두께 0.6~1.5cm, 저경 6.0cm, 굽높이 0.6cm

⑫ 백자 저부편(도면 20-⑫, 사진 48-④)

백자 저부편으로 황색을 띠는 투명 유약이 시유되었다. 기형을 알 수 없으나 기벽은 굽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내저면은 오목하게 파여져 있다. 굽은 죽절굽이며 얇게 깎았고 접지면은 넓다. 굽안 바닥은 편평하게 깎았고 내화토 받침흔이 있다. 유약의 유착상태도 불량하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1.8cm, 두께 0.3~0.7cm, 저경 4.8cm, 굽높이 0.6cm

⑬ 백자 주발편(도면 20-⑬, 사진 49-①)

백자 주발편으로 짙은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기벽은 급하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굽에는 굽은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4.1cm, 두께 0.4~1.0cm, 저경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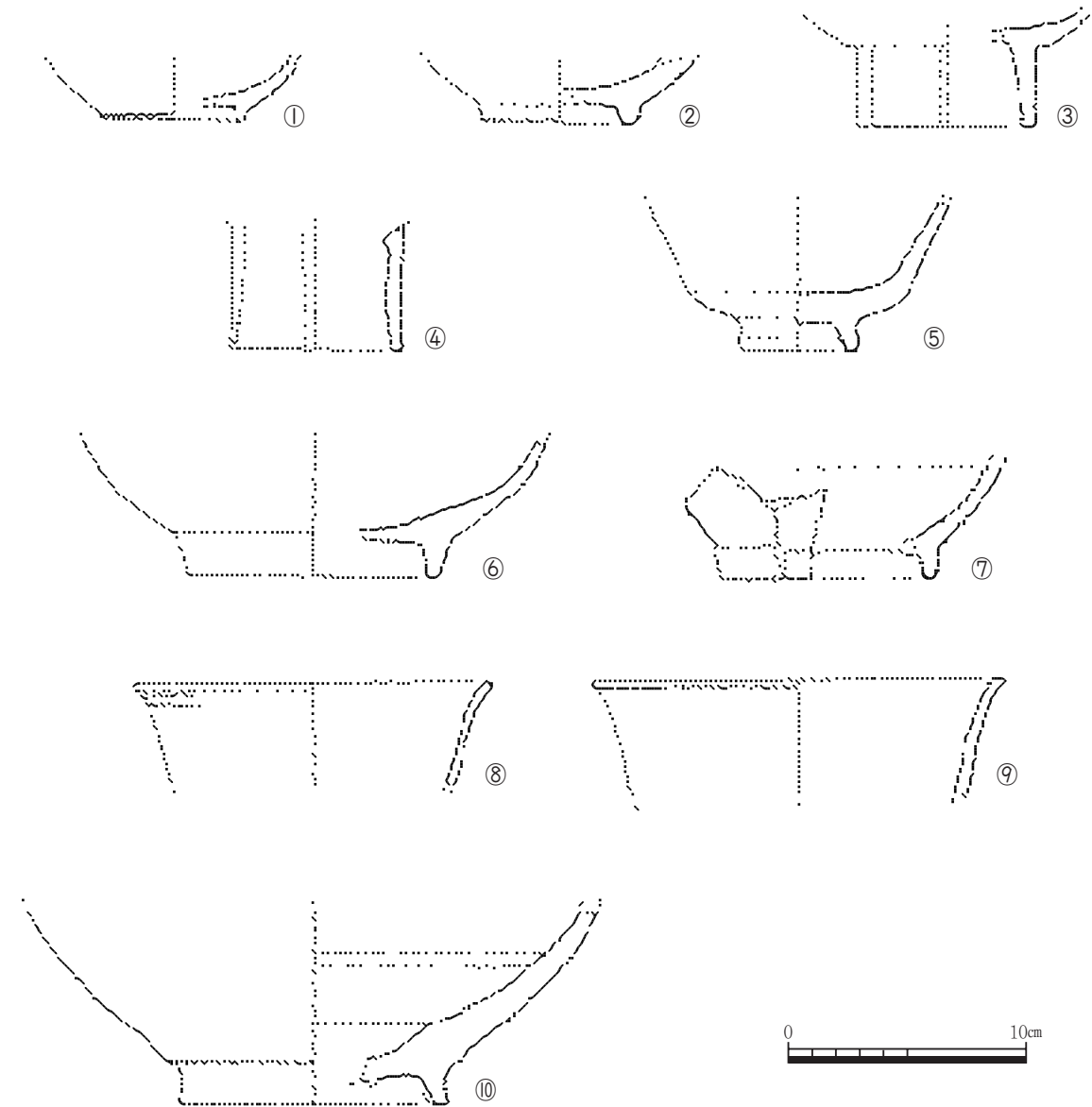
⑭ 백자 접시편(도면 21-①, 사진 49-②)

백자접시편으로 투명한 유백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다. 기벽은 완만하게 S자를 그리며 굽과 닿는다. 내면은 박리가 심하다. 굽은 얇고 안바닥을 깊고 편평하다. 굽에는 청화로 한줄 돌렸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2.5cm, 두께 0.3~0.7cm, 추정저경 6.0cm, 굽높이 0.4cm

⑮ 백자 대접편(도면 21-②, 사진 49-③)

백자대접편으로 유백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다. 기벽은 완만한 S자를 그리며 굽에 닿는다. 내외면과 접지면에는 잡티가 많이 부착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며 빙얼이 있다.



도면 21. 출토유물 - 자기류

현고 2.7cm, 두께 0.6~1.1cm, 추정저경 6.2cm, 굽높이 0.8cm

⑰ 백자 제기편(도면 21-③, 사진 49-④)

백자제기 저부편으로 투명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저면은 편평하다. 굽은 높고 뚜렷하게 각을 주어 깎았다. 용융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4.7cm, 두께 0.5~0.9cm, 추정저경 7.4cm, 굽높이 3.35cm

⑱ 백자 제기편(도면 21-④, 사진 50-①)

백자제기 대각편으로 투명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굽 안바닥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5.1cm, 두께 0.3~0.5cm, 추정저경 7.1cm

⑲ 백자 주발편(도면 21-⑤, 사진 50-②)

백자 주발편으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구연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외벽은 곧게 내려오다 직각으로 꺾이고 굽과 이어진다. 굽은 죽절굽으로 섬세하게 깎지는 않았다. 굽 안쪽은 깊게 깎았으며 내저면은 깊고 편평하다. 굽은 모래받침흔이 내저면과 굽에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다. 빙열이 있다.

현고 6.2cm, 두께 0.4~1.3cm, 저경 4.8cm

⑲ 백자 대접편(도면 21-⑥, 사진 50-③)

백자 대접편으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구연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외벽은 완만하게 내려와 굽에 닿는다. 접지면은 좁고 안바닥은 깊게 깎았다. 내면은 오목하게 깊으며 물레 성형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내면은 유약의 유착상태가 불량하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5.6cm, 두께 0.4~1.1cm, 추정저경 10.2cm

⑳ 백자 저부편(도면 21-⑦, 사진 50-④)

백자 저부편으로 기형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과 동체부 약간만 남아 있는데 육각으로 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유약의 유착상태가 불량해 유약이 흘러 내렸다. 가는 모래받침흔이 있다. 현고 4.7cm, 두께 0.5cm

㉑ 백자 구연부편(도면 21-⑧, 사진 51-①)

백자 주발 구연부편으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구연은 살짝 외반하며 입술부분에서 살짝 꺾인다. 입술 아랫부분에선 물레 성형후 정면하지 않은 거친 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의 양질이다.

현고 4.2cm, 두께 0.4cm, 추정구경 14.8cm

㉒ 백자 대접편(도면 21-⑨, 사진 51-②)

백자 대접 구연부편으로 회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며 입술부분에서 살짝 꺾였다. 외면에는 약간의 기포가 있으며 내외면에 빙열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 점토이다.

현고 4.9cm, 두께 0.4~0.6cm, 추정구경 17.0cm

㉓ 흑유 자기편(도면 21-⑩, 사진 51-③)

흑유 자기 대접 저부편으로 구연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나 호로 추정된다. 외면은 곧게 내려와 굽으로 이어지고 굽 접지면은 좁고 편평하다. 굽안쪽은 깊고 편평하게 깎았고 굽 외면은 외반한다. 내저면은 오목하게 성형했으며 내기벽은 기면을 따라 곧게 올라간다. 흑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유착상태는 불량한 편하다. 빙열이 있다. 현고 8.0cm, 두께 0.7~1.7cm, 추정저경 11.0cm

2) 도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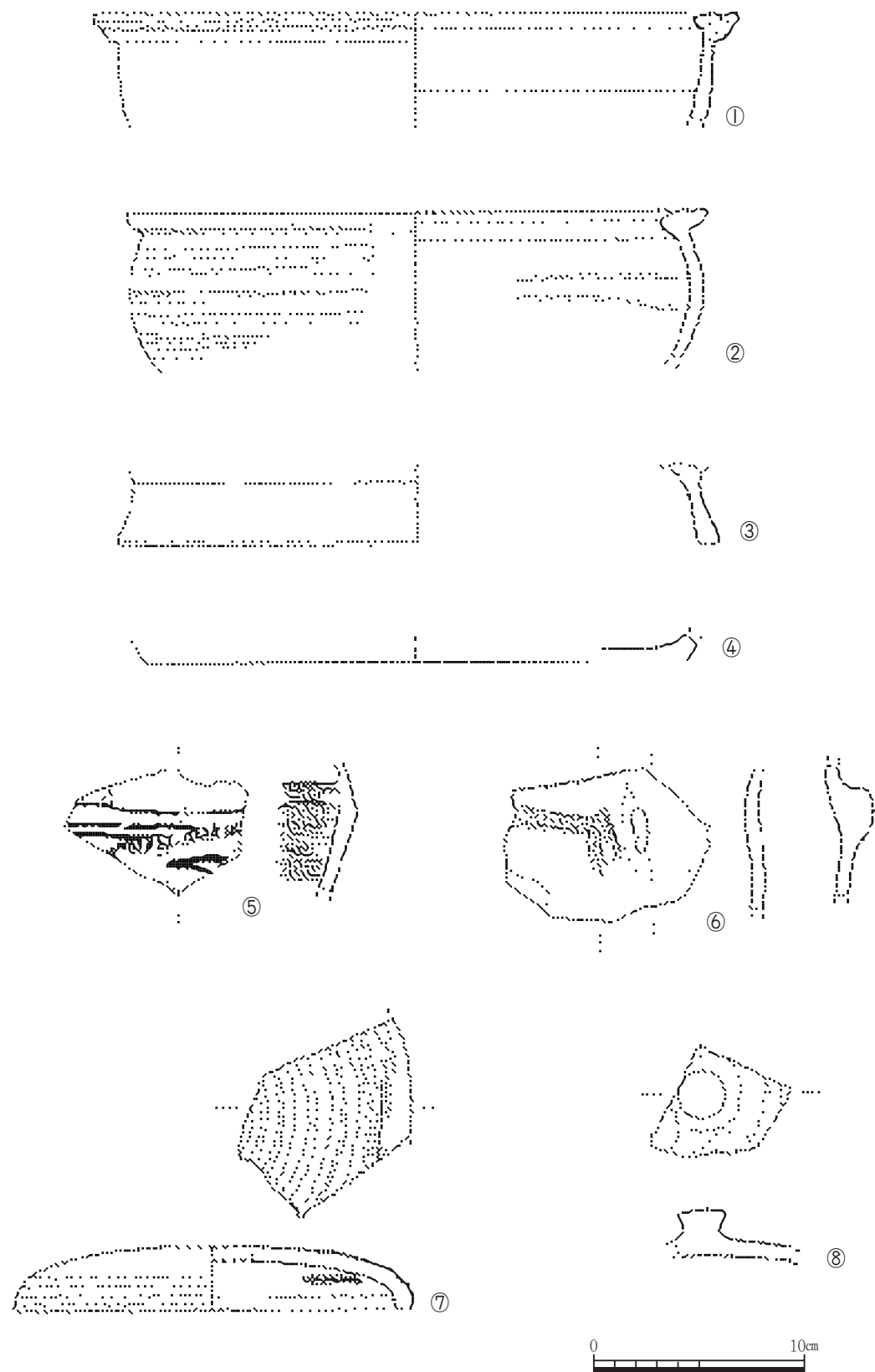
① 도기 구연부편(도면 22-①, 사진 52-①)

연질도기 구연부편으로 외면은 재갈색, 내면은 회갈색이며, 속심은 회색이다. 입술부분에는 음각 침선이 들어가 있으며 물레 성형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고 5.0cm, 두께 0.5~0.6cm, 추정구경 30.2cm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22-②, 사진 52-②)

연질도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은 짙은 재회색을 띠고 속심은 밝은 회색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도기가 마른 후 물레 위에서 암문을 돌렸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도면 22. 출토유물 - 도기류

현고 7.0cm, 두께 0.5~0.7cm, 추정구경 27.2cm

③ 도기 대각편(도면22-③, 사진 52-③)

황갈색 연질의 도기 대각편이다. 물레질한 흔적이 있고 동체와 대각을 따로 성형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3.8cm, 두께 0.5~1.0cm, 추정저경 28.0cm

④ 도기 저부편(도면 22-④, 사진 52-④)

재회색 연질도기 저부편이다. 평저이며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1.3cm, 두께 0.6~0.7cm, 추정저경 25.2cm

⑤ 도기 동체부편(도면 22-⑤, 사진 53-①)

경질도기편으로 동체부만 남아 있어 기형은 알 수 없다. 외면에 암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5.7cm, 두께 0.5~1.0cm

⑥ 도기 파수부편(도면 22-⑥, 사진 53-②)

흑회색 경질도기로 파수부편이다. 속심은 황갈색이고 내면은 흑회색과 황갈색을 띤다. 물손질흔이 남아 있고, 파수는 깨어졌으며 따로 성형하여 붙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6.2cm, 두께 0.7cm

⑦ 도기 뚜껑편(도면 22-⑦, 사진 53-③)

회청색 경질 뚜껑편으로 솥의 뚜껑으로 추정된다. 넓고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끝에서 곡선을 그리며 짧게 내려온다. 뚜껑 입술부분은 편평하나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상면은 암문처리하였다. 현고 3.0cm, 두께 0.7cm, 추정지름 18.2cm

⑧ 도기 뚜껑편(도면 22-⑧, 사진 53-④)

회청색 경질도기 뚜껑편이다. 손잡이는 환형손잡이다. 손잡이 윗면은 편평하게 만들었고 측면에 음각 침선 2줄이 들어갔다. 뚜껑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었고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2.5cm, 두께 0.7~2.05cm

⑨ 도기 저부편(도면 23-①, 사진 54-①)

재회색 도기 저부편으로 속심과 내면은 회색을 띠고 있다. 저부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은 세밀하게 각을 주었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넓고 물손질 후 암문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1.2cm, 두께 0.55~0.8cm, 추정저경 28.6cm

⑩ 도기 저부편(도면 23-②, 사진 54-②)

재회색 도기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내외면은 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외면은 물손질 후 도구 정면하였다. 바닥면은 정면하지 않았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고 2.4cm, 두께 0.55~0.7cm, 추정저경 2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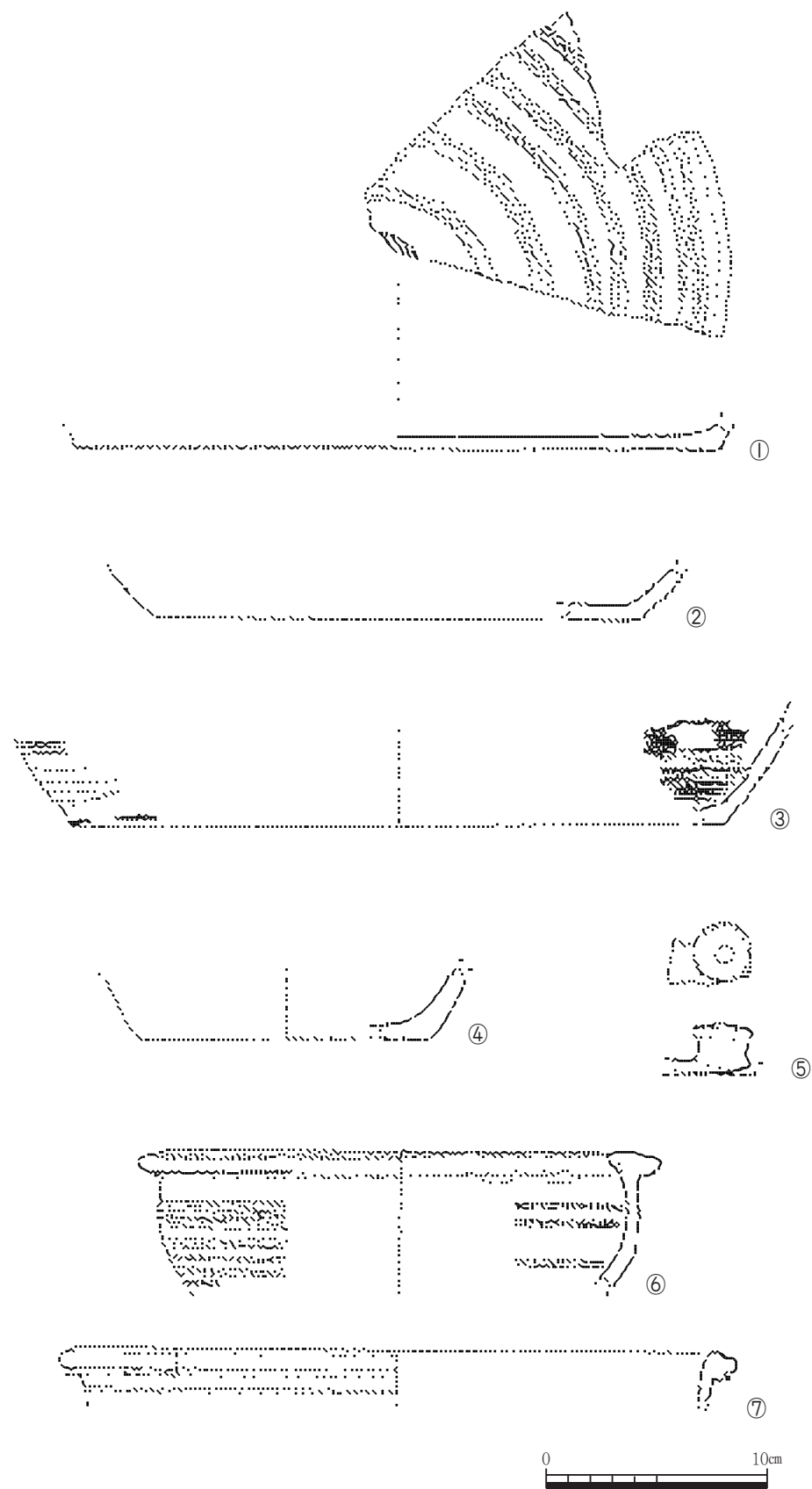
⑪ 도기 저부편(도면 23-③, 사진 54-③)

재회색 도기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속심은 밝은 회색을 띠고 있다. 내외면 물손질하였으며 모두 암문이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질로 정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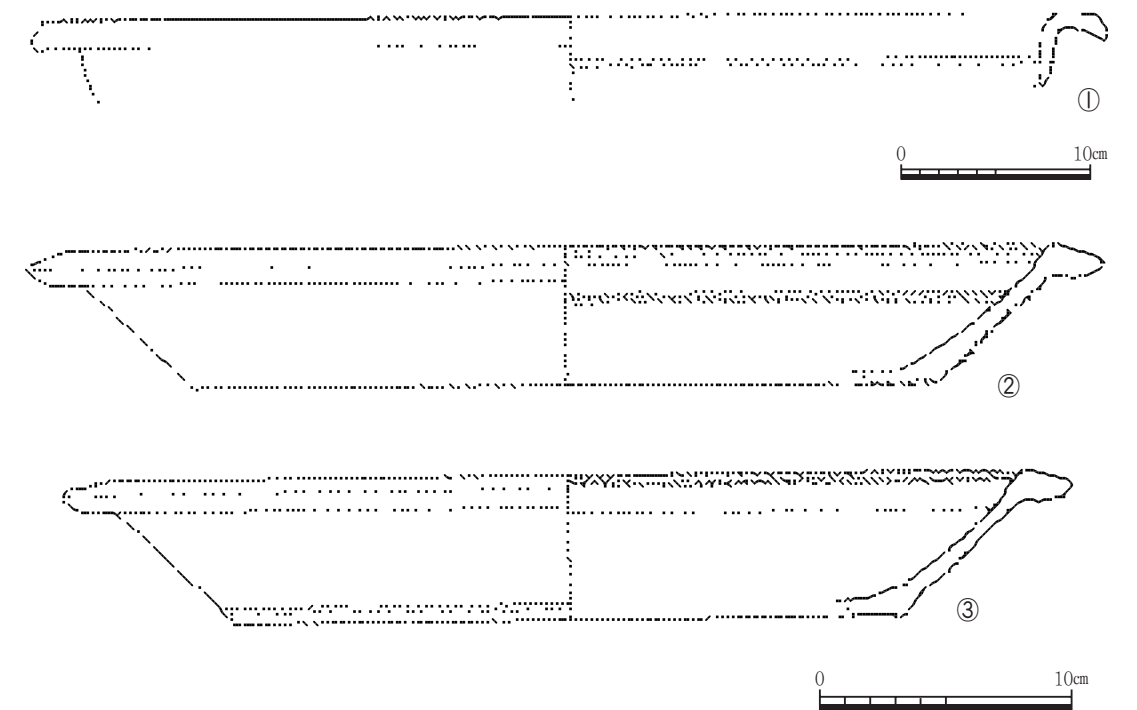
현고 4.8cm, 두께 0.6~0.7cm, 추정저경 30.0cm

⑫ 도기 저부편(도면 23-④, 사진 55-①)

회색의 경질도기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내외면 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바닥면은 정면하지 않았다. 태토는 백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거친 편이다. 현고 3.3cm, 두께 0.7, 추정저경 13.0cm



도면 23. 출토유물 - 도기류



도면 24. 출토유물 - 도기류

⑬ 도기 뚜껑 손잡이편(도면 23-⑤, 사진 55-②)

재회색 환형 꼭지 손잡이편이다. 손잡이는 따로 만들어 붙였으며 파손이 심해 전체적인 뚜껑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환형꼭지로 추정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2.2cm, 두께 0.6cm

⑭ 도기 구연부편(도면 23-⑥, 사진 55-③)

재회색 도기 구연부편이다. 입술부분을 2개로 성형한 후 아랫쪽을 띄엄띄엄 위쪽과 붙여서 문양을 내었고 경부에 음각 침선을 돌렸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현고 2.2cm, 두께 0.5, 추정구경 30.2cm

⑮ 도기 구연부편(도면 23-⑦, 사진 55-④)

재회색 도기 구연부편이다. 경질이며 속심은 밝은 회색을 띤다. 내외면에 물손질 후 암문을 넣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나 매우 정선되었다. 현고 6.0cm, 두께 0.6cm, 추정구경 23.2cm

⑯ 도기 구연부편(도면 24-①, 사진 55-⑤)

회색도기 구연부편으로 입술부분과 경부만 약간 남아 있다. 경부에서 올라온 구연부는 완전히 외반한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현고 4.0cm, 두께 0.6~0.8cm, 추정구경 55.6cm

⑰ 도기 쟁반편(도면 24-②, 사진 56-①)

밝은 재회색 도기로 일부 남아 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입술부분은 크게 외반하였으며 내면 기벽 중앙에는 음각 침선 2줄이 들어가 있다. 외면은 표면 박리가 심하다. 내면에서 물손질 흔을 관찰할 수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5.3cm, 두께 0.4~0.7cm, 추정저경 29.0cm

⑱ 도기 쟁반편(도면 24-③, 사진 56-②)

재회색 도기편으로 일부 남아 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입술부분은 크게 외반하며 중앙이 살짝 패였다.

외면은 표면 박리가 심하다. 내외면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평저이며 바닥은 정면하지 않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고 5.6cm, 두께 0.5~0.65cm, 추정구경 29.4cm, 추정저경 26.2cm

3) 전돌류

① 부전돌(도면 25-①, 사진 57)

재회색의 정방형 부전돌이다. 무문이며 옆면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길이 23.2cm, 너비 23.6cm, 두께 5cm

② 부전돌(도면 25-②, 사진 58)

회청색 경질의 부전돌이다. 상면에는 물손질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백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길이 23.3cm, 너비 23.5cm, 두께 5.0cm

③ 부전돌편(도면 26-①, 사진 59)

재회색 경질의 장방형 부전돌이다. ¾정도 남아 있다. 물손질 하였으며 두꺼운 편이다. 태토는 백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20.0cm, 너비 18.5cm, 두께 8.0cm

④ 벽전돌편(도면 26-②, 사진 60-①)

회청색 경질의 벽전돌편이다. 상면과 측면 일부에 자연유가 붙어 있다. 상면에는 세로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21.0cm, 너비 10.8cm, 두께 5.0cm

⑤ 벽전돌편(도면 26-③, 사진 60-②)

회청색 경질의 벽전돌편이다. ¾정도 남아 있다. 상면과 측면에 물손질하였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나 매우 정선되었다. 현길이 15.9cm, 너비 9.9cm, 두께 4.0cm

⑥ 벽전돌편(도면 26-④, 사진 61-①)

회청색 경질의 벽전돌편이다.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파손이 심한 편이다. 현길이 18.0cm, 너비 9.5cm, 두께 4.4cm

⑦ 부전돌편(도면 27-①, 사진 61-②)

재회색의 경질 부전돌편이다. ⅓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백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나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25.0cm, 너비 17.4cm, 두께 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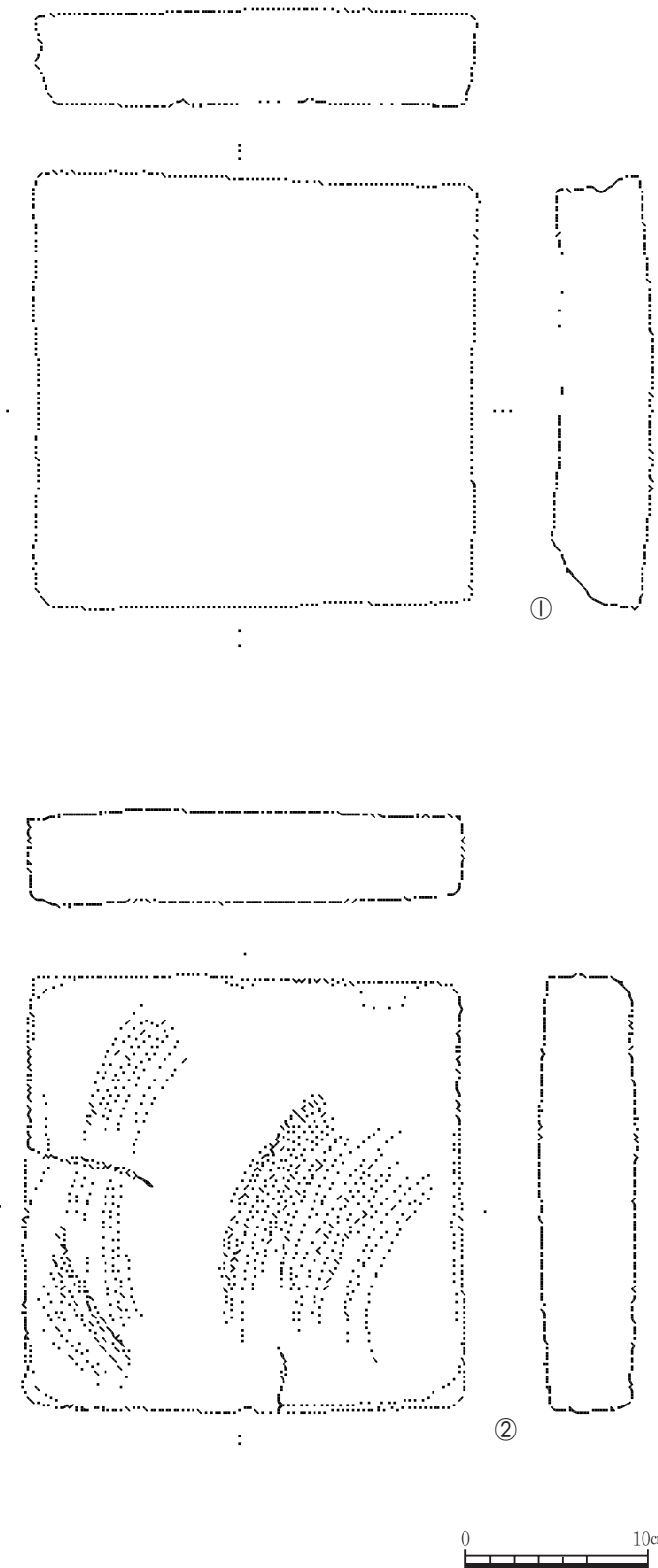
⑧ 벽전돌편(도면 27-②, 사진 62-①)

적갈색 경질 벽전돌로 ½만 남아 있다. 중앙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다. 상면과 측면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12.5cm, 너비 10.8cm, 두께 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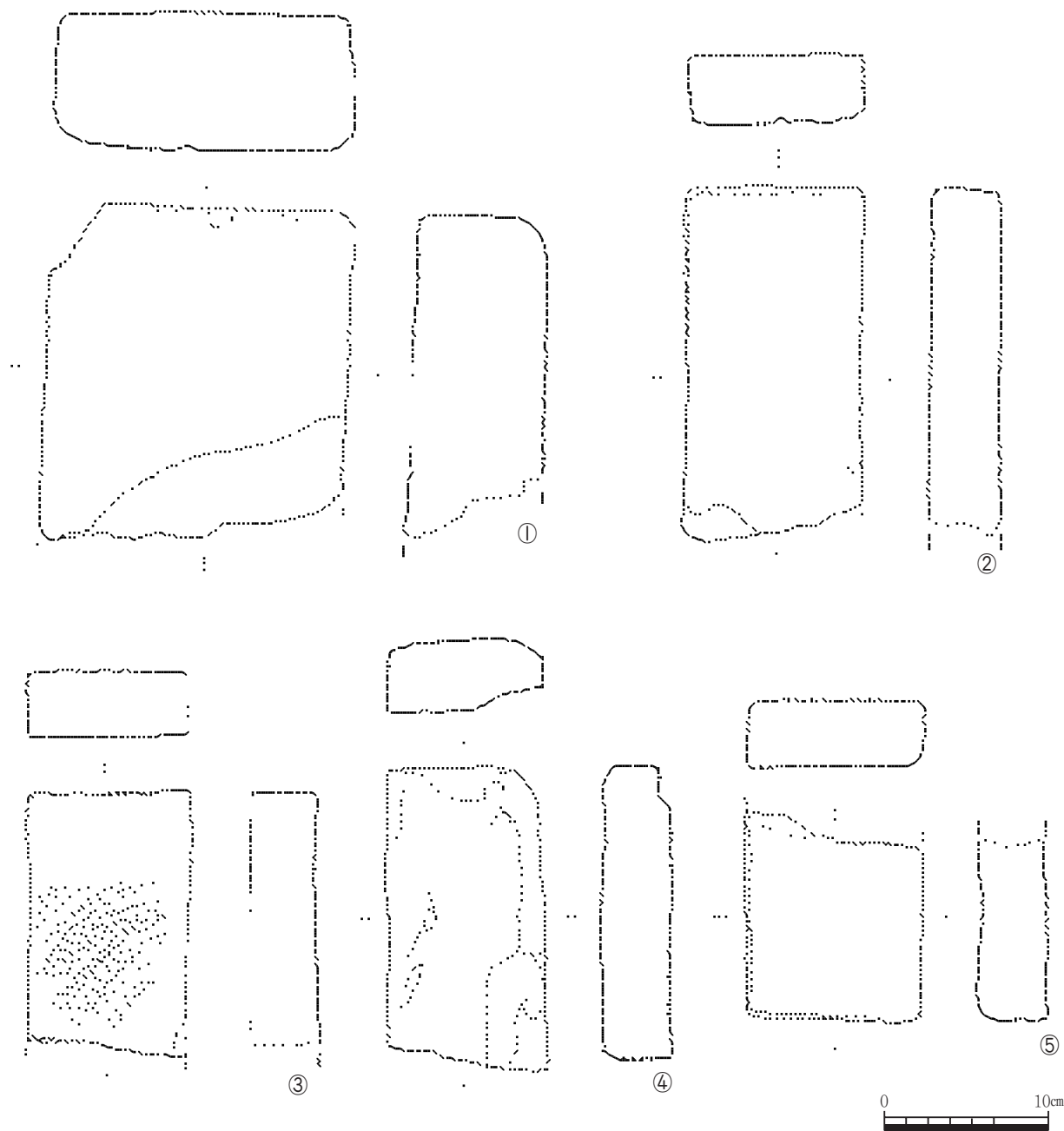
⑨ 부전돌편(도면 26-⑤, 사진 62-②)

질은 재회색 부전돌편이다. ⅓정도 남아 있다. 단면상에 많은 기포가 관찰되며 불완전소성으로 외면에 색 차이가 있어 도면 왼쪽은 적갈색, 오른쪽은 밝은 재회색을 띠고 있다.

현길이 23.5cm, 너비 16.3cm, 두께 4.8cm



도면 25. 출토유물 - 전돌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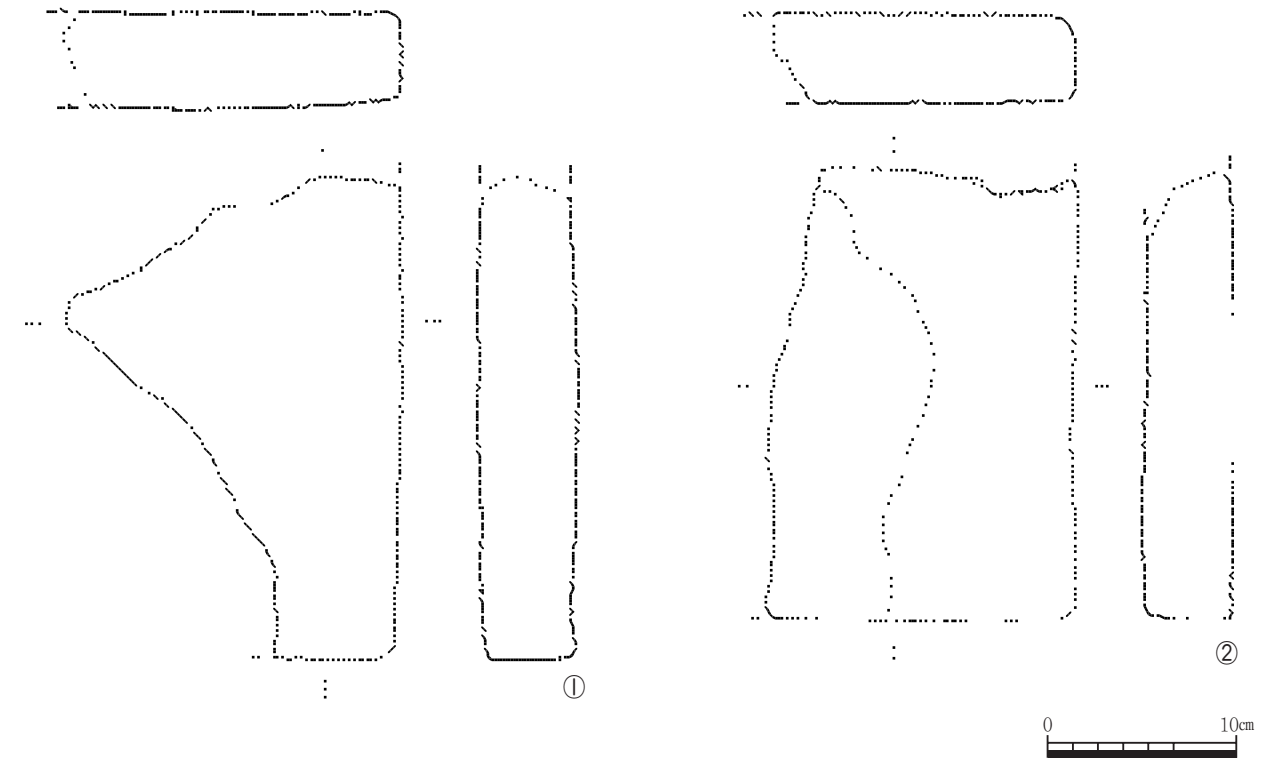
도면 26. 출토유물 - 전돌류

4) 기와류

① 암막새편(도면 28-①, 사진 63-①)

암막새편이다. 1/3정도 남아 있다.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다. 주연에는 무늬가 없으며 넓이가 일정하지 않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14.7cm, 두께 1.35~2.3cm

② 암막새편(도면 28-②, 사진 63-②)



도면 27. 출토유물 - 전돌류

회청색 경질 암막새편이다. 1/3정도 남아 있다. 문양이 있으나 알아보기 힘들다. 주연에는 무늬가 없으며 중앙부분의 문양과 주연 사이에 돌대가 둘러져 있다. 물손질 흔이 남아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현길이 16.3cm, 두께 1.9cm

③ 암막새편(도면 28-③, 사진 64-①)

회갈색 암막새편이다. 1/3정도 남아 있다. 당초문이 양각되어 있다. 주연에는 무늬가 없다. 내면은 박리가 심하고 물손질흔을 관찰할 수 있다. 현길이 10.2cm, 주연너비 2.0cm

④ 암막새편(도면 28-④, 사진 64-②)

회색의 경질암막새편이다. 1/2정도 남아 있다. 중앙에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주연에는 무늬가 없다. 돌대로 주연과 문양을 구분하였고 물손질하였다. 손누름 흔적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12.7cm, 주연두께 1.9~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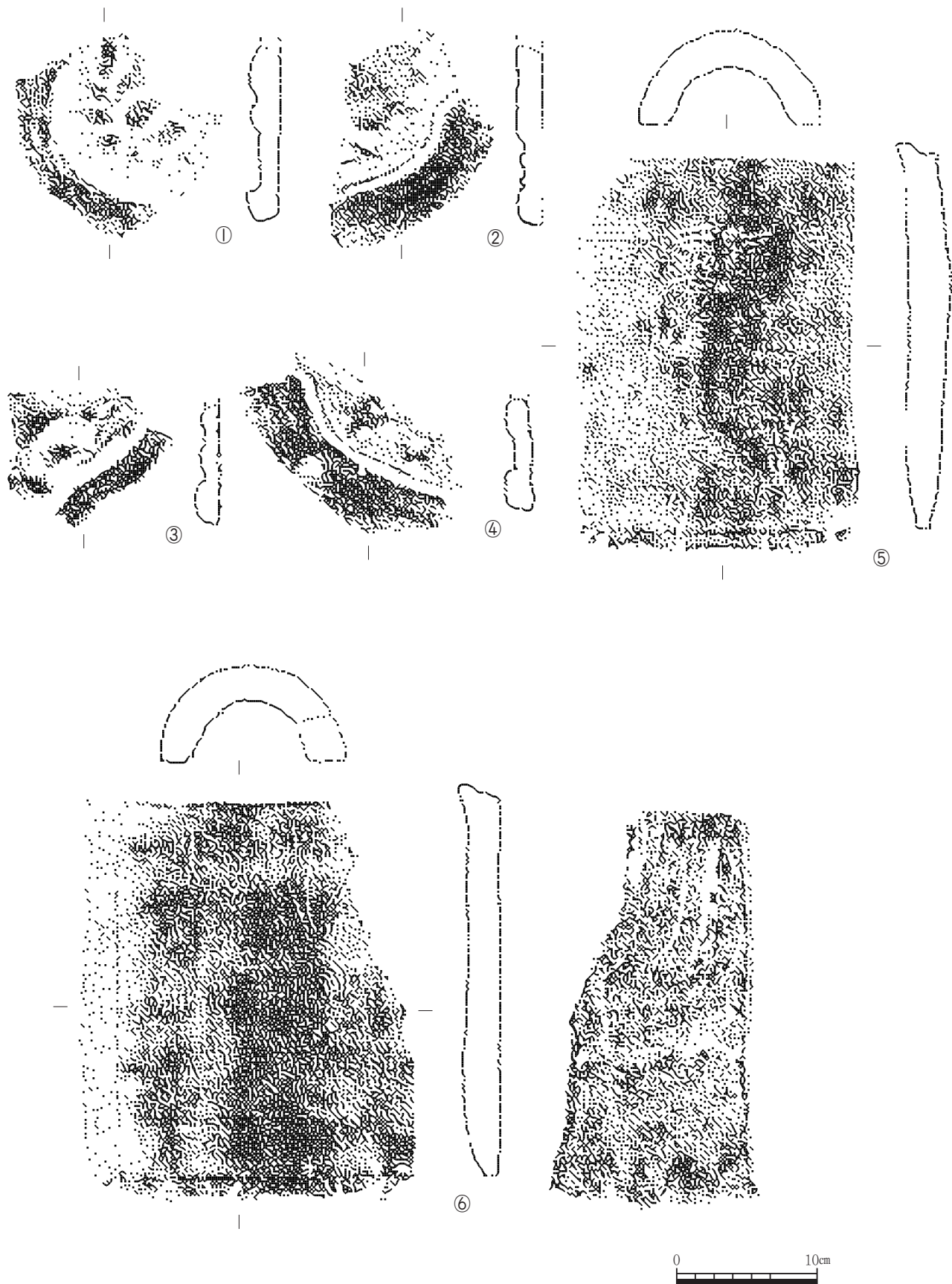
⑤ 수키와(도면 28-⑤, 사진 65-①)

회청색의 경질 유단식 수키와로 완형이다. 집선문과 원문이 혼합된 복합문이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있으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길이 30.0cm, 너비 15.4cm, 두께 1.0~2.7cm

⑥ 수키와(도면 28-⑥, 사진 65-②)

회갈색의 경질 유단식 수키와로 약간 파손되었다. 집선문과 반원문이 혼합된 복합문이다. 외면 상부에는 물손질흔이 있으며 내면 아랫부분은 경사지게 처리되어 있고 손누름자국이 뚜렷하다. 포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질이다. 길이 30.2cm, 너비 14.9cm, 두께 2.5~2.8cm

⑦ 암키와편(도면 29-①, 사진 66)



도면 28. 출토유물 - 기와류

재회색의 경질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만 남아 있다. 문양은 시문되어 있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 ‘一’자와 ‘本’자가 음각되어 있다. 손누름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22.8cm, 현너비 22.9cm, 두께 2.8cm

⑧ 수키와편(도면 29-②, 사진 67-①)

질은 재회색 경질 수키와이다. ⅓가량 남아 있다. 외면에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길이 17.3cm, 너비 14.5cm, 두께 2.3cm

⑨ 수키와편(도면 29-③, 사진 67-②, ③)

재회색 경질의 수키와로 ⅓만 남아 있다. 내면은 외면보다 더 진한 재회색이며 약 4cm가량 건장치기 되어 있다. 외면에는 희미하긴 하지만 ‘崇貞紀元後’의 양각명문이 확인되는데 禎자의 변을 생략하여 貞으로 하였다. 이로써 이 기와는 17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현길이 24.9cm, 너비 15.1cm, 두께 2.7cm

⑩ 수키와편(도면 29-④, 사진 68-①)

재회색 경질 수키와이다. ¼가량 남아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과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은 4cm가량 건장치기 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20.2cm, 너비 11.3cm, 두께 2.5cm

⑪ 수키와편(도면 29-⑤, 사진 68-②)

흑회색 연질의 수키와로 태토가 손에 묻어 난다. 속심은 밝은 회색을 띤다. 외면에 승석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 손누름흔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이다. 현길이 10.2cm, 너비 9.0cm, 두께 2.3cm

⑫ 수키와편(도면 29-⑥, 사진 68-③)

밝은 회색의 경질 수키와로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외면에 파상문과 연꽃봉오리 문양이 시문되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남아 있다. 현길이 13.0cm, 너비 8.2cm, 두께 2.8cm

⑬ 암키와편(도면 30-①, 사진 69-①)

밝은 회색을 띤 경질 암키와이다. 끝부분만 약간 남아 있다. 약 2.5cm정도 건장치기 되어 있다. 외면에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현길이 8.5cm, 너비 8.4cm, 두께 2.3cm

⑭ 암키와편(도면 30-②, 사진 69-②)

재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백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다소 조잡하다. 현길이 13.7cm, 너비 13.5cm, 두께 2.0cm

⑮ 암키와편(도면 30-③, 사진 69-③)

회색의 경질 암키와편이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외면에 모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현길이 37.3cm, 너비 23.5cm, 두께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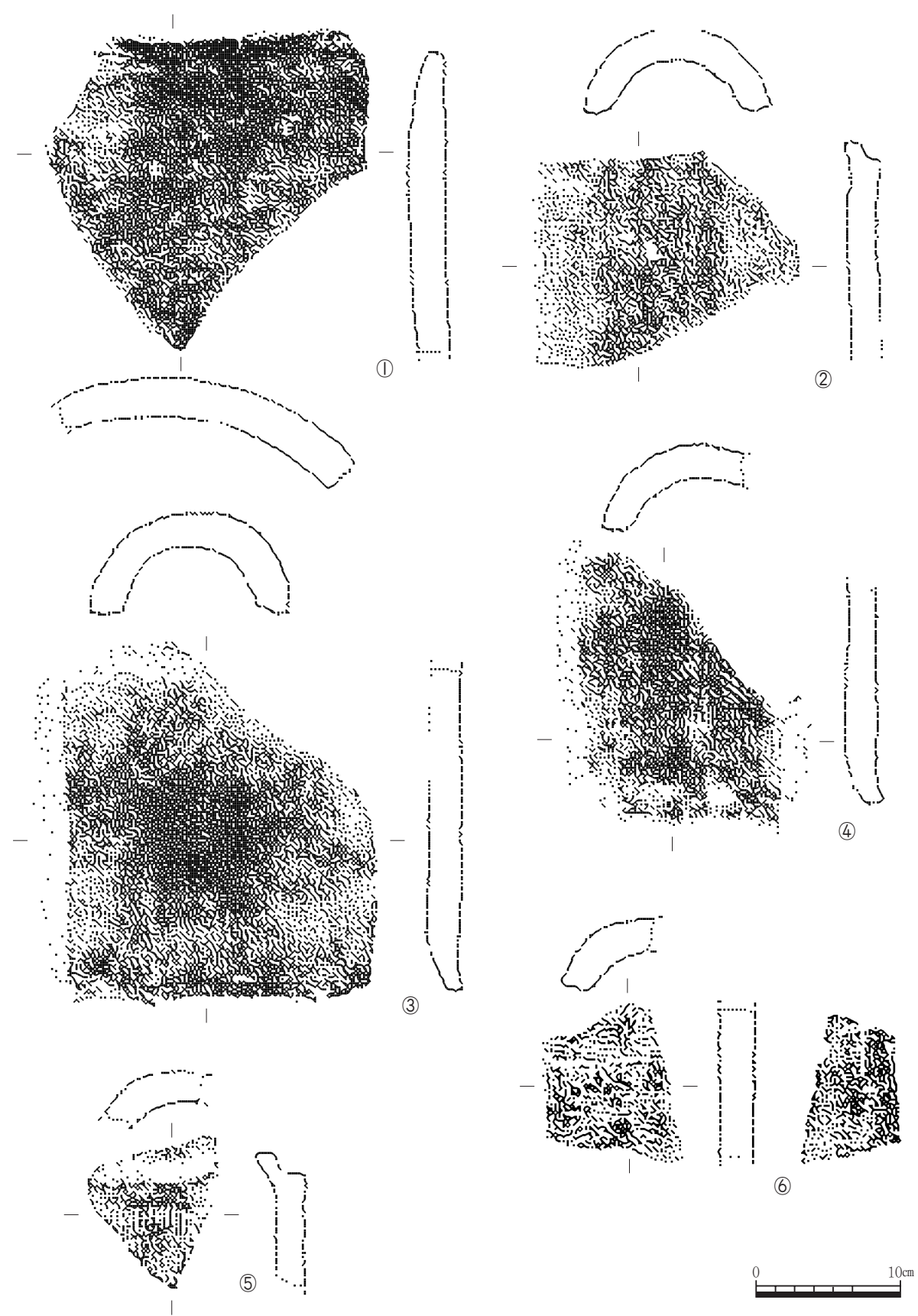
⑯ 암키와편(도면 30-④, 사진 70-①)

질은 재회색 암키와편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백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2.1cm, 너비 8.0cm, 두께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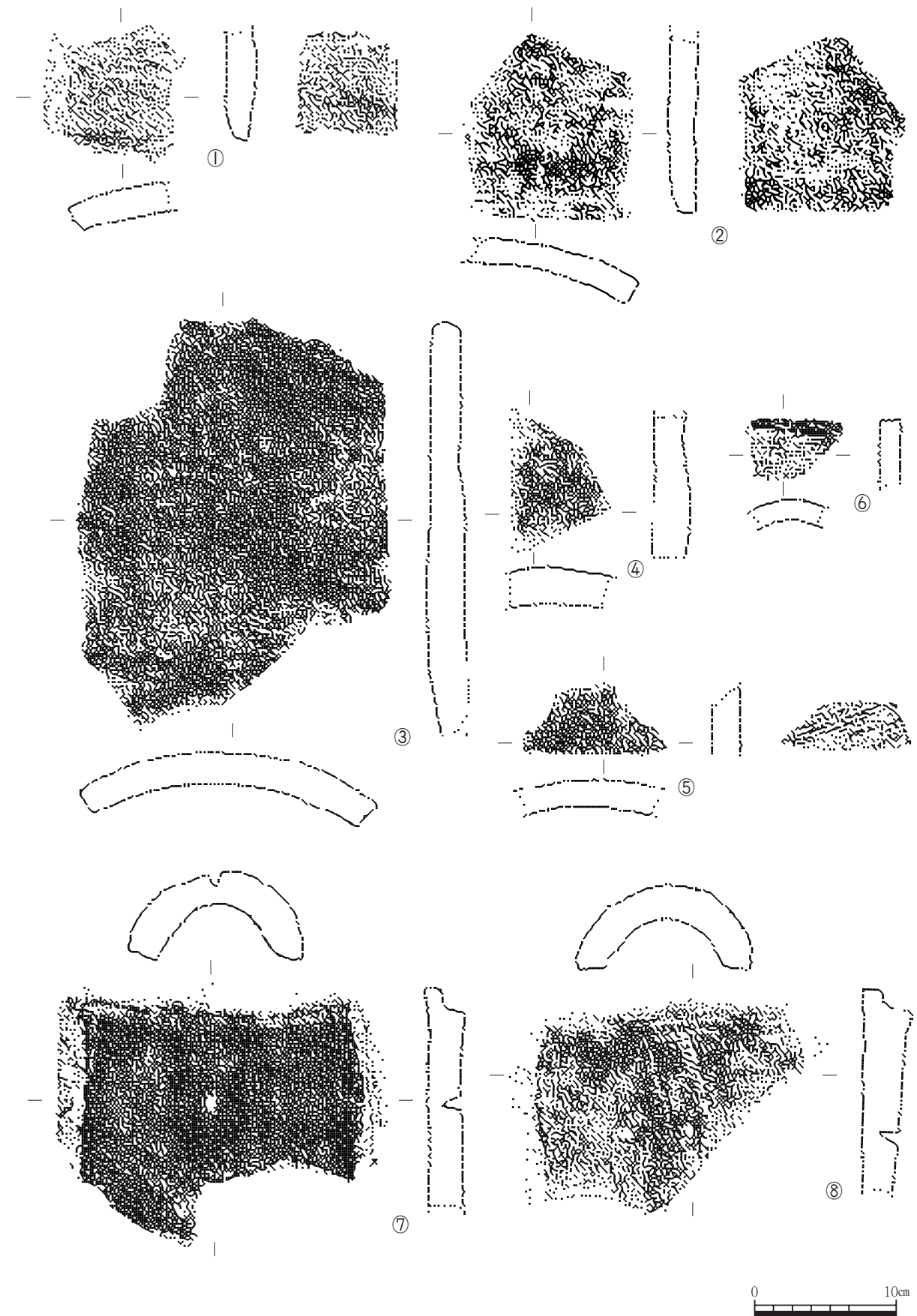
⑰ 암키와편(도면 30-⑤, 사진 70-②)

회갈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외면에는 문양이 없고 내면에는 사선문이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나 조밀한 편이다. 현길이 5.7cm, 너비 11.3cm, 두께 2.2cm

⑱ 수키와편(도면 30-⑥, 사진 70-③)



도면 29. 출토유물 - 기와류



도면 30. 출토유물 - 기와류

질은 재회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속심은 밝은 회황색이다. 외면에는 격자문과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5.0cm, 너비 7.1cm, 두께 1.6cm

⑲ 수키와편(도면 30-⑦, 사진 71-①)

연한 회갈색의 수키와이다. ½정도 남아 있다. 파상문과 집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이다. 외면 중앙부분에 지름 1.1cm, 깊이 1.5cm 정도의 와정흔이 있으나 관통하지는 않았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있으며 내면에는 술질흔적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20.3cm, 너비 14.3cm, 두께 14.3cm

⑳ 수키와편(도면 30-⑧, 사진 71-②)

회색의 경질 수키와이다. ½정도 남아 있다. 집선문과 원문이 혼합된 복합문이나 대부분 물손질로 지워진 상태이다. 외면 중앙부분에 지름 1.0cm, 깊이 1.5cm 정도의 와정흔이 있으나 관통하지는 않았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현길이 17.3cm, 너비 13.5cm, 두께 2.3~3.6cm

5) 石製品

① 석제품(도면 31-①, 사진 72-①)

화강암으로 만든 건축부재이다. 한쪽면을 편평하게 원형으로 치석하였고 반대쪽은 좁고 뾰족하게 하여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으며 거칠게 정리하여 떼어내 자국이 남아 있다. 담장벽체에 사용하였던 원형의 心石으로 추정된다. 지름 16.0cm, 길이 30.0cm

② 석제품(도면 31-②, 사진 72-②)

화강암으로 만든 건축부재로 ①과 같이 한쪽면을 편평하게 원형으로 치석하였고 반대쪽은 좁고 뾰족하게 떼어내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담장벽체에 사용하였던 원형의 心石으로 추정된다.

지름 16.5cm, 길이 28.5cm

③ 석제품(도면 32-①, 사진 73)

화강암으로 만든 건축부재이다. 한쪽면을 편평하게 방형으로 치석하였고 반대쪽은 좁고 뾰족하게 하여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으며 거칠게 정리하여 떼어내 자국이 남아 있다. 석담에 사용하였던 석제의 하나로 추정된다. 가로 18.3cm, 세로 15.0cm, 길이 29.0cm

④ 석제품(도면 32-②, 사진 7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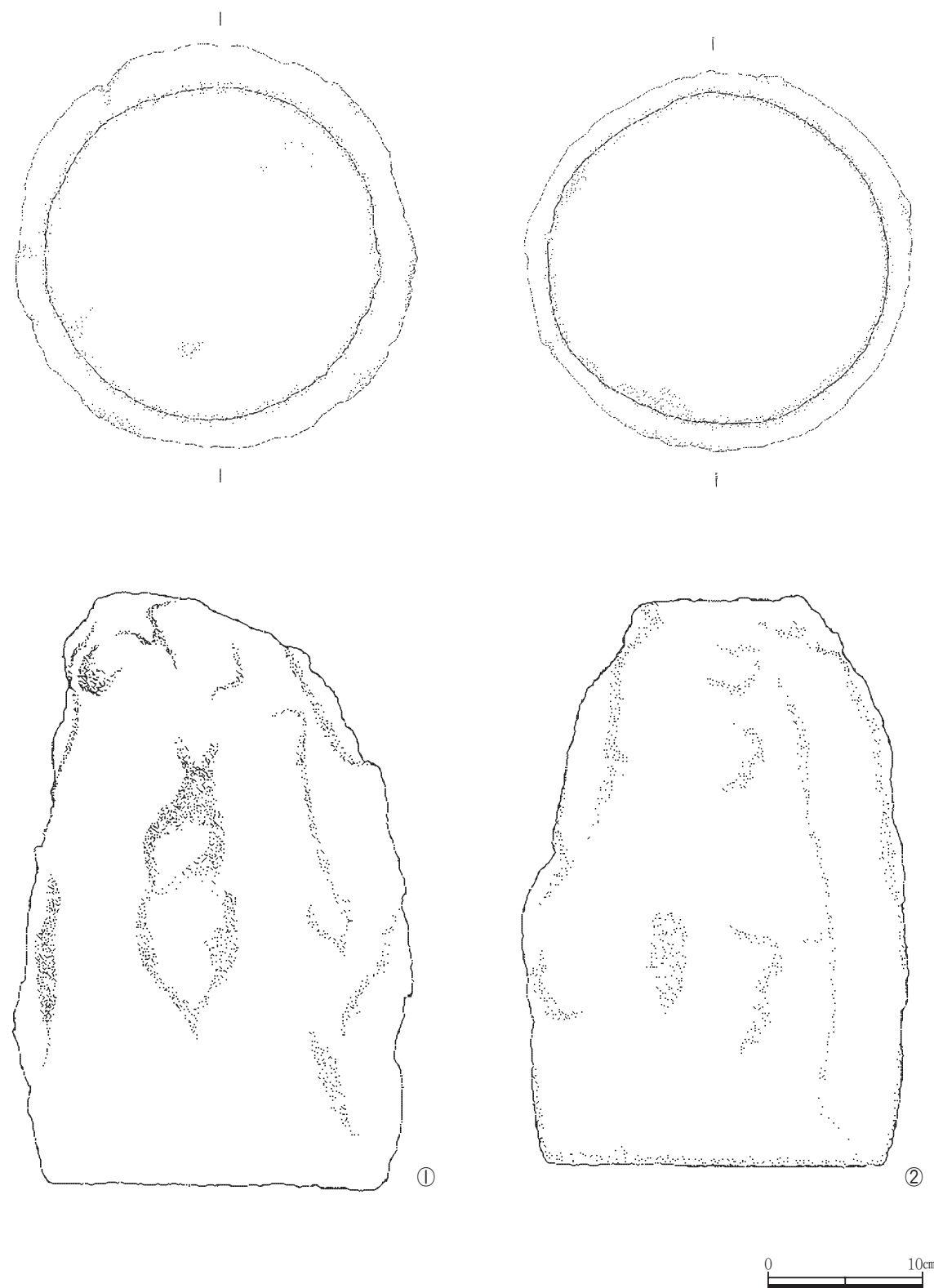
화강암으로 만든 건축부재이다. 한쪽면을 편평하게 장방형으로 치석하였고 반대쪽은 뾰족하게 하여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담장에 사용하였던 四塊石으로 추정된다.

가로 13.9cm, 세로 11cm, 현고 15.6cm

⑤ 석제품(도면 32-③, 사진 74-②)

화강암으로 만든 건축부재이다. 원통형으로 쪼아 치석하였는데 한쪽면을 원형으로 치석하였고 반대쪽은 거친 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 벽체로 만든 박공벽에 사용하였던 장식으로 추정된다.

지름 16.3cm, 현고 12.5cm



도면 31. 출토유물 - 석제품



도면 32. 출토유물 - 석제품

6) 철제품

① 철제품(도면 33-①, 사진 75-①)

용도미상의 철제 環이다. 내부의 상부는 폭이 1cm 정도이고 하부는 0.3cm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현고 2.4cm, 바깥지름 12.5cm, 안지름 10.0~11.0cm

② 철제품(도면 33-②, 사진 75-②)

정방형에 가까운 철제판이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 안쪽에는 작은 철제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장식품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가로 8.5cm, 세로 8.7cm, 두께 0.4cm

③ 철제품(도면 33-③, 사진 76-①)

철술 뚜껑편으로 가장자리 부분이다. 상면에는 음각선 4줄이 돌려져 있다. 내외면에 부식이 심하고 가장자리가 일부 떨어져 나갔다. 현길이 14.0cm, 두께 0.4cm, 추정저경 29.2cm

④ 철정(도면 34-①, 사진 76-②)

鐵釘이다. 단면은 방형이다. 머리부분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한쪽으로 치우쳐 두드러졌다. 돌을 다듬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끝부분을 양쪽으로 두드려 뾰족하게 하였다.

길이 16.0cm, 두께 0.2~1.6cm, 너비 0.7~1.8cm, 머리 길이 3.7cm, 머리너비 2.9cm

⑤ 철정(도면 34-②, 사진 76-③)

鐵釘이다. 사진 76-②의 철정과 거의 같은 형태로 길이와 두께가 약간 작을 뿐이고 끝이 뾰족하게 잘 남아 있다. 길이 15.6cm, 두께 0.1~1.8cm, 너비 0.7~1.6cm, 머리길이 4.1cm, 머리너비 3.4cm

⑥ 철정(도면 34-③, 사진 77-①)

鐵釘이다. 단면은 원형이다. 끝으로 가면서 두께가 얇아지는데 머리부분과 끝이 잘려져 있다.

현길이 15.5cm, 두께 0.6cm

⑦ 철정(도면 34-④, 사진 77-②)

鐵釘이다. 부식상태가 심하고 머리부분이 약간 훼손되었다. 몸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고 마름모형으로 추정된다. 길이 10.8cm, 몸두께 0.5cm

⑧ 철정(도면 34-⑤, 사진 77-③)

鐵釘이다. 머리부분이 편평하고 몸의 두께는 일정하다. 끝부분은 마름모형으로 약간 다듬었다.

길이 10.2cm, 몸두께 0.7cm

⑨ 철정(도면 34-⑥, 사진 77-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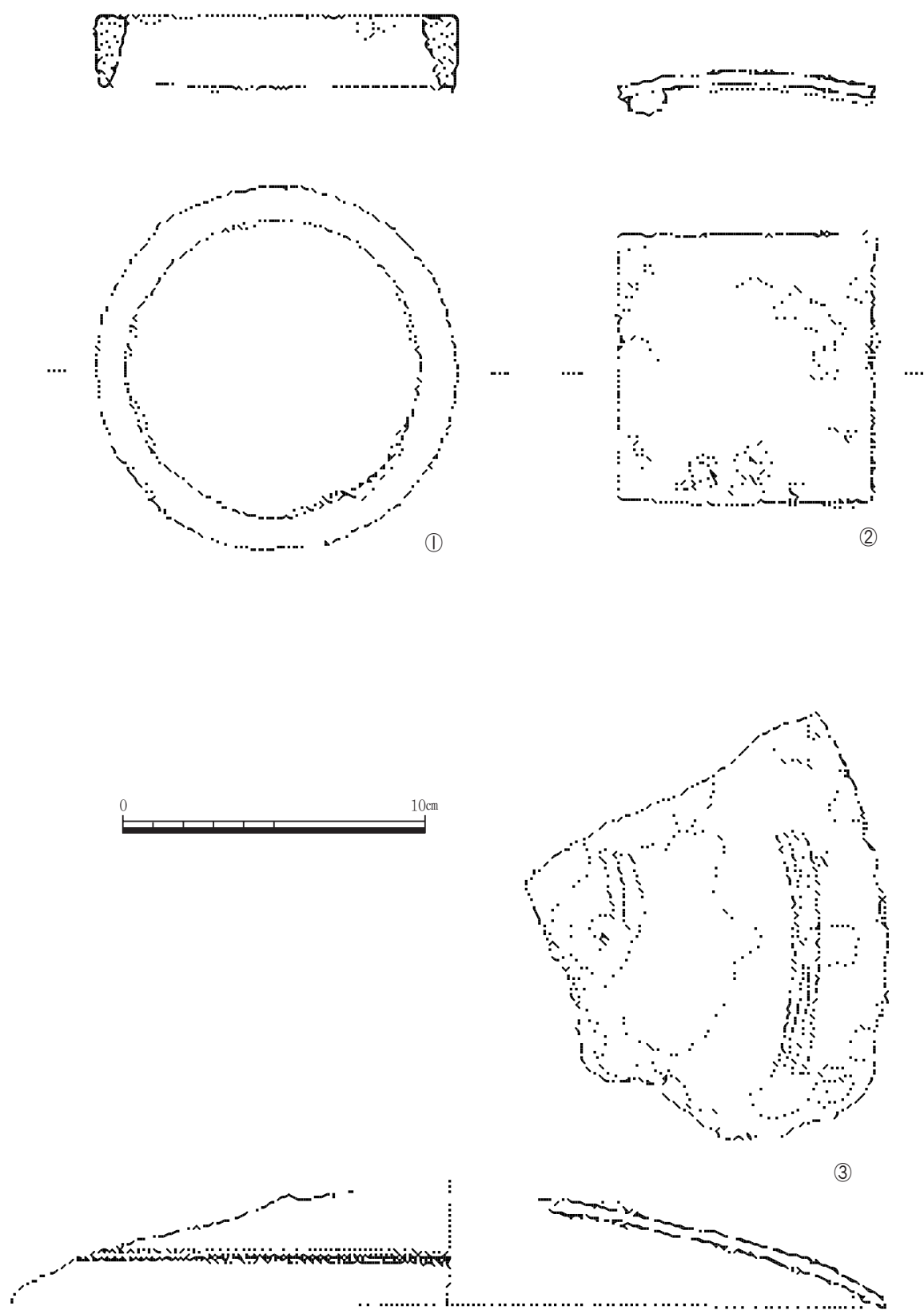
鐵釘이다. 머리부분은 둥근모양이고 몸부분은 방형으로 s자로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부식상태가 심해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10.4cm, 두께 0.4cm

⑩ 철정(도면 34-⑦, 사진 78-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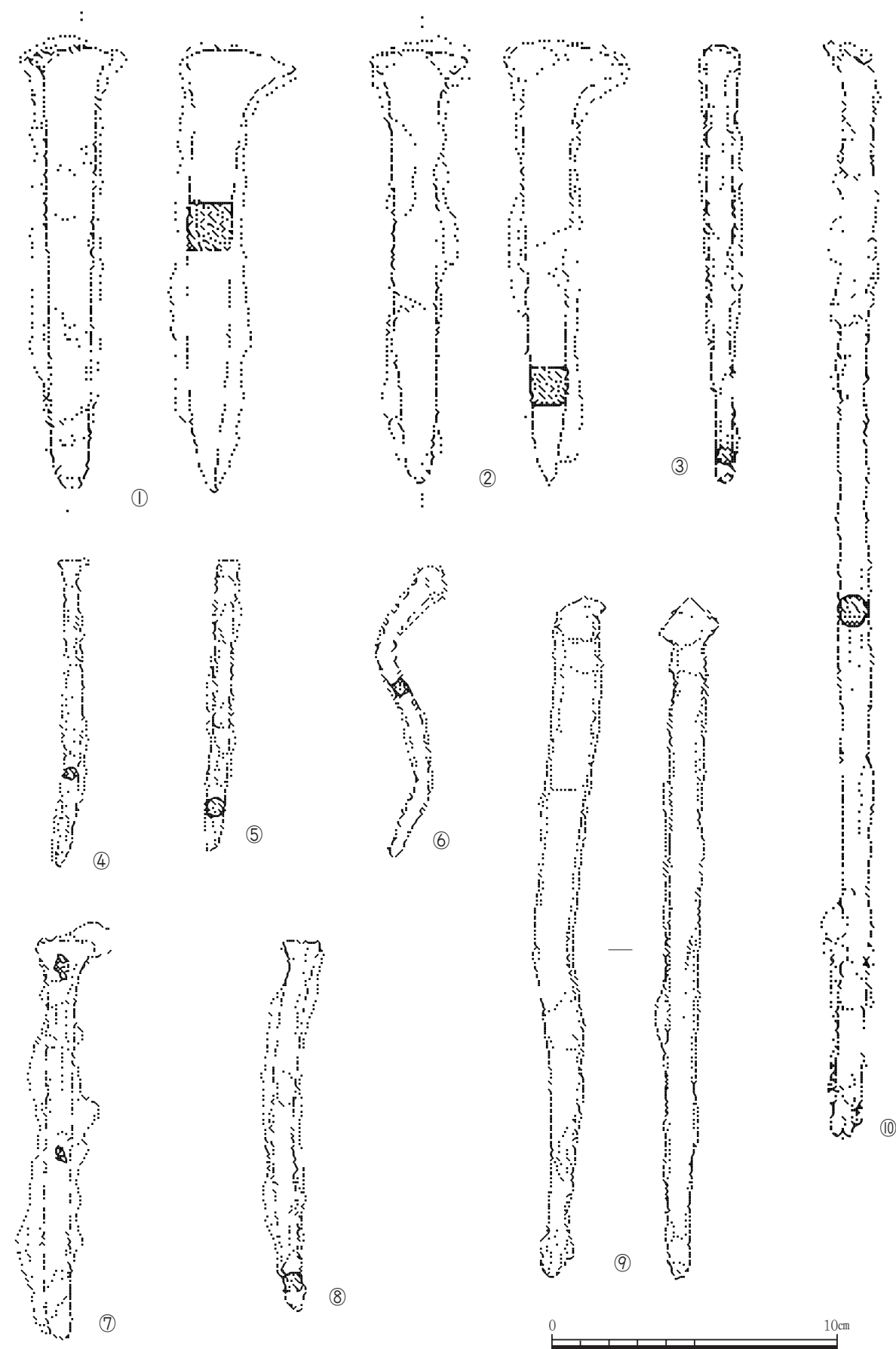
鐵釘이다. 머리부분은 정방형으로 몸통보다 넓고 몸부분은 원통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식이 심하고 굽은 사립이 많이 부착되어 있다. 현길이 14.7cm, 전체두께 2.4cm

⑪ 철정(도면 34-⑧, 사진 7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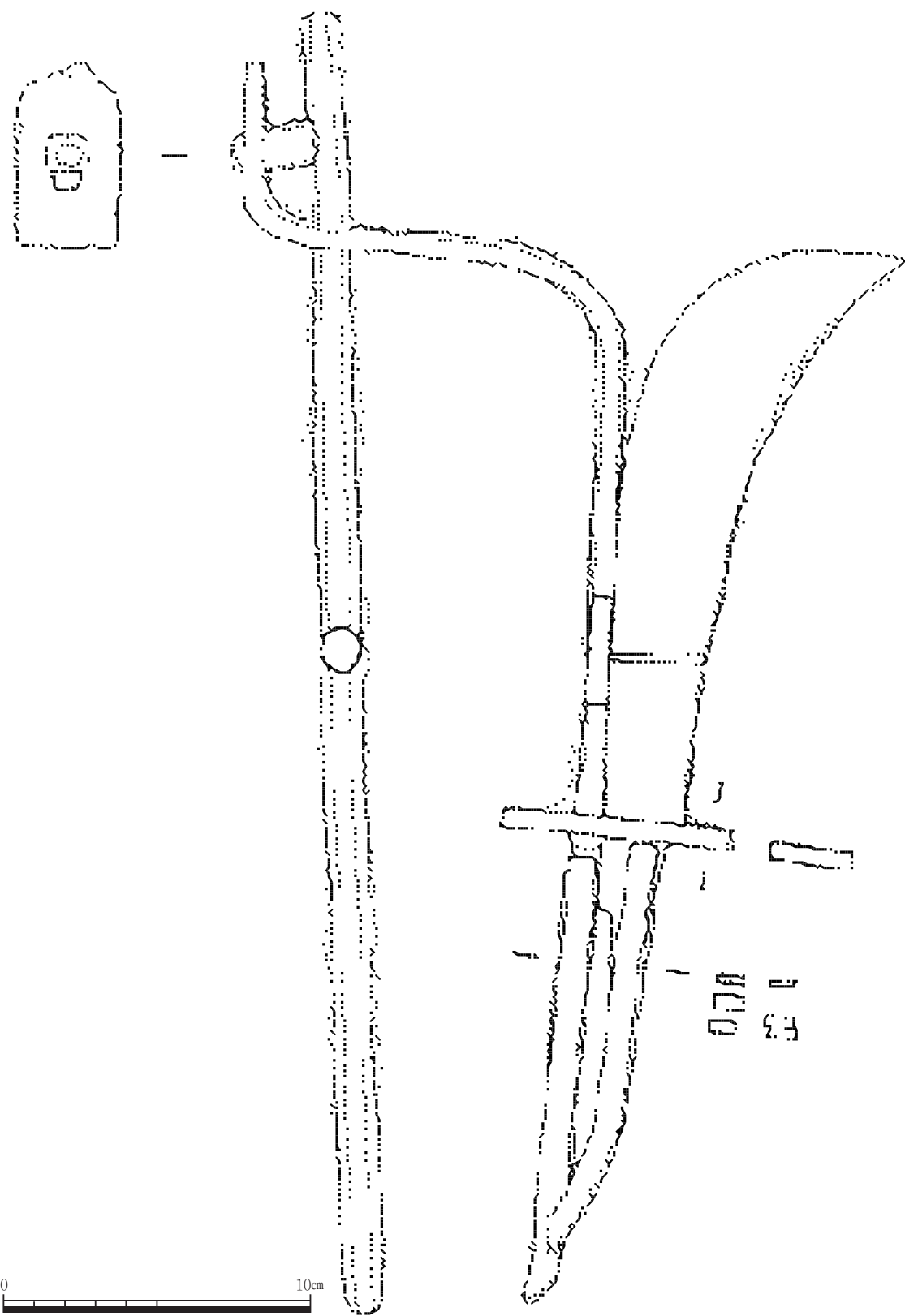
鐵釘이다. 머리부분은 부식이 심해 떨어져 나갔고 몸부분은 원통형으로 일정한 굽기로 이어진다. 끝부분은 한쪽면만 다듬었다. 현길이 13.0cm, 몸통지름 0.7cm



도면 33. 출토유물 - 철제품



도면 34. 출토유물 - 철제품



도면 35. 출토유물 - 철제품

⑫ 철정(도면 34-⑨, 사진 78-③)

鐵釘이다. 머리부분은 타원형 모양에 양끝을 뾰족하게 다듬었고 몸부분은 일정한 굵기로 그대로 내려간다. 중간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다. 부식이 심하며 끝부분은 탈락되었다. 현길이 18.7cm, 몸통두께 1.1cm

⑬ 철제품(도면 34-⑩, 사진 79)

용도미상의 긴 원통형 鐵 막대이다. 철심은 잘 남아 있다. 일제시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몸부분의 굵기는 1.5~1.7cm로 일정하다. 현길이 57.5cm

⑭ 취두박이(도면 35, 사진 80)

용마루를 고정하는 취두박이로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여 제작되었다.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길이 42.5cm, 지름1.3cm의 원형 철막대가 主 고정용이고 함께 접합되어 있는 칼모양 부분이 보조 장치이다. 칼 부분은 다시 2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칼은 巫俗에서 사용하는 칼과 형태가 비슷하고, 다른 사각 철근과 함께 접합하였으며 고정시키는 부분은 은 철편을 양쪽에 덧대 붙여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칼과 함께 접합된 사각철근은 ㄱ자형으로 구부려 원형철막대에 끼운후 다시 구부려 철근과 원형막대에 구멍을 뚫고 고정쇠를 끼워 접합시켰다. 표면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7) 鑄貨(사진 81)

‘나’ 지점에서 출토된 주화로 소재는 銅이 대부분이다.⁷⁾ 앞면 중앙에 ‘一錢’과 둘레에 ‘以百枚 換一圓’이 찍여 있고 菊花紋이 양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大日本・明治十八年(1885)・1 SEN’이 새겨져 있으며 龍紋樣이 양각되었다. 지름 2.75cm, 두께 0.15cm

7) 화폐박물관에 문의한 결과 동전의 성분은 구리 98%, 주석 1%, 아연 1%이고, 표준 무게는 7.13g, 표준 지름 27.87mm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V. 考察

1. 遺構

화령전은 1801년 건립되어 일제시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1960년대에 신풍 초등학교의 확장과정에서 건물의 일부가 毀撤 되었다. 화령전 유적 발굴조사는 현재 유실된 화령전 부속건물의 원형을 파악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유적을 고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단은 발굴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유실된 부속건물이 典祀廳, 香大廳, 祭器庫이고 그 위치는 ‘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제기고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 도로와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물지 발굴조사는 전사청과 향대청 자리에 국한하여 진행되었고 중요발굴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점 건물지는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두텁게 진행한 후 치석된 경계석을 주위에 돌리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 건물지에 남아 있는 적심은 2열의 연속기초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방형의 초석을 놓고 강회다짐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심의 배열로 보아 측면 1칸의 건물이 일자형으로 세워졌고 건물중간에 半間이 남측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적심들이 북측 경계석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은 남향을 하고 퇴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남측의 넓은 공간에 출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 2열 세번째 적심자리가 비워져 있어 건물의 복원과 관계하여 추후 정밀한 건축학적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건물지의 용도는 전사청과 향대청으로 사용된 복합건물로 판단되는데 1876년 수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5칸의 전사청과 3칸 이상의 향대청이 한 건물에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기고는 현재 도로와 신풍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된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대한 조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령전 외곽 담장 중 유실된 남쪽 담장은 『一万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에 표현된 형태를 고려할 때 신풍초등학교 방향으로 연장되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담장의 축조방식은 출토유물로 미뤄볼 때 석축 담장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 주변 지형이 화령전 영건 당시보다 상당히 높아졌고 담장 옆으로 흐르던 溝渠의 流路가 변경되어 도로를 따라 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복원공사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물은 화령전 祭儀에 필요한 祭需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用水를 확보하기 위해 굴착한 祭井이다. 평면은 정방형의 형태이며 52개(한쪽 면 13개)의 장대석을 치밀하게 쌓아 올려 축조하였다. 석재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3면을 치석한 후 결구되는 곳을 조정하여 맞췄던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 끝이 거칠게 처리되어 있고 반대쪽 면은 거칠게 떼어낸 상태이다. 그런데 13번째 남측 돌은 다른 돌과 달리 6면을 모두 다듬었고 동측 돌과의 결구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축조 당시의 지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물의 암거시설은 2회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그 방향을 고려할 때 우물의 동남측 모서리에서 시작되어 동남향으로 이어진 후 외곽담장 석렬을 따라 배수구가 시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물주변의 성토층은 점질토와 사질토를 연속적으로 포설(鋪設)하면서 회를 섞어 매우 정성들여 다진 층으로 판촉처럼 단단하다. 이러한 성토층은 정전 뒤의 가산(假山)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과 함께 팔달산으로부터

터 토사가 우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며, 건물지 성토층에 비해 더 두껍게 시설되었다.

‘나’ 지점은 당초 부속건물 가운데 제기고나 향대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발굴조사지점으로 계획하였으나 발굴 결과 일제시기에 건축된 ‘서양식’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一万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에도 이곳은 빈 공간으로 나타나 있어 제기고 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재실 옆에 세워진 ‘나’ 지점의 건물지는 일제시기에 행해진 화령전의 훼손이 건물의 직접적인 훼손보다는 별도의 건물을 화령전내에 신축하여 화령전 본래의 용도에 변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才人廳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도 일제시기에 무단으로 풍화당과 이 건물에 거주하던 재인들의 주장으로 추측된다.

2. 遺物

출토유물은 백자편을 비롯하여 도기편, 와전류, 석재 건축자재, 철기류, 주화등이 있다. 백자와 도기들은 화령전 祭儀에 사용되던 祭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사청에서 祭需 준비에 사용되었던 것들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점은 화령전에서 보관하였던 祭器가 『華寧殿應行節目』「祭器」조에 보면 銀器와 鍮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銅器, 鐵製 鑄造品, 木器, 沙器 등이 소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시기에 正祖御眞을 서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제기들도 함께 옮겨갔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습된 자기는 모두 백자이며 제기가 ¼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자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명문이 있는 자기는 3점으로 ‘太’자와 ‘五’자를 彫琢한 자기와 청화로 ‘壽’자를 쓴 자기가 있다. 또한 흑유자기편이 1점 출토되어 이번에 출토된 자기 가운데 화령전에서 관리하던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기들은 모두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화령전 건립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하여 비치하였던 것으로 짐작되고 나머지 제기들도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되었고 16세기에 제작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도기편은 조선후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으로 백자와 마찬가지로 제의 준비에 사용되었던 器物로 보인다. 기종은 단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쟁반과 뚜껑편이 일부 출토되었다. 뚜껑류에는 암문이 시문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고온에서 번조한 경질도기이다.

기와는 제토과정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나 복토층과 교란층에서 대부분 수습되었다. 수키와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滄海波紋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골문, 집선문, 반원문 등이 있다. 명문은 ‘崇貞紀元後’의 양각명문이 1점 확인되었는데 禎자의 示변을 생략하여 貞으로 하였다. 암키와는 대개 민무늬이며 명문은 ‘一’자와 ‘本’자가 음각되어 있으며 일제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수기와는 암막새가 소량 출토되었는데 연화문과 당초문이 양각되어 있다. 연질기와로 마모가 심한 편이어서 화령전 건립 당시의 기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전돌은 정방형의 완형 전돌 2점을 비롯하여 각종의 부전돌과 벽전돌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부전돌은 완형 2점이 경질인데 비해 편 2점은 연질이다. 건물지에 장방형의 박석이 남아 있고 건물지 경계석이 3~4cm 정도만 깎여 있는 상태여서 건물지에 부전돌을 깔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출토된 완형의 부전돌은 두께가 5cm 이상이고 다른 전돌편은 7cm정도로 두꺼워 박석을 깔았을 가능성이 있다. 벽전돌은 모두 경질로서 담장주변과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이로써 석담의 상층부와 건물지 벽체에 벽전돌을 일부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용 석제품들은 모두 제토과정에서 출토되었다. 벽체로 만든 박공벽의 장식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부재로 보이는 석제품은 한쪽 면을 원형으로 다듬고 반대쪽은 거칠게 떼어낸 상태로 1점이 출토되어 건물의 박공이 풍화당과 마찬가지로 벽체박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장기초석렬 주변에서는 四塊石과 원형의 心石 2점이 출토되어 외곽담장이 석담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철제품은 鐵釘, 쇠못 등이 출토되었으며 문지들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형의 철제품도 출토되었다. 철제품들은 표면의 부식이 심하지만 철심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철제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물 발굴조사시에 암거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출토된 취두박이 1점이다. 취두박이는 건물의 용마루를 마감하는 일종의 瓦釘으로 운한각 용마루에 1점이 있다. 이번에 출토된 취두박이는 건물지 용마루 마감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밖에 ‘나’ 지점 건물지에서 출토된 동전은 1885년에 제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구한말에 국내에서 제조된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유입은 주로 한일합방 이후에 이루어져서 해방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 지점의 건물지는 일제시기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Ⅵ. 결론 - 화령전 유적 복원에 대한 조사단 의견

‘가’ 지점은 우물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배수시설이 건물지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우물지에 대한 추가발굴 결과 암거시설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암거는 극심하게 파괴되어 건물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향후 복원과정에서는 잔존 암거 옆으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령전 건립과정에서 두껍게 鋪設한 성토층은 雨水의 상당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성토층 위에 건립된 ‘가’ 지점 건물지는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상태로 적심의 배열형태상 1동의 건물지로 판단된다. 다만 적심의 배열과 문헌자료에 나타난 전사청의 규모(5칸), 주민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물은 전사청과 향대청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던 복합건물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 서측의 경계석 배치 형태는 동측과 대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곽담장 옆으로 이동된 경계석과 남측에 뒤집혀 있는 것을 이용하면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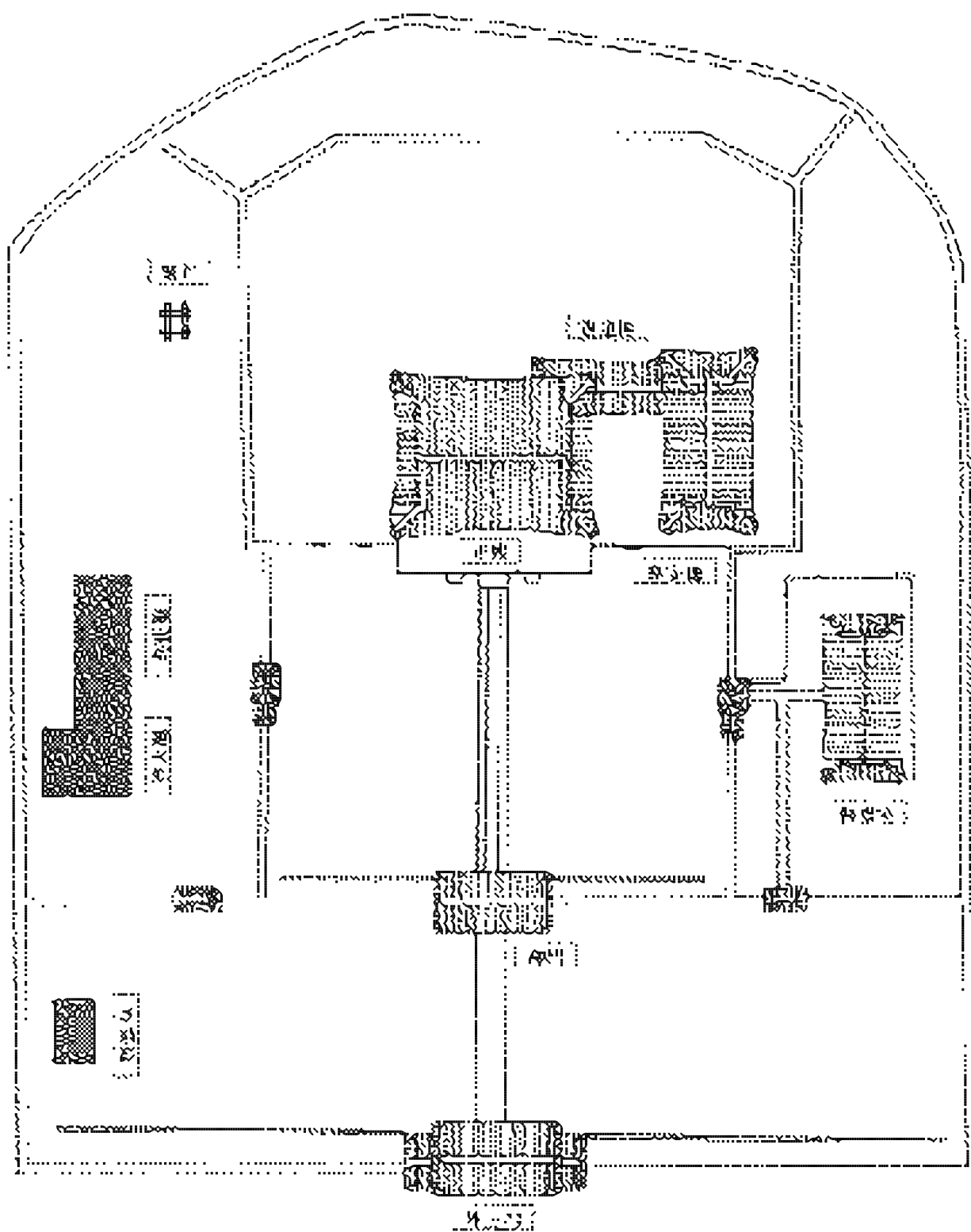
제1단과 제3단의 경계석은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2단의 경계석은 후대에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계석들은 건물지 서쪽 경계석과 연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체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경계석의 올바른 위치를 잡아야 할 것이다.

외곽담장 역시 담장의 기초석렬이 장대석까지 잘 남아 있어 복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장의 형태는 석담을 기본으로 心石도 사용하였으며 벽전돌을 상부에 쌓고 기와를 엮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물에 씌우는 덮개돌은 예정대로 시설하여도 무방하며 다만 우물 옆으로 시설할 ㄷ 자형 석축은 남북측 폭을 넓히고, 후면의 석축은 미관을 고려하여 1단을 낮춰 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우물 주변에 8각형으로 시설된 장대석들은 원래 시설된 것이 아니고 제 1단 경계석을 옮겨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 1단 경계석 주변으로 치운 후 정확한 고증을 거친 후 복원공사시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지점의 경우는 화령전 건립 당시의 시설물이 아닌 일제시기에 건축되어 풍화당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와 무단으로 거주한 才人들이 사용하였을 건물로 추정되는 만큼 복원대상이 아니다. 풍화당 옆에 지어진 화장실도 重夾門 밖으로 이전하여 엄숙한 사당으로서의 화령전으로 그 원형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사 진



도면 36. 화령전 유적 추정 복원도



사진 1. 화령전 전경



사진 2. '가' 지점 조사전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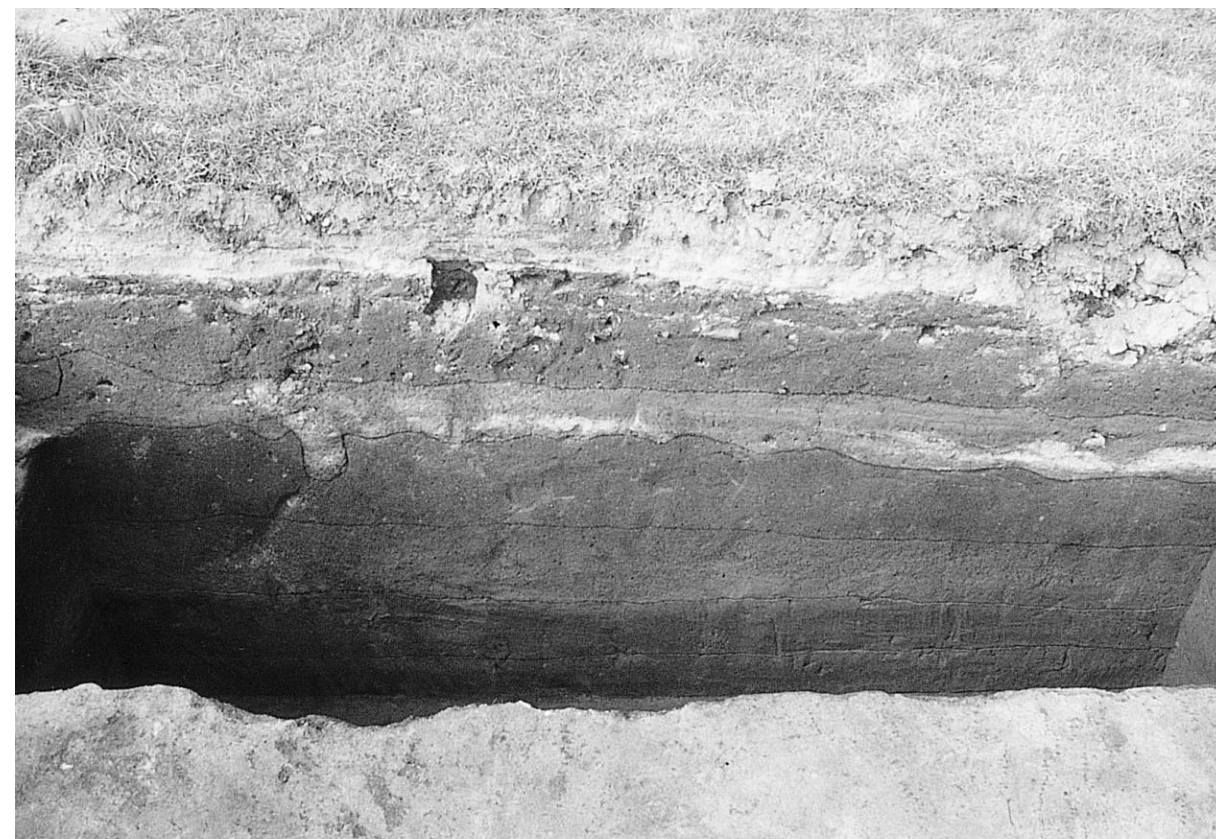


사진 3. '가' 지점 토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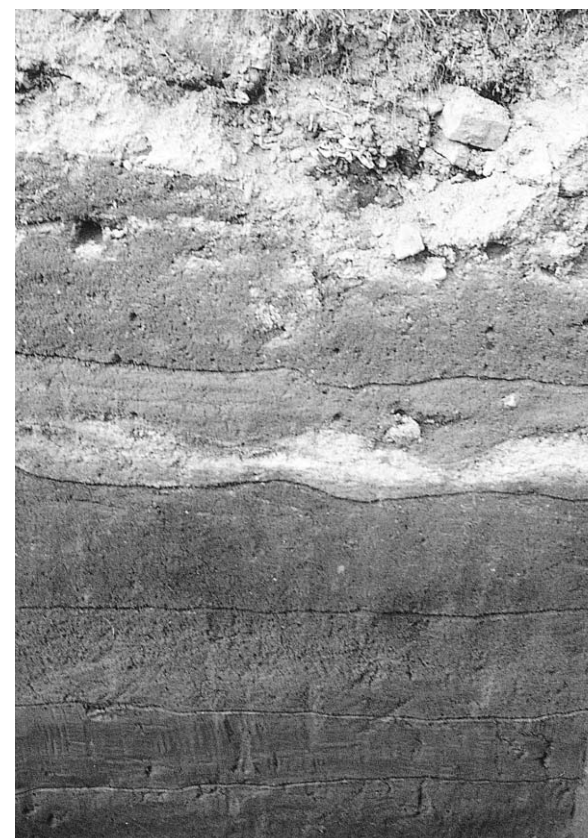


사진 4. '가' 지점 토층상태 세부



사진 5. '가' 지점 우물 서측 트렌치 토층상태



사진 6. '가' 지점 우물 남측 토층상태



사진 8. '가' 지점 건물지 북측 경계석 전경



사진 7. '가' 지점 건물지 전경



사진 9. '가' 지점 건물지 남측 경계석 전경



사진 10. '가' 지점 건물지 남측 경계석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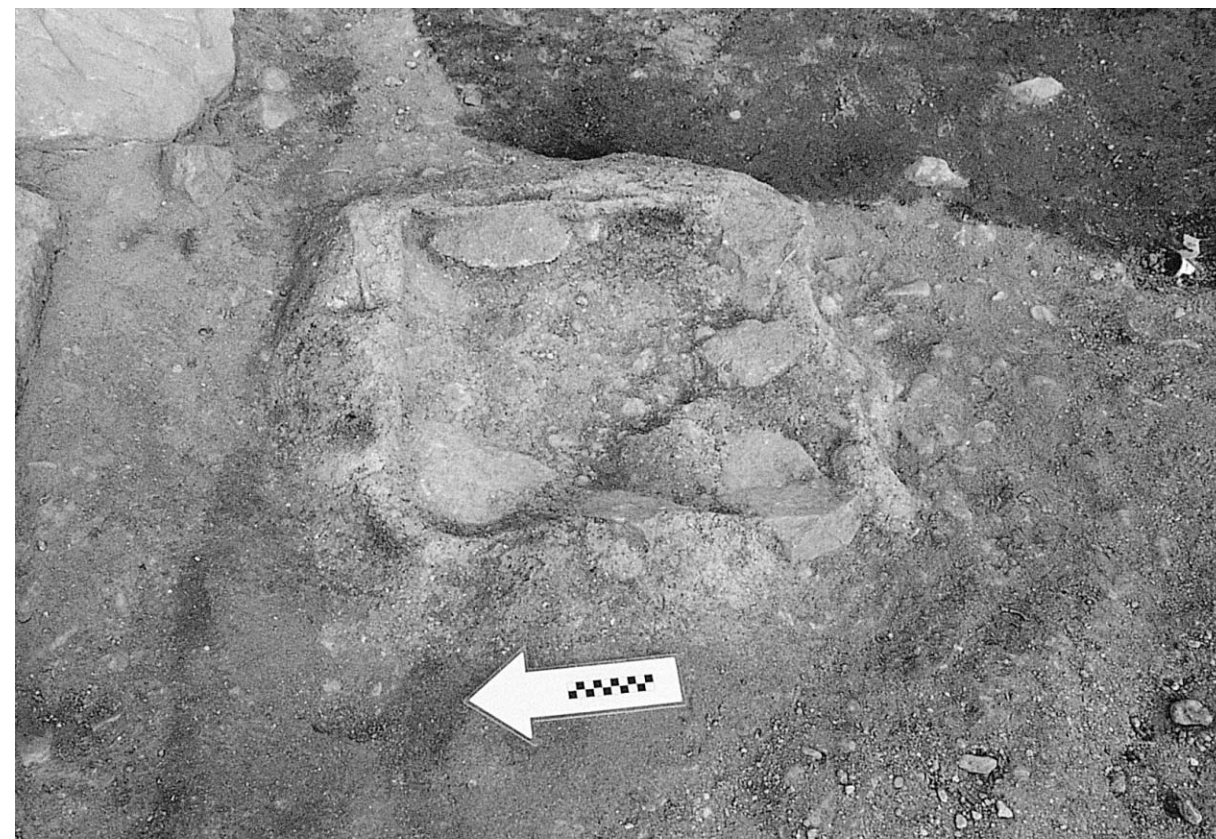


사진 12. '가' 지점 건물지 적심③



사진 11. '가' 지점 건물지 동측 경계석 전경



사진 13. '가' 지점 건물지 적심⑦과 고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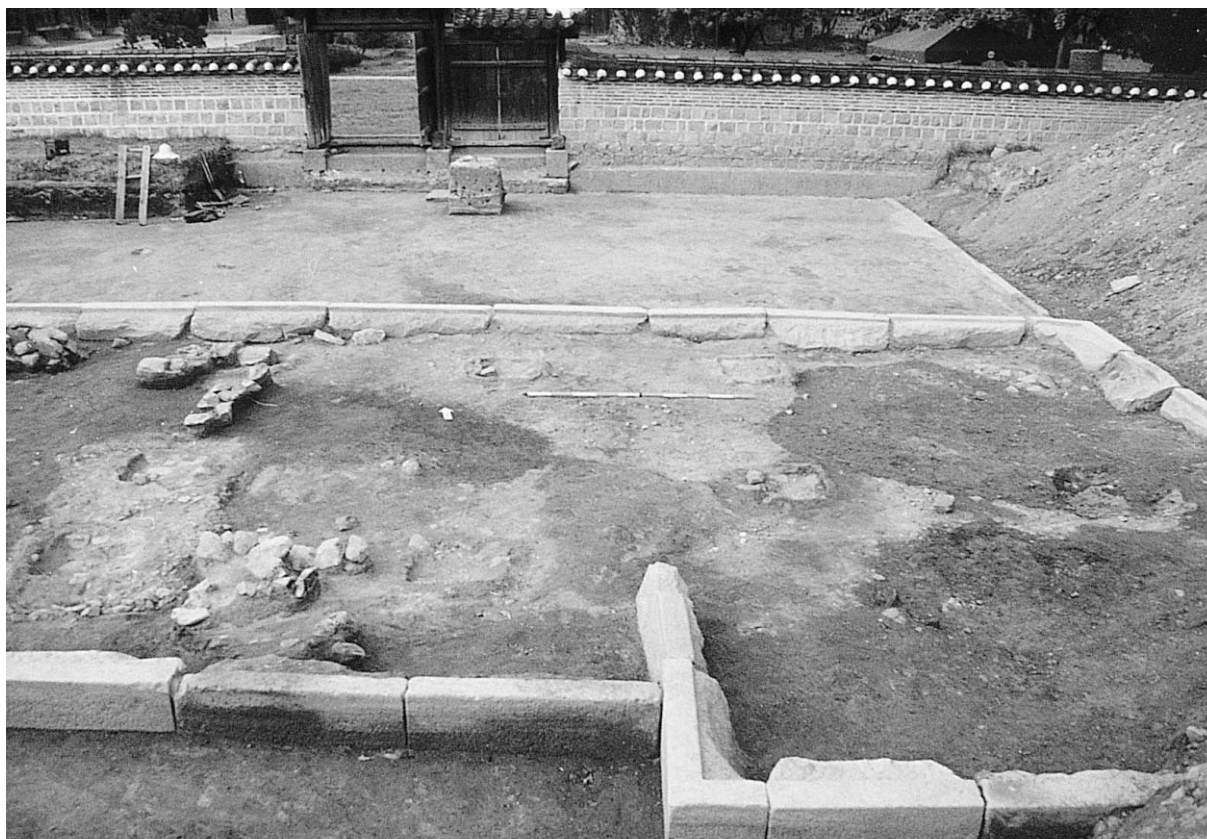


사진 14. '가' 지점 건물지 동측 전경



사진 15. '가' 지점 건물지 서측 전경



사진 16. '가' 지점 건물지 적심 기초 절개상태



사진 17. '가' 지점 건물지 적심 기초 바닥상태



사진 18. '가' 지점 적심 기초 제 2열 트렌치



사진 20. '가' 지점 건물지내 연탄아궁이



사진 19. '가' 지점 건물지내 석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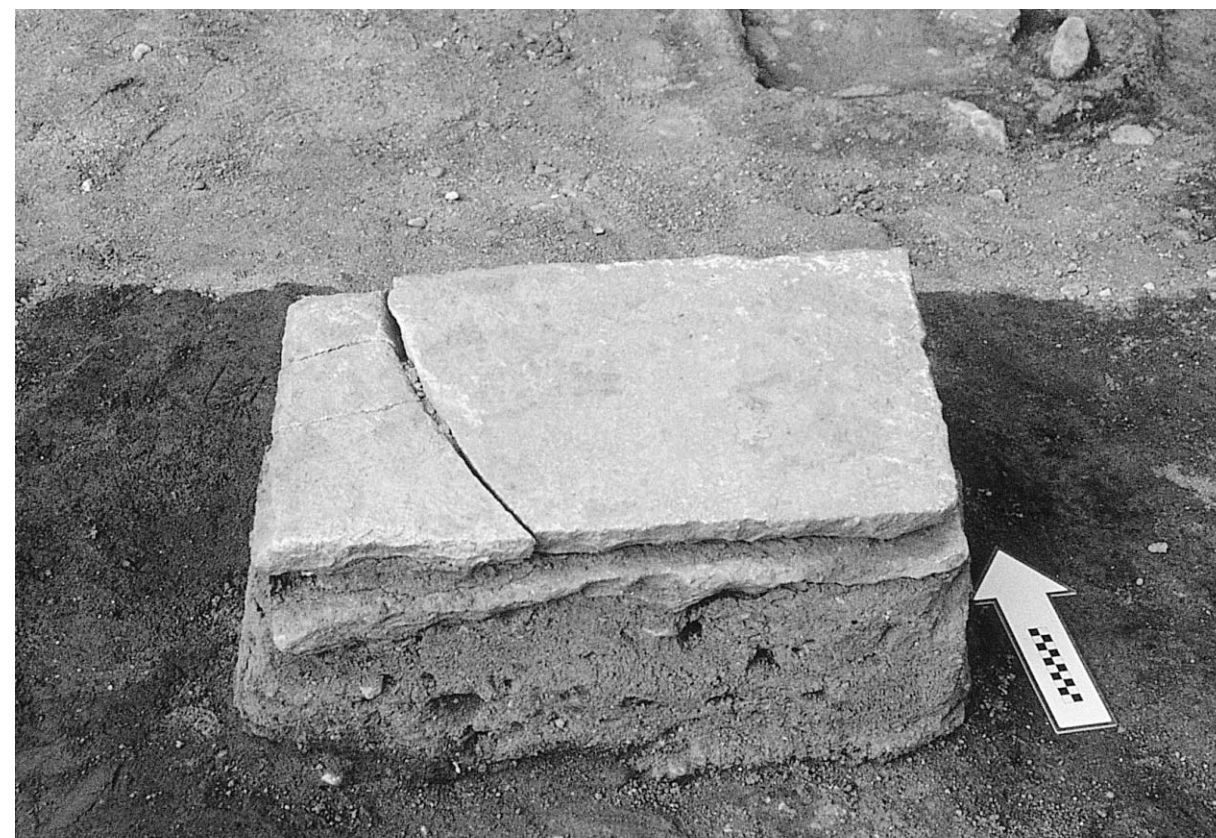


사진 21. '가' 지점 건물지내 薄石



사진 22.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 석렬 노출상태



사진 23.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 석렬 세부



사진 24. '가' 지점 외곽 담장 기초 석렬 축조상태



사진 25. '가' 지점 우물 전경



사진 26. '가' 지점 우물 내부광경



사진 28. '가' 지점 우물 동측 입면상태



사진 27. '가' 지점 우물 동남측 결구상태



사진 29. '가' 지점 우물 남측 입면상태



사진 30. '가' 지점 우물 동측 트렌치 전경



사진 32. '가' 지점 우물 동남측 암거 노출상태



사진 31. '가' 지점 우물 남측 트렌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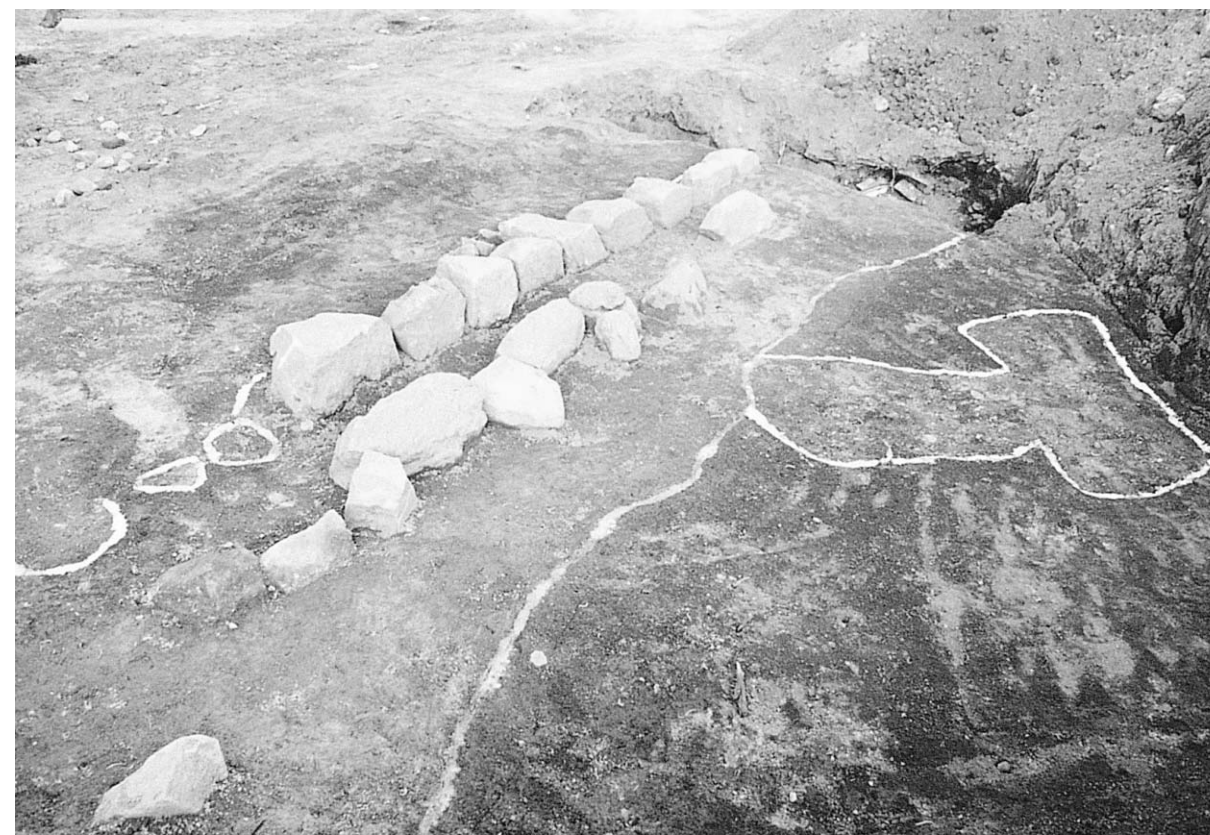


사진 33. '가' 지점 우물 동남측 암거주변 노출상태



사진 34. '가' 지점 우물 암거 트렌치 토층상태



사진 36. '가' 지점 누조석



사진 35. '가' 지점 제 1단 기단석



사진 37. '가' 지점 제 2단 북측 기단석



사진 38. '가' 지점 제 2단 남측 기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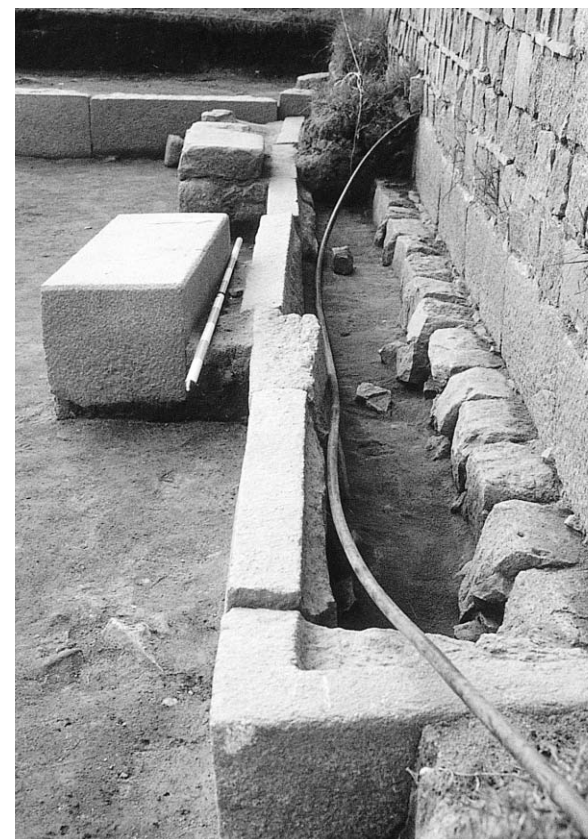


사진 40. '가' 지점 건물지 북서측 경계석



사진 39. '가' 지점 제 3단 기단석



사진 41. '가' 지점 건물지 남측 경계석



사진 42. '나' 지점 건물지 전경



사진 44. '나' 지점 남측석렬 세부



사진 43. '나' 지점 건물지 남측 석렬 전경



사진 45. '나' 지점 건물지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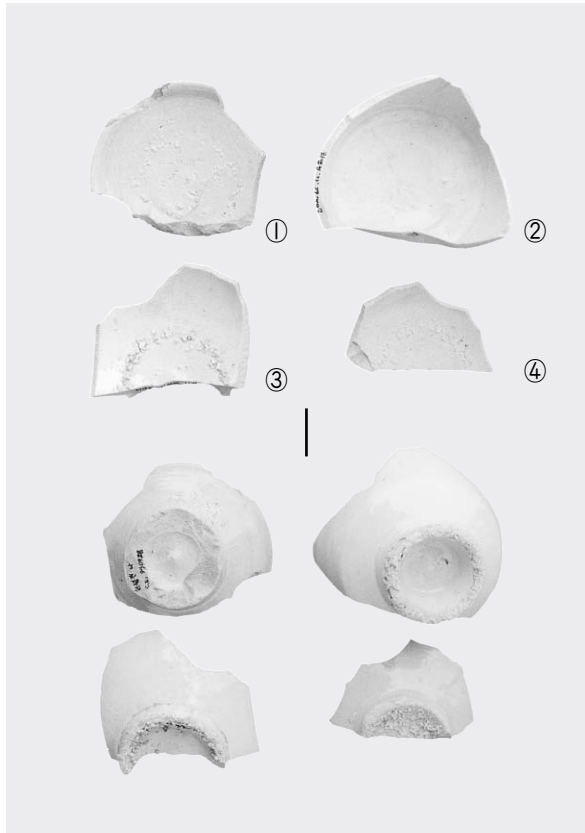


사진 46. 출토유물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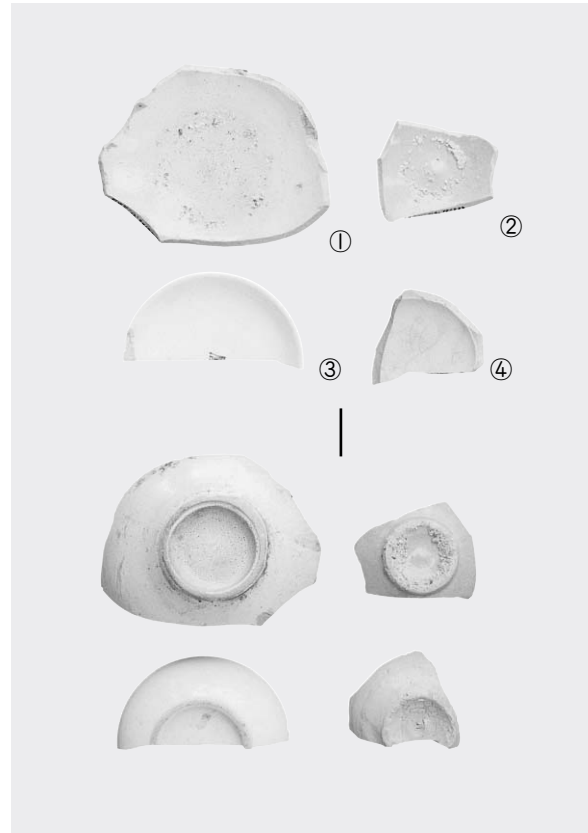


사진 47. 출토유물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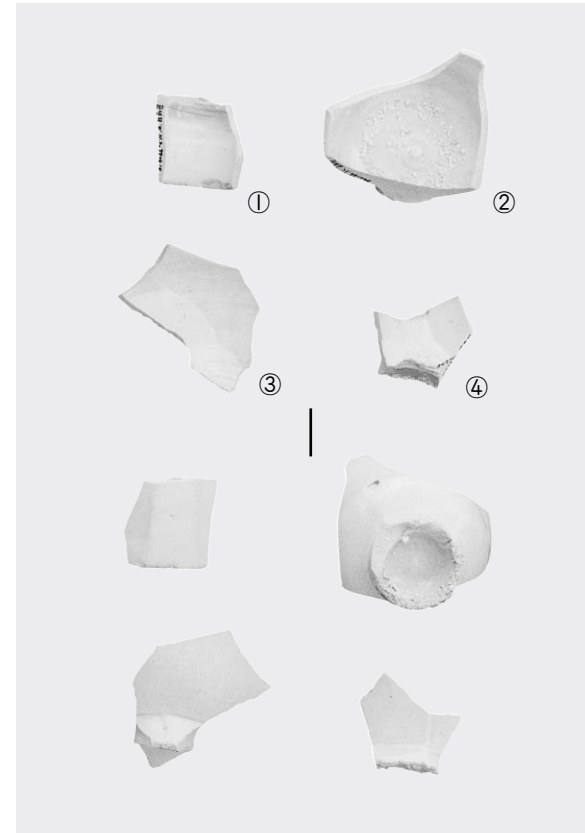


사진 50. 출토유물 - 자기류



사진 51. 출토유물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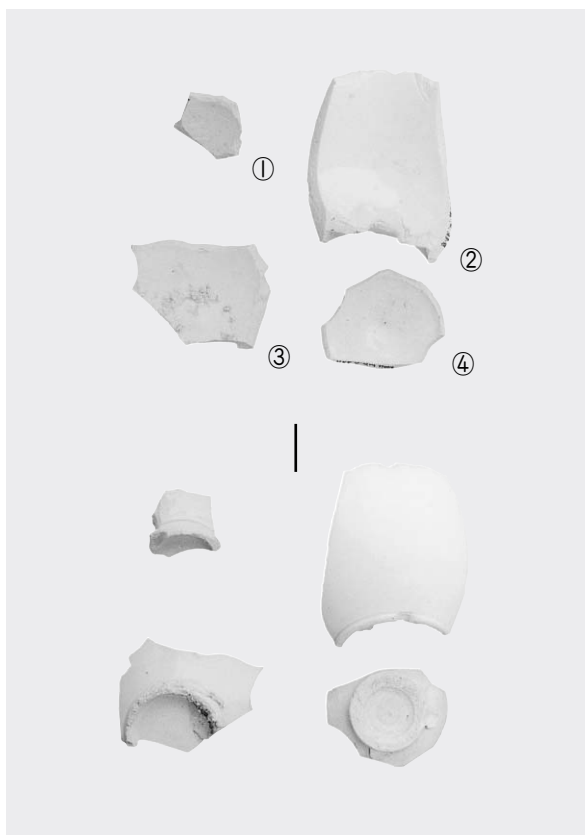


사진 48. 출토유물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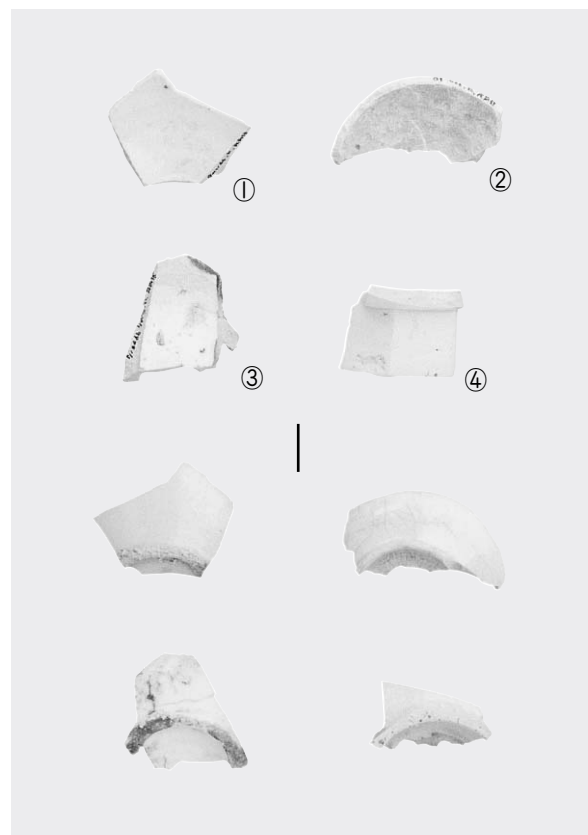


사진 49. 출토유물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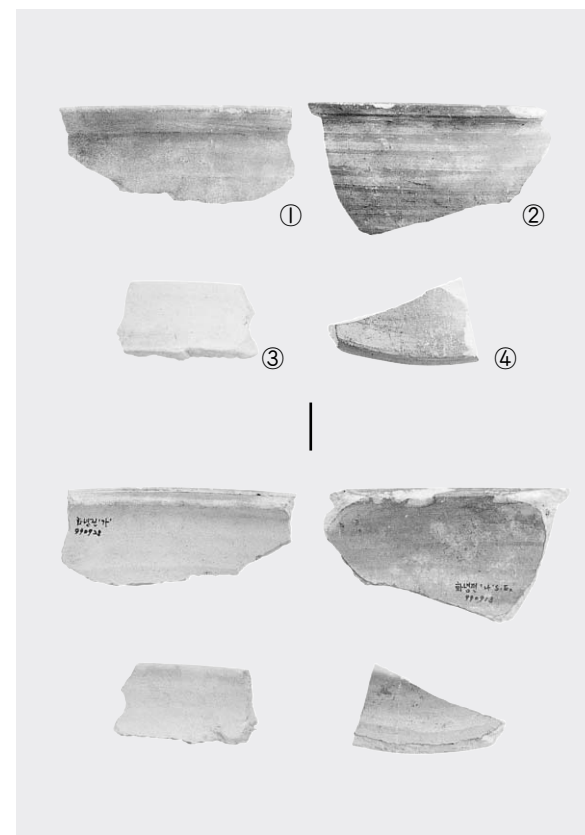


사진 52. 출토유물 - 도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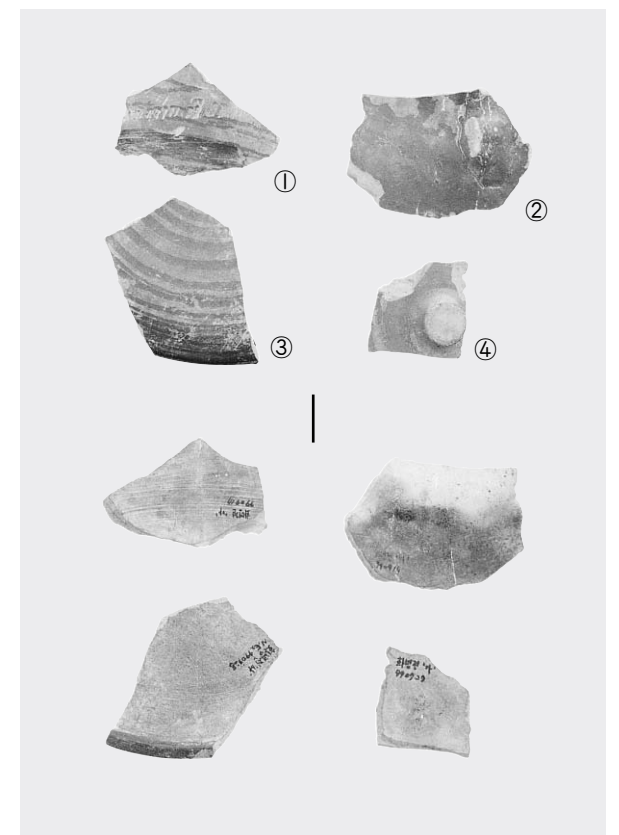


사진 53. 출토유물 - 도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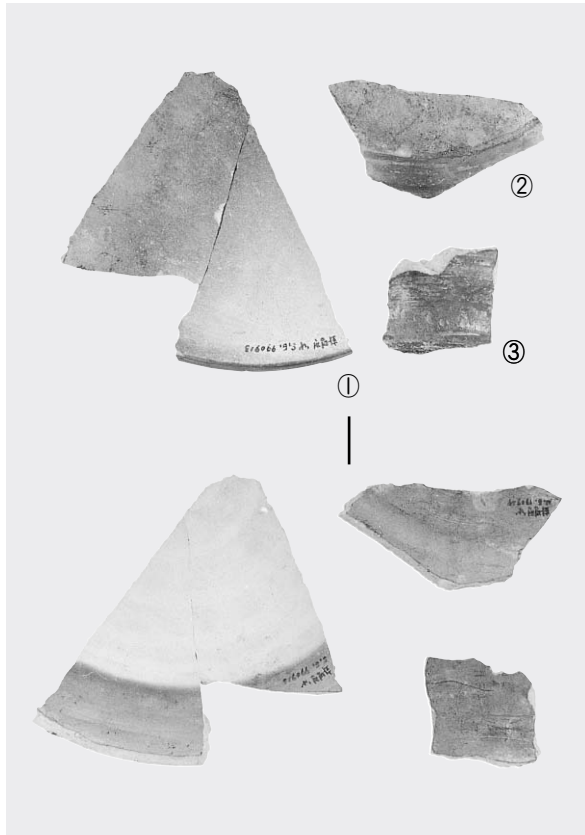


사진 54. 출토유물 - 도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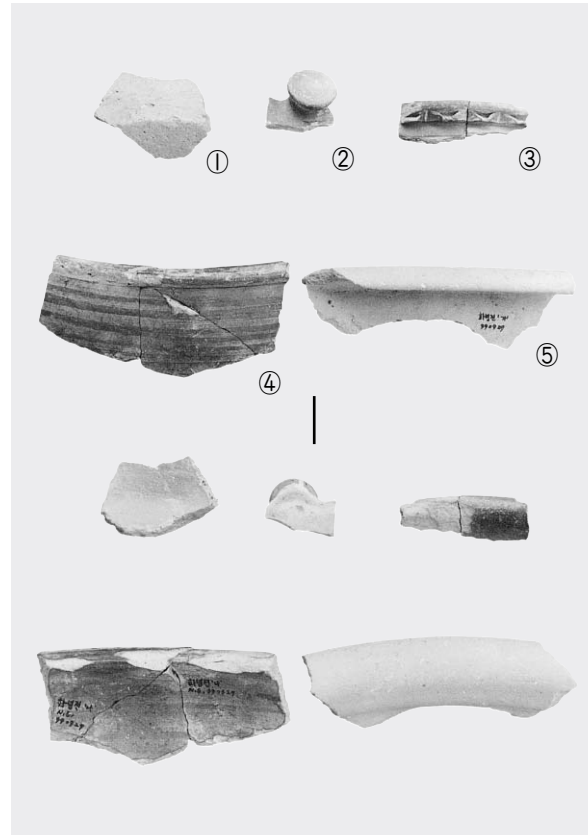


사진 55. 출토유물 - 도기류



사진 59. 출토유물 - 전돌류



사진 60. 출토유물 - 전돌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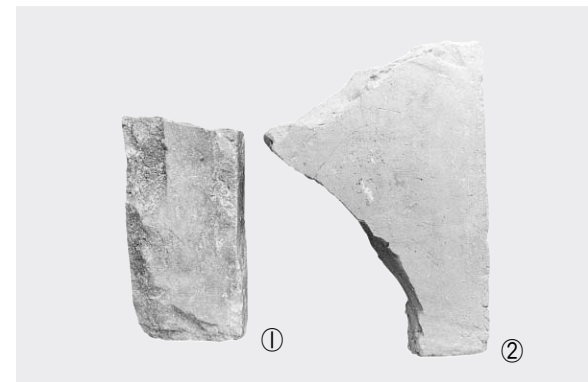


사진 61. 출토유물 - 전돌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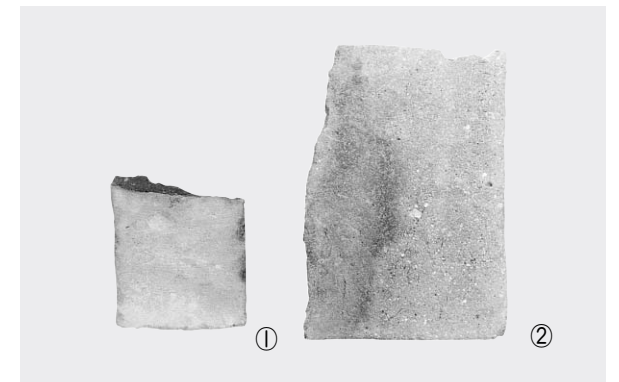


사진 62.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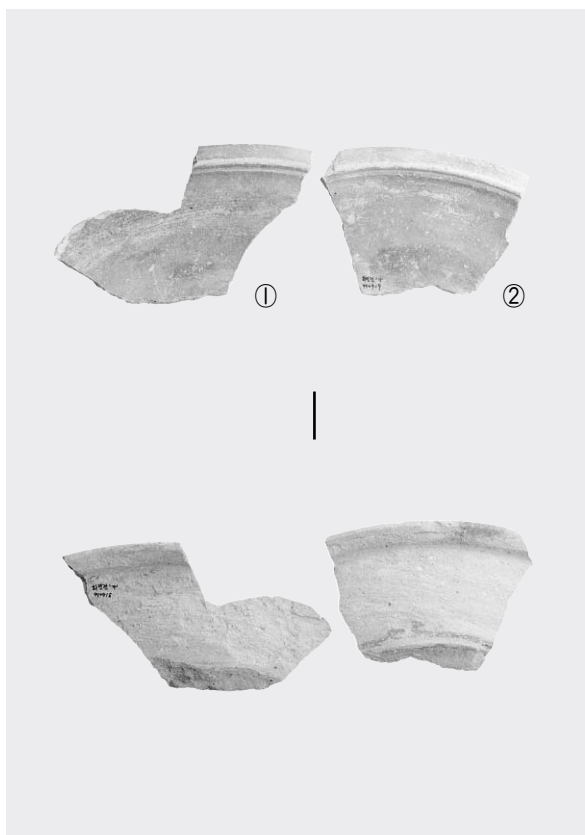


사진 56. 출토유물 - 도기류



上 사진 57. 下 사진 58. 출토유물 - 전돌류



사진 63.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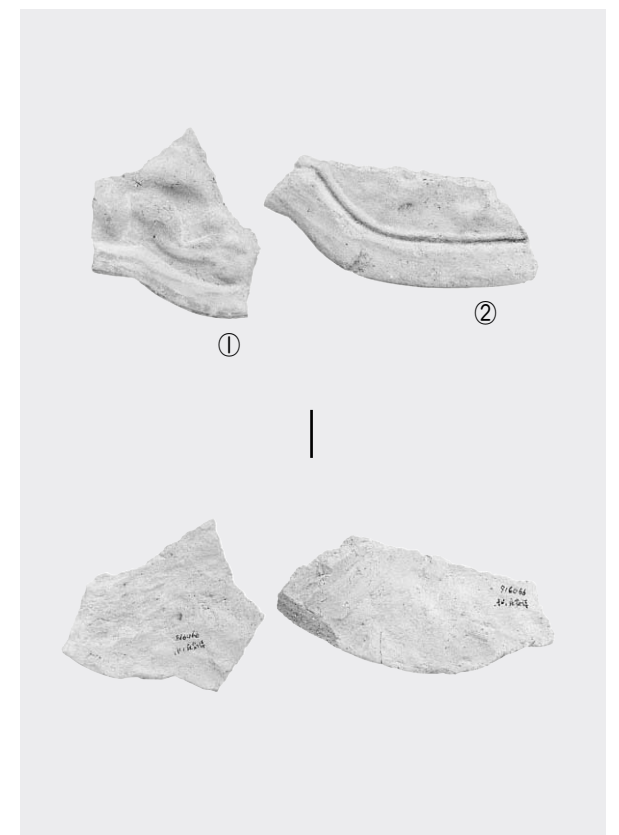


사진 64.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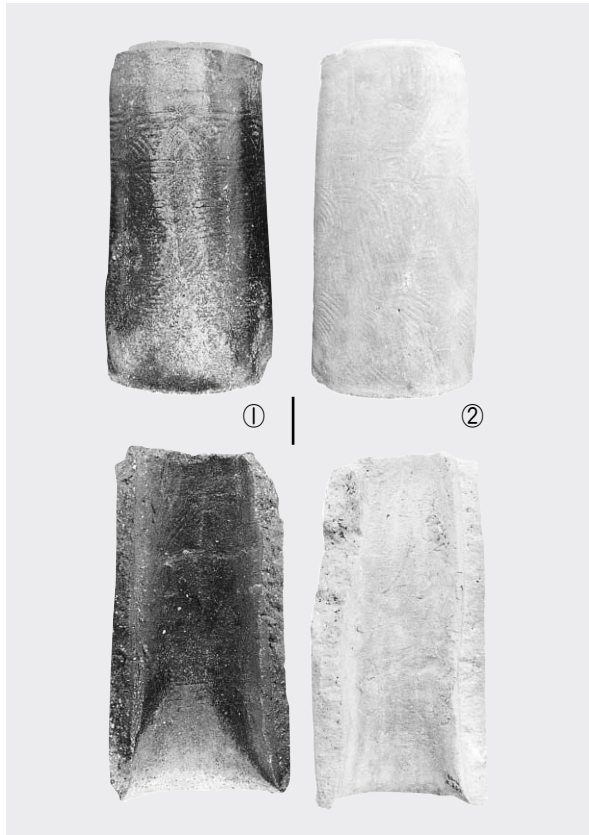


사진 65.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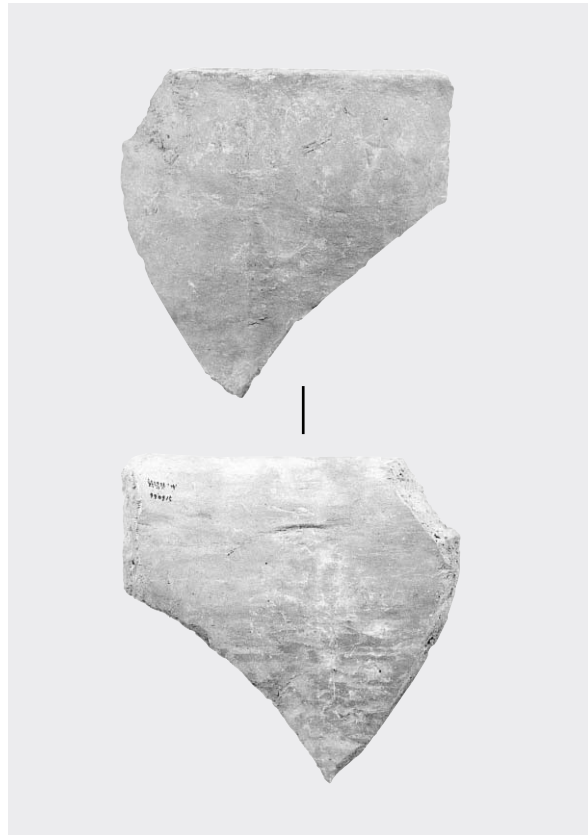


사진 66.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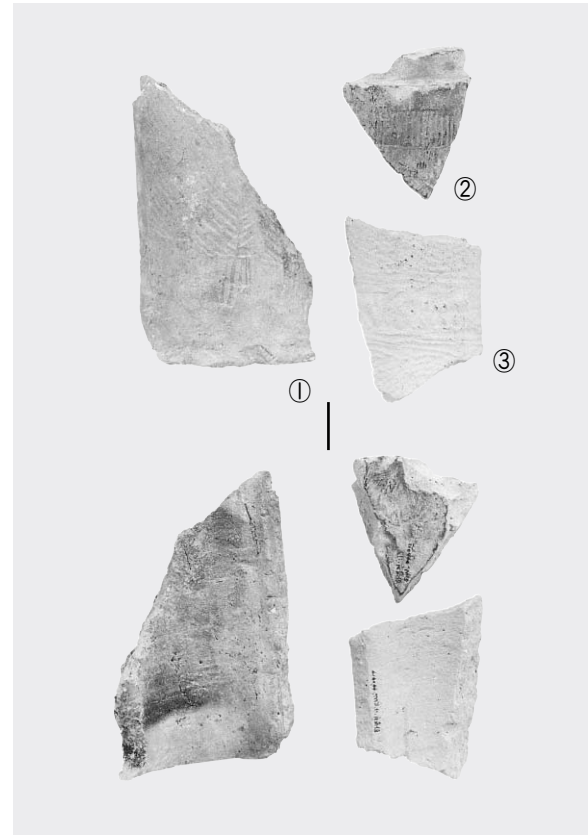


사진 68.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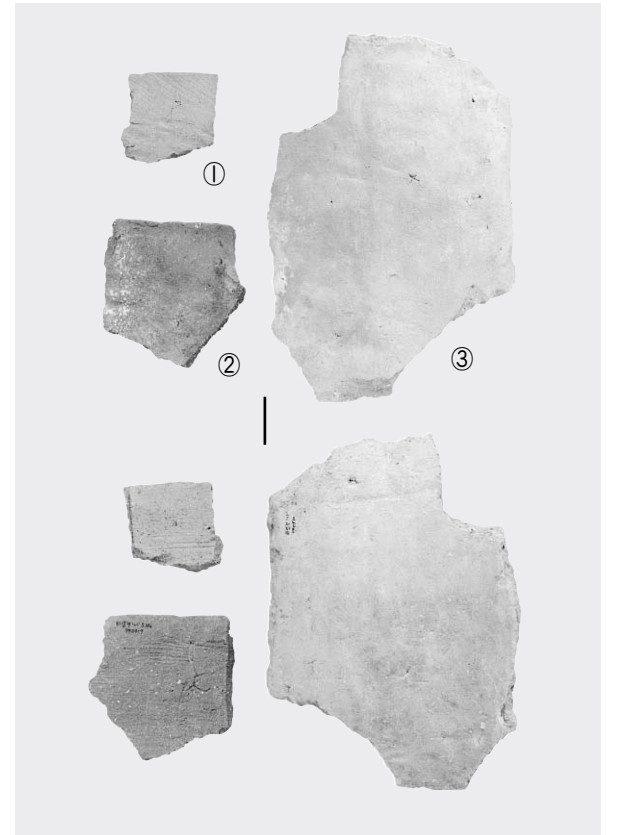


사진 69.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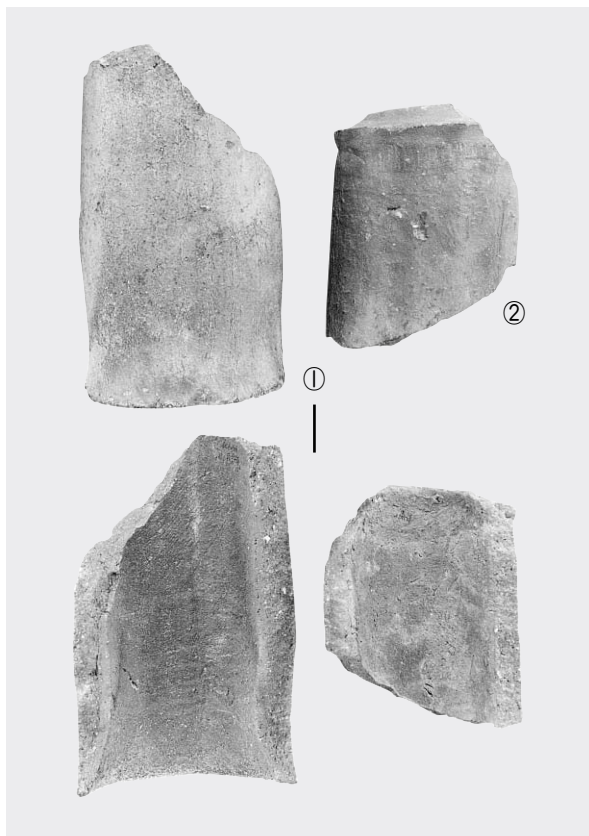


사진 67. 출토유물 - 기와류



사진 67-②.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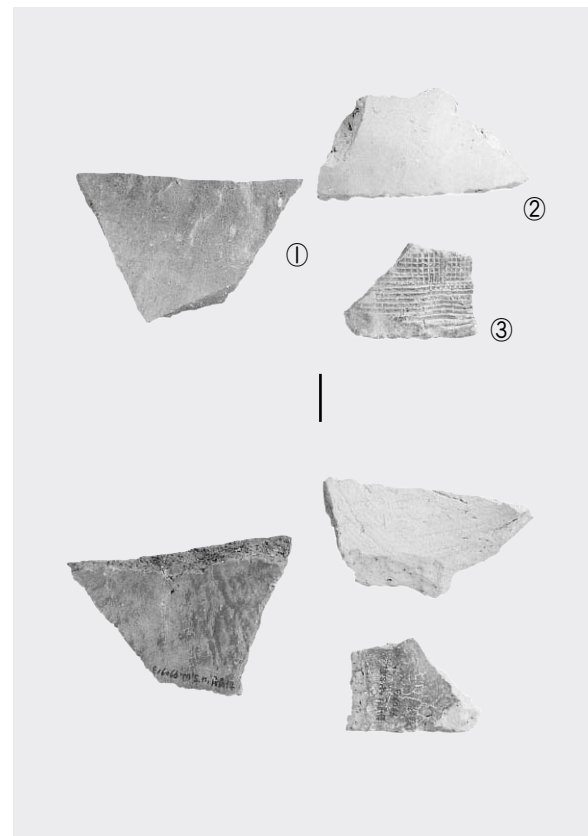


사진 70. 출토유물 -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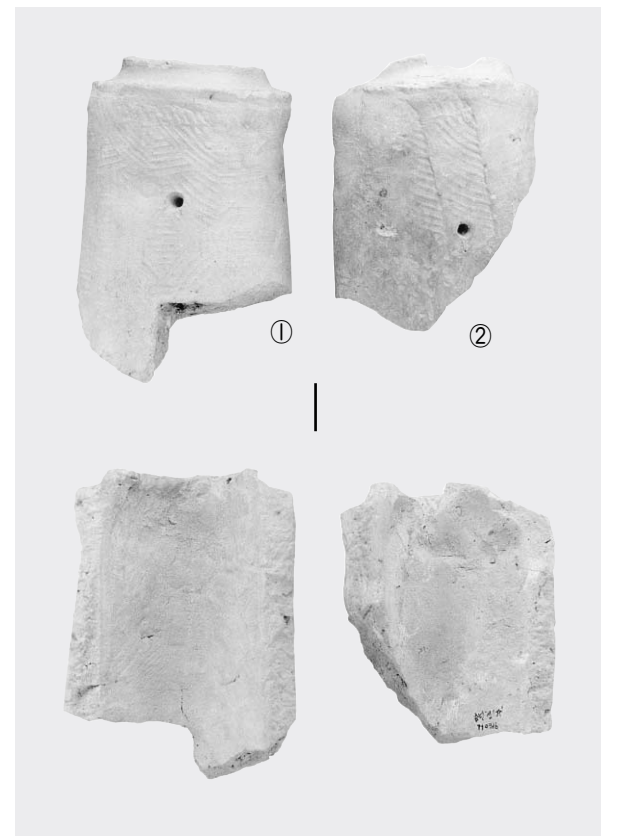


사진 71. 출토유물 - 기와류



사진 72. 출토유물 - 석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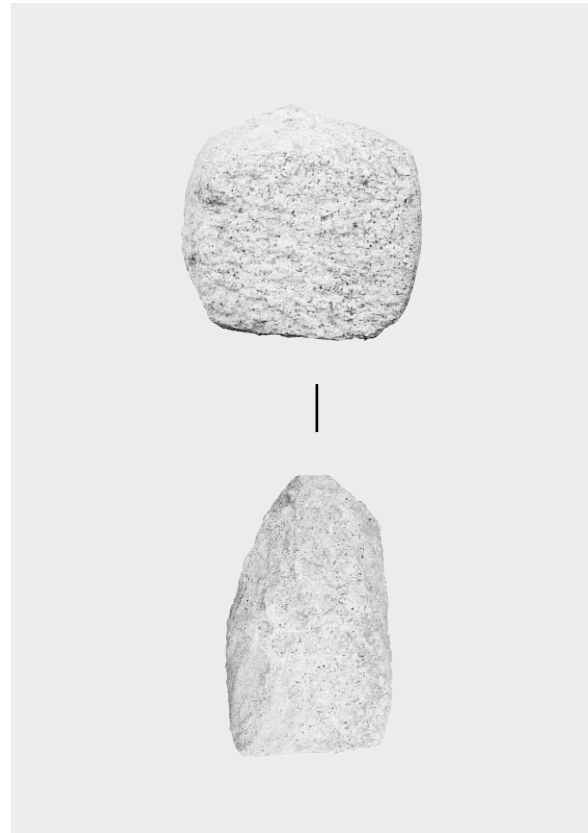


사진 73. 출토유물 - 석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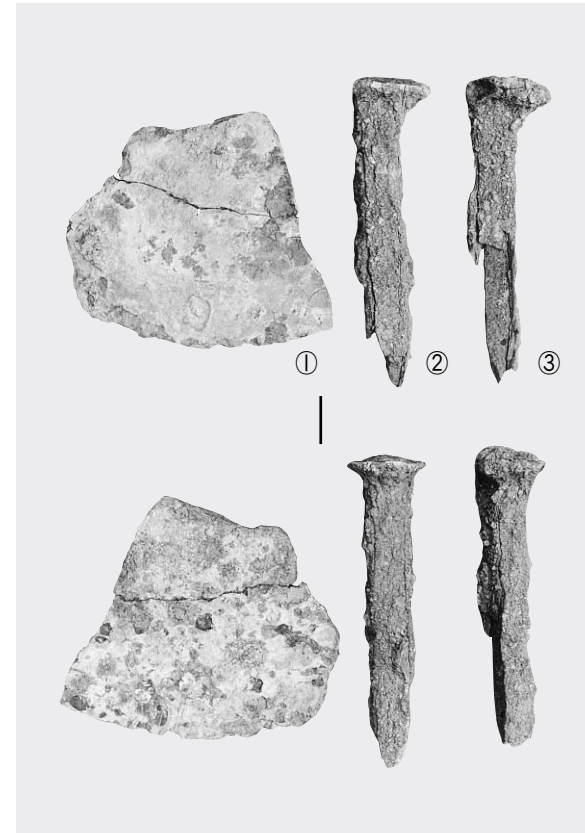


사진 76.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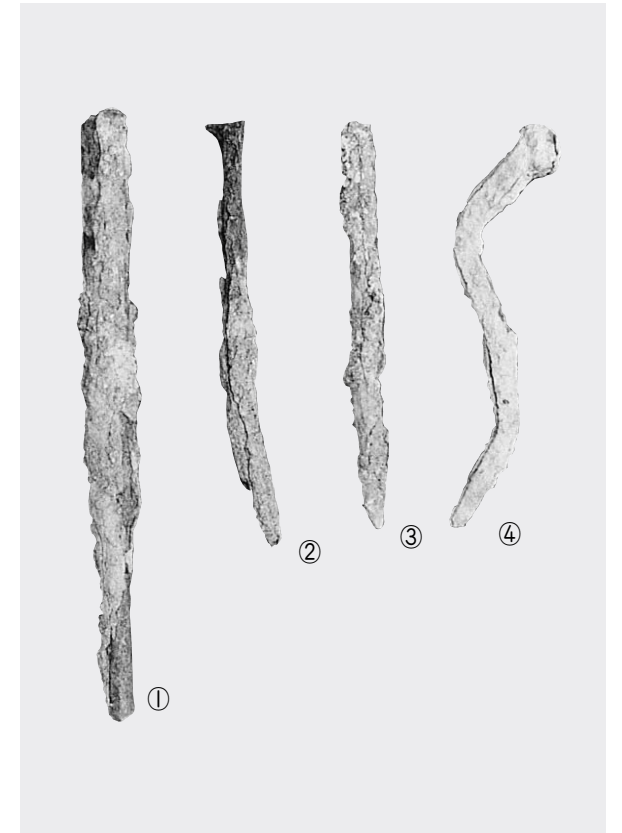


사진 77.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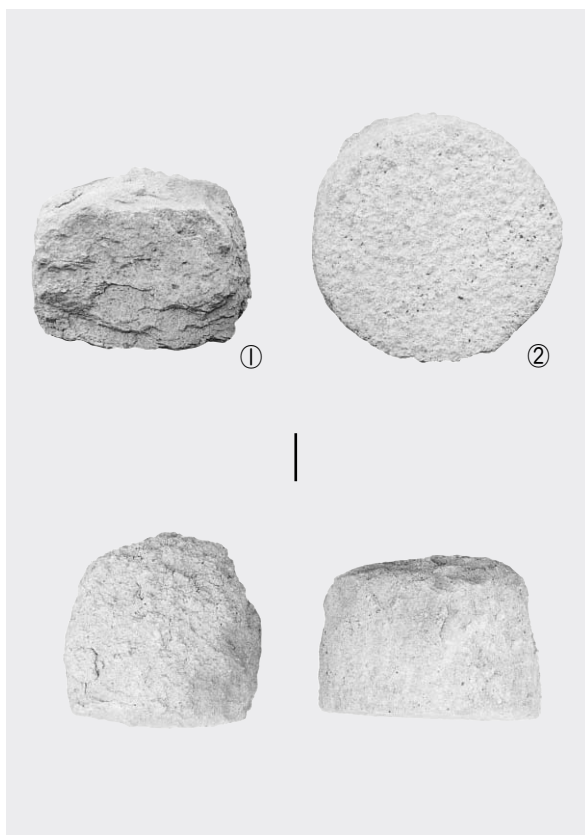


사진 74.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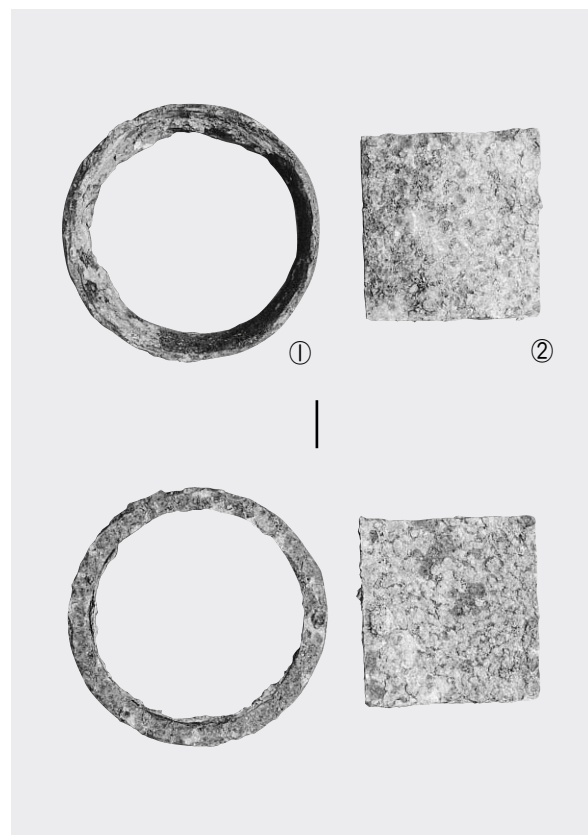


사진 75.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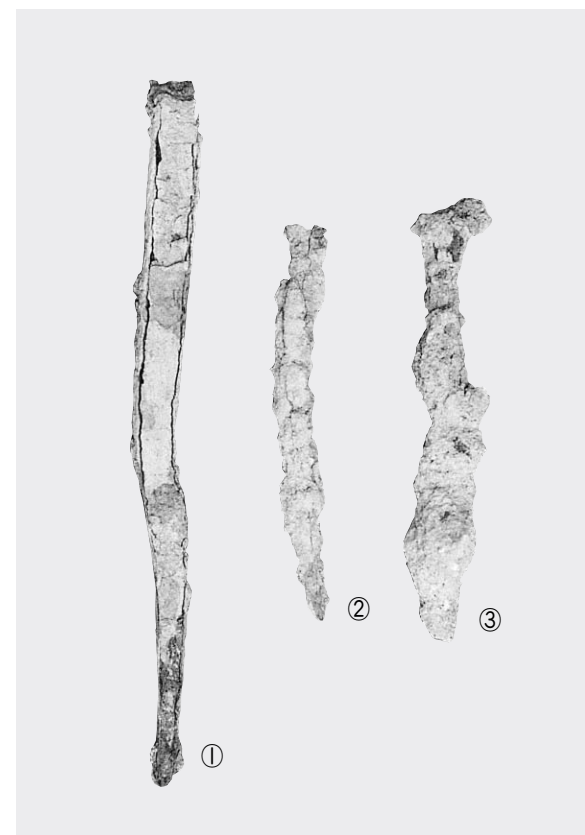


사진 78.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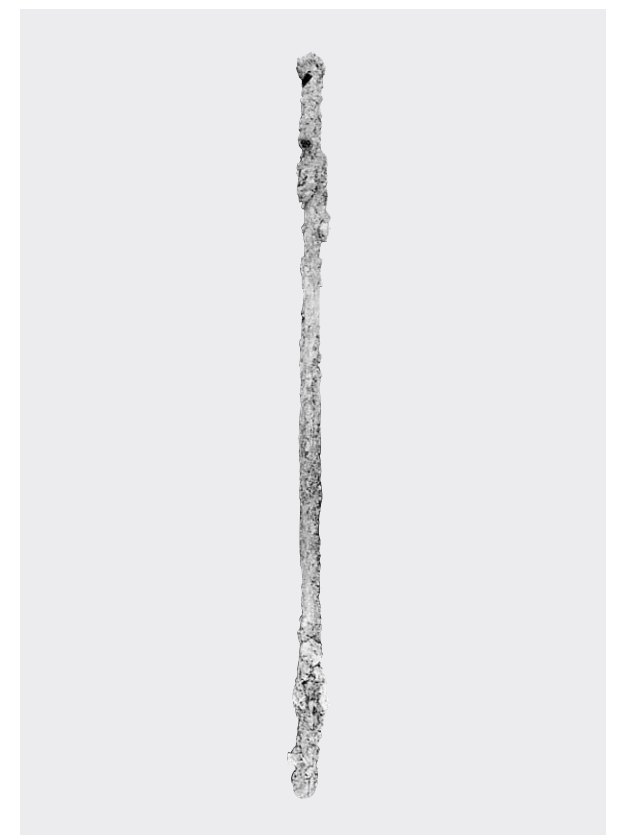


사진 79.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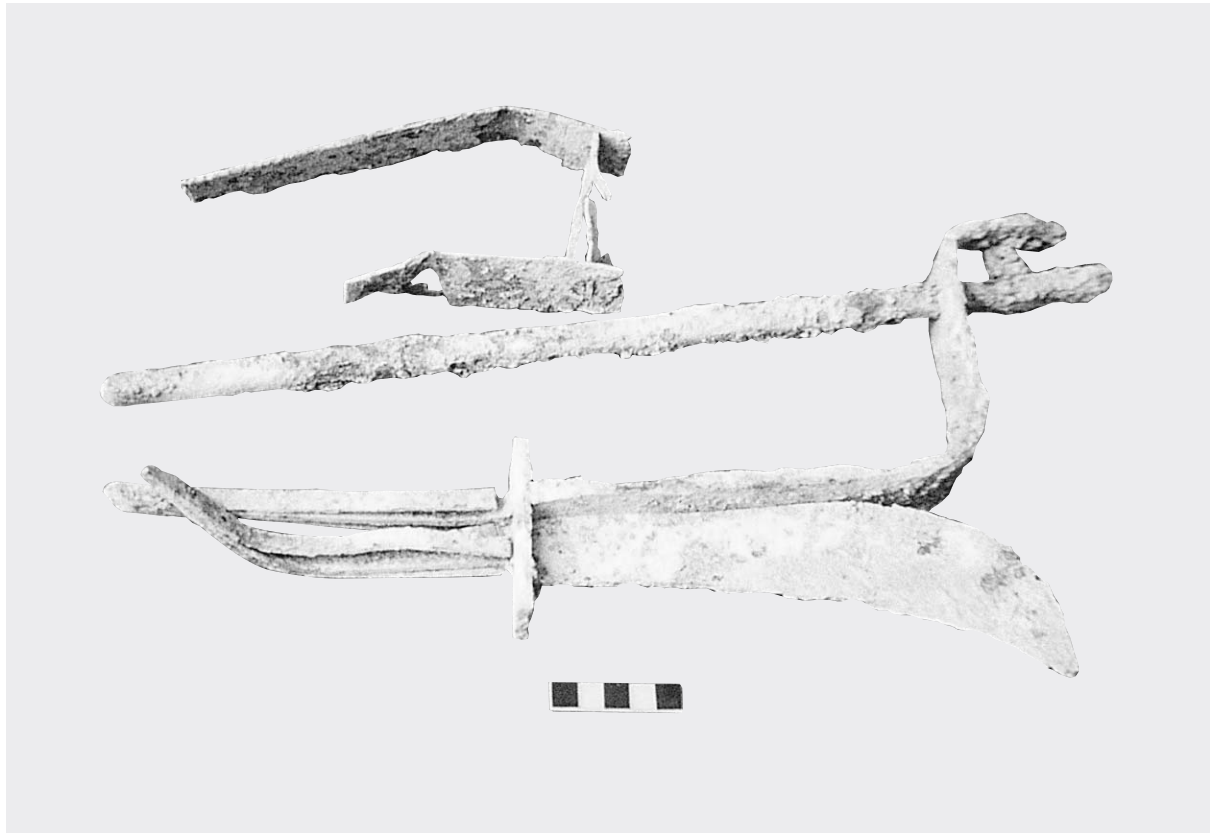


사진 80. 출토유물 - 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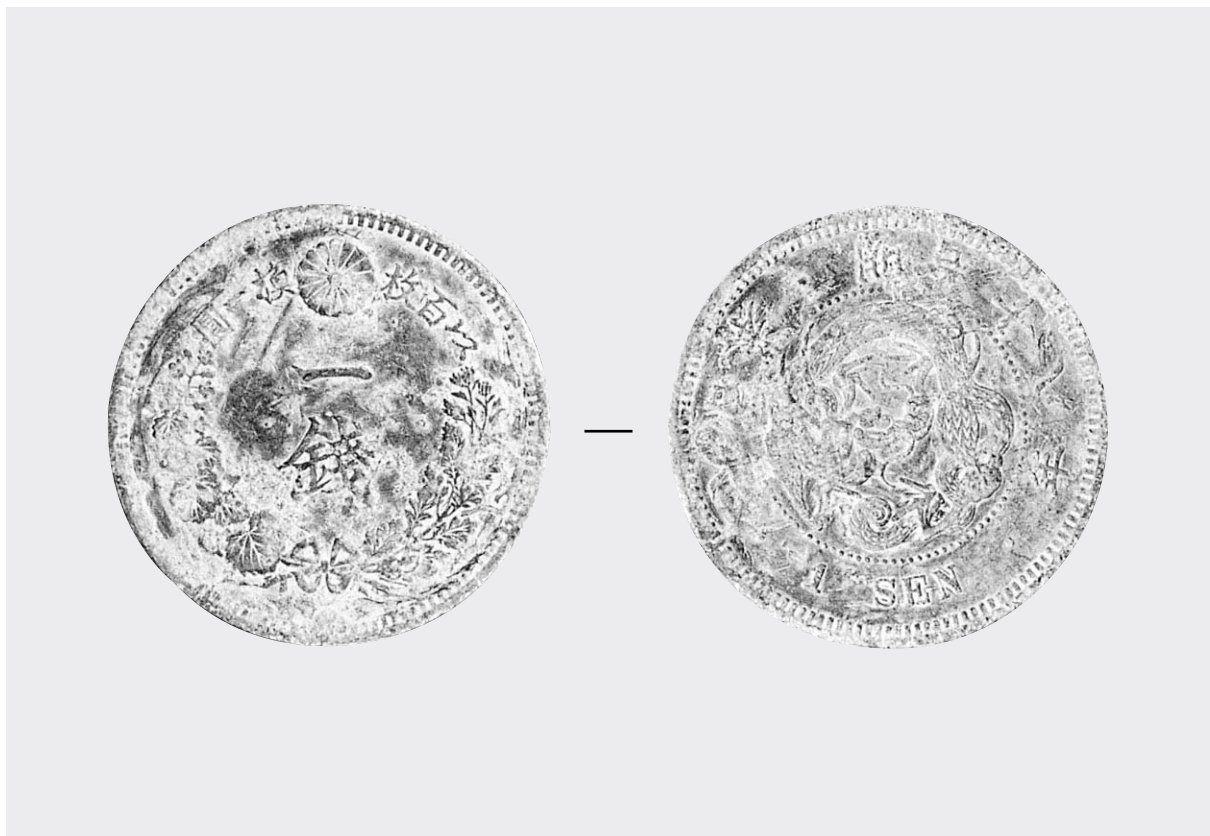


사진 81. 출토유물 - 鑄貨

부 록

祝文式

祭品圖式

享官祭服五件

祭服入盛櫃一坐鎖具

贊者笏記

謁者笏記

奉安閣謄錄一卷

移安謐錄一卷

營建叢錄一卷

花紋面席一件

花紋簞席一件

巨錫桶鎖一部鑰匙具
朱簾一浮
雉尾簾二柄
猪尾簾二柄
羽簾三柄
各張掃塵三件
朱恭捲簾杖木五箇
大廳馬蹄紋地衣一浮
祭床下排滿花紋地衣一浮以上內排設殿
左右翼室馬蹄紋地衣二浮
前退白紋地衣一浮
簷階白紋地衣一浮
南簷階白紋地衣一浮
北簷階白紋地衣一浮
前退白紋踏掌五張
月臺白紋地衣一浮
御路白紋行步席一浮
移安廳大廳馬蹄紋地衣一浮廳內排設
前退白紋地衣一浮
東退白紋地衣一浮

白紋踏掌三張
楨道閣白紋地衣一浮
白紋踏掌一張
齋室大廳馬蹄紋地衣一浮
前退馬蹄紋地衣一浮
左右房馬蹄紋地衣二浮
前退馬蹄紋地衣二浮
香大廳白紋地衣一浮
前退白紋地衣一浮
左右房白紋地衣二浮
典祀廳大廳白紋地衣一浮
前退白紋小地衣一浮
房白紋地衣一浮
前退白紋地衣一浮
草席地衣八浮
殿門竹簾五浮
大廳門桶鎖三部
左右退挾門桶鎖二部
楹外龍簾十四浮
左右挾門桶鎖二部

鴉青木甲門帳二浮
楠簷白木二十幅付遮日一浮
白木五幅付揮帳二浮
移安廳門桶鎖三部
竹簾三浮
龍簾四浮
齋室大廳門桶鎖一部
中挾門鎖二部內一桶鎖一部
香大廳香櫞一坐鎖具
典祀廳中挾門鎖一部
祭器庫鎖一部
紅漆祭物櫞一坐鎖具
石臼一坐
石案盤一坐
白木甲帳二浮內一浮八幅付
白木簾帳六幅付三浮
內三門鎖鑰三部
外三門鎖鑰三部
禁火諸具
鐵豆毛四坐

鹽四石水和
禁火旗二面
皂應金二柄
長柄斧子二柄
長柄小時郎二柄
汲水木瓢子八箇
升屋橋二坐
高坐機二坐
外具典守秩
殿門鑰匙入盛櫃一坐
內外三門鑰匙入盛櫃一坐
舊竹簾六浮
布二十八幅付遮日一浮
熟麻三甲氈二十八巨里
遮日竹十二箇
拜席三立
鍾子二柄
葉光耳二柄
曲鍾二柄
草刀二柄

泡鑰湯器二坐	蓋具
鑰畫龍樽缸二坐	蓋具
累二件	
鑰龍勺二坐	
樽所鑰小燭臺一雙	
望燎鑄錚盤一坐	
鑰大火箸一雙	
飲福鑰盞一坐	臺具
鑰灰板一坐	行用
鑰剪刀一箇	行用
鑰煮二箇	
鑰大也二坐	內一坐
鑰升一坐	在寺
鑰酒鐺一坐	在寺
鑰曲子鐺一坐	
銅丫飛箇一坐	蓋具
銅茶罐一坐	蓋具
鑄大酒煎子一坐	
鑄東海四坐	
鑄沙用三坐	蓋具

鑄前大也二坐	內一坐
鑄大火爐一坐	行用
鑰器入盛大櫃二坐	鎖具
沙瓶二坐	
沙磁碗五立	
沙標匙一付	
沙器入盛櫃一坐	
朱恭樽所床一坐	各張座
朱恭填祝床一坐	面絨具
朱恭硯匣一坐	硯石
紫的單標二幅	付二件
高足床四坐	內一坐
茶食板三坐	行用
橫禿箇三箇	
餅椎一箇	
灰金一部	
鉶煮二箇	
火鼎三坐	牙里
木板一坐	金具
麵夫得只機鐵一箇	

庭燎鐵二坐	牙里
祭物捧上陸油拖一番	金具
御井所排草油拖一番	
爵篚一部	
柳箕二部	
柳大行擔二部	
柳箕一箇	
照乃一箇	
木瓢子二箇	
軟瓢子二箇	
大草簪一箇	
細草簪一箇	
木周耳一箇	
綃篩一部	
馬尾篩二部	
竹篩一部	
霜花餅機二坐	
斗一坐	
升一坐	
陶所羅二坐	

陶甌二坐	
大甌一坐	
中甌一坐	蓋具
小甌一坐	蓋具
餅刀二柄	
鐵工伊二箇	
黑漆中平盤十二立	
隅板四坐	
案盤三坐	
擔桶一坐	常時行用
八隅朴二坐	
二層桌子一坐	
黑漆木燭臺二坐	
齒瓢子一箇	
小雨傘二柄	
紅木甲祿三幅	付三件
架子三坐	在寺
鋪陳諸具	
正殿內閣黃花紋甲地衣一浮	內拱馬
龍紋簾席一件	

香醞一器
玄酒一器
排設諸具
正殿龍床一坐
床上排滿花甲席一件
金綰緞褥席一件
甲紗帳一件
絳紗帳一件
大香囊四件
寶釧一雙
五峯大屏風一坐
大本櫃一坐鎖具
繡褥一件
紫繡內褥一件
紅繡外褥一件
紅綉片褥八件
大香囊六件
鑰匙囊一件
小本櫃一坐鎖具
繡褥一件

紫繡內褥一件
紅繡外褥一件
中香囊二件
小香囊五件
鑰匙囊一件
御定四部手圈十二卷匣櫃具
誌文一件
香櫃二坐鎖具
朱漆祭床二坐紅繡床中一件各張二張付座面絨一件各張二
朱漆香床二坐
朱漆祝床二坐
朱漆燭臺床二坐
鑰大燭臺一雙
鑰祝文板一坐
鑰書正行一雙
豆錫香爐一坐
豆錫香盒一坐
豆錫香串之一雙
香佐兒一雙
水晶枕一柄

金錢斧一柄
陽傘一柄
日傘一柄
織扇二柄
朱漆儀仗機二坐
御製懸板三坐入盛櫃一坐
奉安閣懸板一坐
移安廳大平床一坐
床上排滿花甲席一件
紅木單褥八幅付一件
小平床一坐
床上排滿花席一件
紫綉褥席一件
紅綉單褥五幅付一件以上平床所排
五峯大屏風一坐
雞尾簾一柄
廣頭釘三十箇
朱漆捲簾枕木三箇
紅綉單帳二件內七幅付一件
紅綉祭床巾一件

紅綉單褥二件內九幅付一件
紅木單褥十五件內六幅付三件五幅付二幅付五件
紅綉五十五尺內一端二十三尺
祭器
銀大櫟一坐蓋具
鍍金銀盞三坐臺具
銀茶鍾一坐臺具
銀盞一坐臺具
銀箸一雙
銀器入盛櫃一坐鎖具
紅綉單褥二幅付一件
紅木單褥四幅付一件
中柱桂鑰子里四坐臺具
紅白散子鑰子里五坐臺具
煎茶食鑰子里五坐臺具
生實果鑰櫟匙三坐
細實果鑰鍾子于里六坐臺具
餅鑰櫟匙六坐
麵鑰湯器一坐蓋具

親臨展拜時 殿內外及 齋所修理戶曹專
當舉行為白齊

一奉 安閣懸板 御製懸板三坐入威櫃及樽所
床填祝床硯匣補簷遊日東西中門帳極內外鋪
陳諸具既有左右翼室常時別為藏置為白齊

一殿內溫堞五日一次奉審時點火而點火木每
次一丹式自今寺上下為白齊

禁火諸具以奉

安閣所排移用而待有頃新備
為白齊

一每夜巡更依 行官例以哨官別軍官別驍士輪
回舉行而限天明巡察牆外為白齊

一殿庭內外掃雪判官率府內民丁眼同入直官
負舉行為白齊

一掃雪諸具自今寺進排為白齊

一正殿門鎖鑰依奉 安閣例奉審官封標署署
內外門鎖鑰入直官次知開閉每日放鑰下鑰軍
士呼望等事一依奉 安閣例舉行為白齊

一每朔望以 殿內無事別單啓 聞若值潦雨有
頃則形止亦即啓 聞為白齊

一每日入直守門將與軍士把守外門雜入欄入之

禁一切嚴禁為白齊

一兼守門將直所以 御齋室西溫堞許接以為常
時點火之地為白齊

一時原任大臣閣臣奉 命或因公往來本府則
肅拜後奉審而私行則勿許為白齊

一本府留守兼本 殿提調中軍兼衛將判官兼
殿令哨官二負兼守門將而兼提調兼衛將兼令
則新 除後吏兵曹單付政目兼守門將則自本
府後又勤報兵曹亦為單付別者役二負本營幕
裨中以曾經正職人狀 聞 啓下為白齊

一留守中軍判官兼守門將新 除後以黑團領依
永禧殿例西挾門外 肅拜為白齊

一兼守門將遷轉之規參上則三十朔後自吏兵批
依戊午節自輪回遷轉參下則三十朔後自兵批
六品遷轉依脩局新定式施行為白齊

一兼衛將兼令兼守門將依 慶基殿 長寧殿殿
官例每年兩次考績時一體等第啓 聞為白齊

一兼守門將料布依奉 安閣衛將料布自今寺磨
鍊以給春秋帽債亦為量宜磨鍊為白齊

一守直以兼守門將二負輪回督直而如值兩官俱

有故兼衛將兼令中督直為白齊

一奉 安閣舊有守僕二人書負一人照羅赤二名
守直軍士二名 真殿奉 安後 祭享儀式奉

審諸節自多舉行負役不可不略為加設守僕加
二人軍士加二名照羅赤加二名以為守門將入
直時兼行使役之地負役料布依奉 安閣時例

磨鍊而至於書負各 真殿無此名色自今革罷
別設 殿直一名 祭器鋪陳及遮帳禁火諸具
使之典守出納而料布比守僕差等磨鍊為白齊

一守僕四人既以書吏兼差若為永定則有碍本役

房掌頻數違易則必致儀節生疎次次鍊習後間
間移差俾無兩妨之弊而必以厚稟差送以責其
效為白齊

一祭品既自今寺進排錢穀並屬今寺而守門將
負役料布及一應需用並為上下事別成定例為
白齊

一未盡條件建後磨鍊為白齊

祭品 別祭同但
酒用一爵

盞三坐

櫃一器

白湯一器

煎湯一器

糖羔餅一器

煮朴餅一器

霜花餅一器

豆團餅一器

切餅一器

油餅一器

乾柿一器

大棗一器

黃栗一器

栢子一器

胡桃一器

榧子一器

煎茶食三器

白茶食二器

白散子三器

紅散子二器

中桂果四器

茶一器

調查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華寧殿 典祠廳址 發掘調查報告書		發行日	2000年 12月 31日	
刊 行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 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2-6			
	T E L	(031) 258 - 5105, 7	FAX	(031)258-7116	
執筆・編輯者	張慶浩, 金性泰, 丁海得, 金点淑				
調 查 緣 由	華寧殿의 流失된 附屬 建物址의 確認을 위한 學術調查				
調 查 擔 當 者	金性泰, 丁海得, 許世蓮				
遺 蹟 所 在 地	水原市 長安區 新豐洞 123번지 一帶				
調 查 面 積	1,800㎡ (約 600坪)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建 物 地	朝鮮(1801年 建立)	建物址 1個所	白磁片, 기와편, 石製品, 鐵製品, 銅錢 등	1棟의 建物址와 외곽 담장기초석렬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화령전 복원 계획이 요구됨	